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보살이 정토를 얻으려면
그 마음을 청정하게 가져야 한다.
그 마음이 청정해야
그 국토가 청정해진다.
-유마경 보살품-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철종대불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pia.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2월 23일 수요일(주간) 제 259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지금 우리는 가치 있고 유용한 지식정보를 만들고 전달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다. 지식정보의 관리능력 없이 생존 할 수 없는 지식정보의 생산과 수요의 구조 속에 살고 있다. 사용자 제일주의, 고객 제일주의가 아니면 생존이 어려운 철저한 선의의 경쟁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시대이다. 지식정보의 중시와 고객 지향의 이 흐름은 우리 불교계에도 예외일 수 없다. 교계도 이제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한 중생에게 귀의' 하는 정신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의 흐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사이버 공간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X세대에서 N세대 M세대로 이어지는 네티즌 중생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 어디서나 보다 쉽고 빠르고 편안하게 고객(중생)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그 전달 체계와 방편을 철저한 고객(중생)의 입장에서 만들어 가는 일이 이 시대의 화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의 특성과 네티즌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사이버 불법승과 사이버 도량을 만들어 가는 불사(佛事)능력이 필요하다.

네티즌의 성향 파악
경영마인드 도입해야

사이버 공간의 대중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의 언어는 무엇인가? 사이버 불법승과 도량의 모습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적어도 이와 같은 질문에 자유로워야 한다. 네티즌은 상대적으로 평등, 창조, 개성, 유용성 등을 중시하고 권위를 싫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스님과 재가불자, 불자와 일반대중 등 교계구성간의 새로운 역할 모색이 있어야 한다. 스님중심에서 재가 불자중심으로, 재가 불자중심에서 부처님 법을 접하지 못한 일반인 중심으로 바뀌는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철저한 네티즌을 위한 네티즌 중심의 사이버 도량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이 이미 현대인의 필수 상식이 되어 쉽게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모든 사이버 불법승과 도량을 방문하고 질문하고 비교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승가의 사이버 불사능력은 절대 부족하다는 현실이다.

교계의 사이버 불사에 관한 관심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부처님께서 긴 세월 먼 거리를 다니시며 찾아가 법을 펴신 철저한 중생사랑과 방편의 정신을 사이버 공간에서 되살려야 한다.

김종걸(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승려 자질향상 시급" 69%

조계종 교육원, 본말사 주지스님 설문

"사찰운영 사부대중 참여" 61%

조계종 본말사 주지스님들은 종단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승려의 자질향상과 수행정신 회복(69.2%)" "승려의 노후복지대책(59.6%)"을 꼽았다. 또 종단의 미래에 관해서는 본·말사주지 32.2%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사부대중 공의에 의한 사찰운영에 대한 의견에는 적극찬성 16.6%, 찬성 50.7%로 나타나 98년과 99년 종단사태이후 불교개혁에 대한 필요성과 승가내부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같은 내용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이 14일 발표한 본·말사주지 설문조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교육원은 지난해 본말사주지 연수회에 참석한 880명의 주지스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으며 522명이 응답했다.

스님들은 승풍진작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스님들의 사유재산 소유의 원칙적 금지(74.4%), 사치성 해외유람반대(95%), 문중은사재도에 대해 부정적((73.8%), 출가기준 업격(94.7%), 승가교시와 법계고사 실시(83.6%)에 높은 찬성의견을 보였다. 이는 본말사 주지스님들이 대사회적 위상추락을 절감하며, 승가의 자질함양 승가교육 승풍진작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고도 꾸준히 진행돼야 함을 강하게 요구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단의 승가교육과 관련한 질문에서도 출가자의 질이 우선시 돼야 한다(95.1%), 행자교육 상설화(93.8%), 강원교과 현대적 개선(74.3%), 모든스님 정기안거 실시(75.6%), 주지인사고과제 도입(76.1%)을 선정해 수행풍토 확립을 통한 승가구성원의 질향상을 위해 종단 및 교구본사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사및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주지스님들은 사찰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점으로 승앙주인력난(46.4%), 신도관리 어려움(36.1%)을 들어 눈길을 끈다.

이밖에 총무원과 종무기관의 업무및 총무원의 업무처리와 친절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불만,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중앙종단 권한을 교구본사로 이양하기를 요구하는 본말사주지도 69.9% 찬성의견을 표해 97년 조사시 62.5%에 비해 10% 증가했다.

지역사회에서 타종교와 타 종단의 활동정도를 알아본 결과 각각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관공서와의 관계에서는 충청지역이 협조적, 호남지역은 비협조적이라는 수치가 높았다. 조계종 교육부장 계성스님은 "이번 설문분석 결과 종단사태로 인해 실추된 종단의 위상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밝혀진 근거자료를 통해 향후 종단종책의 나아갈 지침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선학원 수계산림 3사7증 위촉

이사회서…행자교육원 예정대로 개원

선학원(이사장 정일)은 17일 서울안국동 중앙선원에서 이사회를 열고 3월 13일 봉행하는 사미(니) 수계산림 3사7증을 위촉했다. 3사는 전계사 정일, 교수사 송산, 갈마사 성해, 7증은 도의, 도형, 청오, 동림, 현공, 성산, 대운스님이다.

선학원 이사회는 또 지난 해 12월 전국분원장회의 결의대로 제1기 행자교육원을 개원해 3월 6~13일 서울우이동 보광사에서 행자교육과 사미(니) 수계산림을 봉행키로 했다. 다만 비구 구족계 수계산림은 9~10월경 실시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비전향 장기수 송환촉구
종교지도자들 서명동참

정대 조계종 총무원장과 송월주 전 총무원장, 강원룡 목사, 김몽은 신부 등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의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송환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운동본부(민화협)는 15일 남북 화해를 위한 새 천년 사업으로 장기수 송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인도적 조치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 종교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졸 업 구름 걷힌 맑은 하늘을 만난 듯 즐거운 졸업식.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마침표일 것이다. 자신을 채우기 위해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지난 15일 동국대학교 졸업식 후 불교대학 졸업생들은 정각원에서 졸업법회를 가졌다. 사진은 졸업을 즐거워하는 불교대학 스님들의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온겨레 손잡기운동 종교인 선언문 의견수렴후 확정

3월 1일 온겨레손잡기운동 본행사에서 발표할 '화해와 광화를 향한 종교인 333인 선언문' 초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상임공동본부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종교인 333인 선언문 초안을 공개했다.

"우리는 오늘 온겨레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분단과 전쟁의 시대를 넘어 통일과 광화의 세기를 열어나갈 것을 선언합니다"로 시작되는 선언문 초안에서는 종교인들의 책임을 자성하는 한편 통일과 지역감정 타파, 정치계 쇄신, 경제난 타개, 문화 퇴폐와 이기주의 제거, 인류의 공존공영 등을 위해 3·1정신이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국제교류위 발족

위원장에 양산스님

국제 종교교류와 국제적인 종교 현안을 자문하는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가 발족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6일 총무원4층 회의실에서 10명의 국제교류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한국불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노고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0명의 위원은 양산스님(당연직 위원장, 조계종 사회부장), 상운스님(당연직 위원, 포교원 포교부장), 지명스님(청계사 주지), 진월스님(세계종교연합 한국대표), 정인스님(중앙승가대 교학처장), 원명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원장), 양장운(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부회장), 김보현(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송위지(외국어대 불교학생회 지도법사), 최종남(한양대 강사) 씨 등이다.

이어 국제교류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에 진월스님을 선출하고 위원들을 아시아 유럽 미주 등 지역별로 나눠 각국의 종교현황을 파악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기묘년 동안거 해제

혜암종정 법어 발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기묘년 동안거 해제(양력 2월 19일)를 맞아 16일 해제법어를 발표했다.(법어 3면) 해제법어와 관련, 조계종 기획실은 "3개월 동안의 동안거를 마치는 날 종정예하께서는 만행에 나서는 수행자들에게 법어를 내리심으로써 개달음의 일단식(一掉頭, 일부분)을 내보이셨다"고 밝혔다. 해인사 방장 법전스님,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 수덕사 방장 원담스님, 백양사 방장 서옹스님과 태고총림 선암사 선원장 지허스님 등도 각각 법어를 통해 지속적인 수행을 당부했다.

이번 동안거에는 조계종의 4대 총림, 태고총림 선암사를 비롯 비구선원 43곳, 비구니선원 30곳, 해외에 소재한 선원 등 80여곳의 선원에서 2천여명의 대중들이 안거수행을 했다.

예술분과위 신설
남북문화교류 확대

KCRP, 회장에 최창규씨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17일 서울경운동 천도교 수운회관 회의실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회원종단간 연대협력 확대 및 내실화 △남북종교교류 추진 및 대북지원 활동 강화 △재정기반 확충을 주요 사업목표로 설정했다. 또 이미 설치된 6개 분과위 외에 예술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하고, 예술분과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남북종교인 예술·서화교류전(8월 예정), 종교청소년 문화예술제 등을 열기로 했다.

KCRP는 이와 함께 종교간 대화, 인권·환경, 남북교류, 여성, 청년, 평화교육 등 분과위원회의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KCRP는 이날 총회에서 최창규 성균관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분단의 극복은 온인류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며 "분단극복에 한국종교인 평화회의가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937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와 11, 12대 국회의원,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으며, 98년 10월부터 성균관장으로 있다. 정성운 기자

최봉수 교수와 함께하는 경전강좌
근본불교 대강좌(3년과정)



그동안 동산불교대학에서 <근본불교개설 강의>, 동산 전문연구원에서 <아함경>을 강의했던 최봉수 교수님의 특별 경전코너인 <근본불교 강좌>를 개설합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소승과 대승경전을 체계적으로 배울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강의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2.교육장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 로타리 웅전갤러리 2층)
3.개강일시	2000년 3월 9일(목) 오후 4시
4.모집내용	주간반 · 통신반
5.입학금	100,000원
6.특 전	3년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홍법사를 수여함

※ 근본불교(아함경→금강경→법화경→화엄경십지등→무량수경)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02)732-1206~8 / FAX 02)732-1207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주부 · 직장인을 위한
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년2회(매년 2월,8월)
■ 모집정원 : 200명

1. 교과목

1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2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2. 정규반, 주간반, 통신반

3. 문 의 처
☎ 02)732-1206~8 / FAX 02)732-1207

4. 특전사항
· 조계종 포교사 고시 거쳐 포교사 자격증 취득
·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산불교대학 입학추천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불교대학

김재일법사와 함께하는
알기쉬운 불교교리 강좌개강

본회에서는 불교를 처음 찾는 분이나 불교기본교리를 알기 쉽게 공부할 제 9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강의개요

1.강의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봄반)
2.교육장소	동산법당(안국동 로타리)
3.개강일시	2000년 3월 8일(수) 오후7시
4.교 과 목	불교의 정의, 불교의특징, 불교의 분류, 삼보설, 삼과설, 삼법인설, 연기설, 사제설, 수도론, 번뇌론, 반야심경,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및 사찰예절
5.지도법사	김재일 법사
6.교 재	수강신청자에게 입학당일 제공 (불교의 기본교리, 교리노트)
7.입 학 금	30,000원(반명함판 사진2매)
8.지원자격	제한없음

※ 문의 : 사무국 ☎ (02)732-1206~8
FAX (02)732-1207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동산반야회

한민족 공동체본부 3월 발족

조계종 올 종무계획 발표…"대화합 조치 과감히 시행"

조계종이 (가칭)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남북교류와 통일운동에 나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올해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 발표를 통해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직속의 특별기구로 3월 중순 설치되는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통일종책 수립을 위한 연구 △통일의식 고양을 위한 대중사업 △남북불교교류 △북한 불교문화재 조사 및 복원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잡고 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과 남북불교 통일토론회를 앞두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민간단체 북한방문 적극 지원을 밝힌 바 있어 올 한해 남북불교교류를 비롯해 대북교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조계종에서 남북불교교류 전담기구를 설치키로 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계종이 한민족공동체추진본부를 설립하기로 한 배경은 △종단협의회 산하 기구인 민족화합불교추진위(불추위)에 참여하고 있는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총지종이 별도로 남북불교교류를 추진하고 있어 조계종도 별도의 남북불교교류 기구가 필요하며, 불추위로는 조계종단의 장기적인 남북불교교류 정책수립이 어려웠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조계종은 이날 종무계획 발표를 통해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외에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한 사면·복권 실시 △청정종풍 선양과 승가교육의 진흥 △불교문화 선양 △사찰환경 보존과 대사회활동 강화 △신도교육 체계화를 통한 포교·전법의 확대 △본말사 종무행정체계 구축과 서비스 행정 구현 등 7대 종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231개 단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대스님은 사면과 관련 "법과 제도적인 걸림이 있다면 제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제출하는 등 제반 조치들을 과감히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수계자격 강화"

전국 교무국장단 결의문

전국의 교구본사 교무국장단(회장 종월)은 15일 직지사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출가자의 자질향상과 승가공동체 발전을 위해 행자교육을 강화하고 수계자격을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와함께 교무국장들은 △사미의 제의 확실한 정착 △강원의 전학 및 편입 △종단법령 재정비 △4급 승가고시등을 통해 승가의 위계확립과 예비승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이 일관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교육원에 건의했다.

한편 교무국장 연수회는 교무국장 전체회의, 99설문조사 분석 및 연수회 평가, 2000년 본말사 연수계획수립, 습의실참 및 습의교본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의사·교수·방송인·작가…

"불교 제대로 배우고 싶다"

동산불교대 입학생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

SBS 박준영 기획편성본부장, 소설가 남지심씨, 아줌마는 나라의 기둥 김용숙대장, 한국방송통신대학 권세준교수, 한국전력 심창생전무, 정원용 한전교육원장, 박성양 단청 문화재위원 등등. 이밖에도 이희봉 영등포교도소 의무과장을 비롯한 교도공무원 6명, 김병호씨(김병호내과의원 원장)등 의사 11명, 황보수(남양주약국)씨등 약사 10명, 김성남(동서한의원장)씨등 한의사 6명, 일반공무원 12명, 은행원 10여명등이 신입생으로 등록했다.

12일 입학식을 갖은 동산불교대 신입생들의 면면을 보면 유명대학원의 최고경영자과정에 와있는 착각에 빠진다. 신입생의 학력도 70%이상이 학사, 석사, 박사출신이다. 남학인 비중도 여느대학과는 달리 여학인보다 2배나 됐다.

올해 동산불교대학의 입학인원은 210명. 지난해 150명에 비해 60명이 늘었다. 입학정원도 원서접수 첫날에 50%이상이 접수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주간반인 주부반이 특별히 개설됐다.

재가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동산불교대학은 2년간 신심을 겸하게 하는 교육방침아래 대승불교등 18과목 이수와 '나무아미타불'염불을 2만번씩 하고 쓰는 졸업과제물이 화제. 동산불교대학은 2년간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은 "직장인불자들의 교리에 대한열의가 높고, 일반인들이 불교철학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자연과학을 공부한 분들이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불교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경향이어서 앞으로 교양대학의 전망이 밝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산불교대학은 92년 개교이후 안동일변호사, 이문옥전 감사관등 8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바 있다. 또 97년 LA관음사에 분교를 설립하여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동산불교 한글의식교육원과 3년과정의 동산불교전문연구원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내달 공식출범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춘 조계종 포교사단이 공식 출범한다.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기병)은 3월 12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서울·경기,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전주·전북등 6개지역 90개 포교팀으로 구성된 조계종 포교사단은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된 명실상부한 교계의 대표 포교단체가 될 전망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교사단은 2000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포교활동 비전을 제시한다는 계획아래 선언문 낭독, 포교활동비전선포, 생명나눔행사, 축하공연등의 행사를 펼친다. 이에앞서 1시 30분부터는 식전행사로 신규포교사 품수식도 개최한다.

한편 조계종 포교사는 매년 불교대학 졸업자중 포교사고시를 거쳐 3백여명이 탄생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정대 총무원장 당선축하 법회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 당선축하 법회가 용주사 본말사 주최로 17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열렸다. 법회에는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과 총무원 사회부장 양산스님,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임창렬 경기도지사, 김인영 의원(민주당) 등 사부대중 3백여명이 참석했다.

정대스님은 이날 법회의 인사말을 통해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불자들도 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용주사는 이날 법회와 관련,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큰 행사를 치르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정대스님의 뜻에 따라 취임식을 거행하지 않았다"며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늦게나마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총지종 록정대종사 종령 취임식 불교총지종은 제 7대 종령 록정대종사의 추대법회를 15일 역삼동 총지사 대법당에서 봉행했다. 총지화 통리원장 등 종단의 승직자와 신도 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록정대종사는 취임사를 통해 "그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정토건설의 대서원으로 종단발전을 이룬 전 승직자와 교도의 노력에 경하를 보낸다"면서 "변화하는 세계에 부응하는 종단으로 발전하기 위해 새로운 교화방편을 마련하고 인재양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한 총지화 통리원장은 "록정 대종사님의 취임과 더불어 승속이 모두 화합하여 종단이 힘찬 재도약을 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현 대 만 평 박 구 원



한민족 공동체 추진본부 발족

총선불교연대 '49일 정진주간' 선포

총선불교연대(상임공동대표 청화·박광서)는 14일 각 당 공천심사위원회 앞으로 '맑은 정치 실현을 위한 반인권 부패정치인의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공문을 송달했다. 또 총선시민연대가 1차명단으로 발표한 공천반대 정치인 67명에게 '맑은 정치를 위한 자진참회 촉구' 공문을 각각 발송했다.

'자진참회 촉구' 공문은 "스스로 참회하고 물러나 봉사의 삶을 통해 정치지도자로서 책임있는 회향의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생명을 억압한 행위에 관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참회촉구운동을 벌일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총선불교연대는 19일 조계사에서 '부패 정치인 참회, 유권자 심판' 구호를 단 목어와 '참회의 등(燈)' 달기 행사를 갖고 낙천·낙선운동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또 오는 23일 총선49일전을 맞아, '참회하는 맑은 정치 실현을 위한 49일 정진주간' 선포 및 입제식을 개최한다.

김재경 기자

日정토종 미즈다니 종무총장 방한

종단협의회(회장 정대 조계종총무원장)는 17일 일본 정토종 미즈다니 고오쇼(水谷幸正) 종무총장(총무원장) 방한 환영연을 베풀고 한-일불교문화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모임에는 종단협의회 부회장 인곡, 운덕스님과 성초 대정사,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자승스님은 69년 사미계, 74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교무국장과 규정국장, 수원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주지, 10~11대(92~98년) 중앙종회의원, 종회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자승스님 종회의원 '당선'

자승스님(전 조계종 재무부장)이 17일 실시된 조계종 2교구(용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용주사 종회의원 보궐선거는 정대스님의 총무원장 출마에 따라 사퇴함으로써 치러졌다.

미즈다니 종무총장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와 한·중·일불교교류대회를 이끌어낸 산파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한·일불교문화교류협 일본측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즈다니 정토종종무총장은 18일 열린 홍윤식교수 정년퇴임 논문봉정식에 참석키 위해 방한했으며, 안양 한마음선원을 찾아 대행스님과 대담을 한 후 19일 출국했다. 〈차주상보〉

정성운 기자

"종교화해법 제정" 여진스님, 정부에 건의

사이버템플 법운사(cybertemple.org) 주지 여진스님이 정부에 '종교 화해법' 제정을 건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진스님은 최근 법제처 앞으로 보낸 '종교 화해법 제정 건의서'를 통해 "새천년을 맞아 종교간의 분쟁소지를 엄격하게 차단하여 종교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종교간 화합, 지역간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종교 화해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진스님은 이 법률이 다른 종교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경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도들에게 고함

귀의 삼보하옵고

대망의 새천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본종을 애종하시는 종도 여러분의 법체금안하심과 하시고자 하시는 제반불사가 부처님의 자은으로 원만하게 회향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999. 12. 23 본종 붕해 종정 예하께서 불법 선포한 종단비상특별조치 종령에 불복하여 본종을 애종하고 구종이념으로 뜻을 같이 한 전국 종도들이 1999. 12. 28 모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종도들의 호응아래 종헌종법 위법사항에 대한 진상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구하고 있아오니 종도 여러분께서는 적극 동참하시어 창종주 일붕존자의 유지를 받들어 본종을 구종하고 정법수호에 매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난 1999. 12. 23. 16시를 기하여 붕해 종정예하께서 선포한 종단비상특별조치 종령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을 만천하에 공개함
   1) 종헌 제27조(원로의원 추대) 원로는 종정의 추천으로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아 추대한다로 종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 종정예하께서 원로의원을 추천은 하였으나 종현 제27조인 중앙종회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으로 원로의원으로 자격이 없으며 의결권과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단, 장연종 의장은 제외)
   2) 종헌 제23조(종정권한) 7항에 종단이 위기사항이라 판단될 때 원로회의의 자문을 구하여 종단비상특별조치령권을 선포할 수 있다고 종법 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나
   ◐ 종정이 원로의원 추천으로 중앙종회에 동의도 받지 아니된 원로의원이 소집되어 의결되었으니 본종령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음.
2. 종령으로 선포할 수 있는 비상사태라면 종단의 심각한 위기사항이나 내부에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도저히 선포할 수 없으며 원로회의 의제가 될 수도 없음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사료됨.
   ◐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가 금강산 관광문제로 되어 있음으로, 만일 본건이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종단 조사기관인 규정부와 사법기관인 사정원이 있음으로 이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솔하게 선포한 종령은 잘못된 사항이며 종정 권한을 남용한 것임.
3. 붕해 종정예하께서는 위 1, 2항을 참조하시고 종헌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1999. 12. 23 선포한 종령을 철회하시고, 불법적인 사항에서 구성된 통앙종회 해산과 중앙종회 의장 오현각 스님 및 장봉암 스님의 선임을 취소하고 1999. 12. 23 이전상태로 제반업무를 환원하여 종단이 정상화되고 본위원회에 동참한 5백여종도가 바라는 화합의 종단이 될 수 있도록 종정예하께서 종헌종법을 준수하시고 종정의 품의를 수호하시기 바랍니다.
4. 본위원회는 지상공개로 제반사항이 뜻하는데로 관철되고 정법수호가 이루어질때까지 지속적인 투쟁과 제 2,3의 폭탄선언을 할 것을 5백여 동참 종도의 결의로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사항이 관철이 안될시에 비상대책위원들과 전 종도가 인천 호불사에서 항의 시위에 돌입할 것을 선포합니다.

불기 2544년 2월 17일 목요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혜천	상임위원	혜정
상임부위원장	대륜	상임위원	일훈
부위원장	명종	상임위원	화엄
부위원장	용암	상임위원	법청
부위원장	강설	상임위원	현철
총무	법선	상임위원	능호
간사	지공	상임위원	지성
간사	통영	상임위원	혜성
사무국장	혜성	상임위원	법상
사무차장	법장	상임위원	혜성
		상임위원	봉월
		상임위원	덕화

※ 본위원회 추진사업에 동참하신 전국 483종도 합장

목어

방송위원 기독교 일색

이 나라의 인재는 예수교신자 밖에 없는가? 불교신자는 모두 바보밖에 없는가?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다. 대통령이 천주교신자, 영부인이 개신교신자라 그런지 청와대의 정책수석이 목사, '새천년 민주당'의 주요인사에 성공회 신부가 등용되는 등 정부각료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일색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국민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방송위원회에 개신교인 5명, 천주교인 1명, 무종교인 3명으로 구성되어 종교의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정책과 행정권 내지 공영방송사의 인사권 등 방송전반에 걸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고 한다.

방송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정보의 유통과 생활문화의 보급을 담당하는 귀와 눈의 역할을 한다. 국민이 보고 들어서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보마당이 편중되어 보급된다면, 그 국가와 사회는 편식으로 인한 기현상이 자행되어 바른 견해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을 것이다.

방송은 단순한 뉴스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민족문화의 창달과 생활문화의 전환으로 새로운 역사의 장을 계도해야할 될 막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종교 사회에서 어느 특정 신앙인에 편중된 인사로 구성된다면 대다수 타종교인의 무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공공방송 보도에서 '뇌사판정'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기도하는 목사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사가 뇌사를 결정하는 등의 장면은 심히 우려스럽다.

미국의 경우도 결혼식 인증에 종교인의 사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스님의 사인도 유효한 것을 보면, 종교의 중립을 잘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교 공화국'이라 불리는 현 정부는 종교문제에 있어 엄격히 중립에 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이러한 사태가 되도록 방관한 불교종단도 각성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1천만 불자들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법산(동국대 정각원장,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현대불교 www.buddhapia.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조계종 총무원 올 어떤 사업 펼치나

종책 자문위 구성 사회변화 능동대처

조계종총무원(원장 정대)이 17일 올해의 중앙종무기관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예년 같으면 11월 정기중앙종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해 1월 중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종회가 유회를 거듭하는 바람에 예산을 심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사업계획도 확정하지 못했다. 아직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신규사업의 집행은 보류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계종 예산안은 3월 중순 열릴 예정인 중앙종회에서 확정된다.

종무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발표문을 통해 △종단안정과 화합 △청정종풍 선양과 승가교육의 진흥 △불교문화 선양 △사찰환경 보존과 대사회활동 강화 △남북불교교류 및 해외 연대활동 활성화 △신도교육 체계화를 통한 포교·전법의 확대 △본말사 종무행정구축 및 서비스 행정 구현 등 7가지를 주요 종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종단 안정·화합

종단운영에 종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원로스님들과 중진스님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원로회의와 본사주지회의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기로 했다. 또 종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자문위원회에 재가 전문가도 참여시켜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징계자 사면·복권을 실시해 분쟁의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종단안정을 위해 참회와 개전의 정을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 사면을 단행하며, 법적인 걸림돌이 있다면 법의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정종풍 선양

98, 99년과 같은 종단사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중심의 승가상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인식이다. 승니 분한신고를 실시해 승려이동 및 신상의 변동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수행과 포교에 전념토록 하기 위한 물적기반을 스님들에게 제공키 위한 조치로 승가복지시설 설립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설립에 따른 기초조사에 착수한다.

종단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승가위계에 따른 의제 연구, 조계종 근현대사 연구 및 정리도 올해의 주요한 사업이다.

불교문화 선양

불교문화재를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중점 추진한다. 3월중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을 설립하고,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문화재 지정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불교무형문화재 실태조사 및 전산화, 경기지역 사지 보고서 발간, 동화사 불국사 고운사 본말사 성보실태조사를 올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5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된 진감국사 기념사업, 전통등 경연대회, 연등축제의 시민축제화도 문화분야의 주요한 과제로 삼았다.

조계종은 이밖에도 불교종합회관 건립불사 추진계획 재수립, 불교사회교육원 설립 지원, 국제불교현황 자료집 발간, 통합종무행정 시스템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한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스님이 부·실장 스님들이 배석한 가운데 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혜암종정 동안거 해제 법어

天寒日短하니 解制急迫이라
南山峰頂에 瑞雲遍空하고
漢江流水는 爭竟歸海로다
神龜負圖에 文殊失色하고
順水流舟하니 疎山舒光이라
照用同時는 卽不問이어니와
照用不同은 作麼生고
携帶放曹하니 諸侯避道로다

密移一步六門曉하니 無限風光大地春이로다
喝 一喝

날씨는 차고 해는 짧으니 해제가 절박하여졌다
남산 꼭대기에 상서로운 구름이 하늘에 퍼져 있고
한강 흐르는 물은 필경에 바다로 돌아간다
신령스런 거북이 그림을 지고 오니 문수가 빛을 잃고
잔잔한 물에 배를 띄우니 소산에 빛이 비친다
조(照)와 용(用)이 때를 같이 함은 문지 않거니와
照와 用이 때를 같이 하지 않음은 어떠한가?
죄인이 사면장을 가지고 나타나니 제후가 길을 피하네

은밀히 한 걸음 옮기매 六門이 밝아지고
한없는 風光에 온누리가 봄이로다
아 악-

수행지침 담은 깨달음의 나침반

2000년 기획
禪과 21세기

⑦ 선어록이란 무엇인가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부교수

중국어로 번역된 불교 경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을 중국어로 번역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자(漢字)문화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불교 경전의 시원을 논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경(譯經)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해석의 작업이 시작된다.

이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된 불교 경전을 강의하기 위한 강의의 대본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불교 경전 주석서의 원형이 된다.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유가(儒家)들에 의한 경전 강의의 행위가 있었으며, 군주가 이것을 장려하여 더욱 융성했다. 이런 강의의 풍습이 불경에도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강의의 대상이 되는 경전의 종류가 많아지면서부터 각 경전간의 유기적인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교판(敎判)이다.

한편 선사들은 실제 수행 상에서 생기는 문제를 일상회화를 통해서 설하게 된다. 게다가 금당 중심의 강사(講寺)가 아닌 법당 중심의 선사(禪寺)에서 조석으로 주지가 법당에 올라 이른바 상당설법을 행한다. 이와 함께 수행자들에게 아침저녁으로 설법을 하거나 문답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 의해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선서이다.

선사들도 처음에 강사들처럼 정형화된 틀을 고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전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불전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선서를 논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도 이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풍도 당나라 말기를 전후로 변한다. 선서에 경전 인용의 빈도가 줄어든다.

먼저 대표적인 선서로서 〈육조단경〉을 들 수 있다. 이 〈육조단경〉에서는 많은 경전을 인용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취지가 무엇이었는가를 설명해간다. 〈육조단경〉에서는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유마경〉 등등의 대승경전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전통은 마조스님의 어록 속에도 현저하게 드러난다. 주로 인용되는 것으로는, 〈이입사행론〉 〈유마경〉 〈열반경〉 〈대반야경〉 〈능가경〉 〈화엄경〉 등이다. 특히 〈유마경〉의 문구는 상당히 많이 보이는 편이다. 이런 현상은 황벽선사의 〈전심법요〉에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뿐만 아니라 임제스님의 어록인 〈임제록〉에서는 〈수능엄경〉 〈심지관경〉 〈정법염처경〉 〈유마경〉 〈화엄경〉 〈열반경〉 〈화엄합론〉 등의 경전을 인용하여 제자들에게 수행의 지침을 보여준다.

이렇게 경전을 인용하여 수행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선사스님으로 영명연수를 꼽을 수 있다. 영명선사는 〈종경록〉(전100권)을 저술했는데, 여기에서 영명선사는 깨달음을 방증하는 수단으로 경전을 사용한다. 애초부터 선과 교를 나누지 않았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에서 문자로 기록된 선서가 출현된 뒤로는, 그 선서를 교재로 삼아 강의가 진행된다. 이것이 이른바 송고(頌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설두중현선사의 〈설두송고〉이다. 송고란 말 그대로 옛선사들의 깨달음에 대한 기연들을 운문체로 코멘트하는 것이다.

그 후 송나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송고에 다시 코멘트 하여 수행하는 납자들을 지도하는 이른바 평창(評唱)이라는 강의의 형태가 출현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원오극근선사의 〈벽암록〉과 만송행수선사의 〈종용록〉이 있다. 경전의 강의와 주석서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듯이, 선서에서의 송고 내지는 평창도 강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편, 개별적인 선서의 출현과 더불어 선종의 역사서가 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등사(燈史)로써 〈조당집〉이나 〈경덕전등록〉 등이다. 여기에서 다시 증대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것은 각 선사들의 이야기를 어떠한 순서로 편집 정리하느냐는 문제이다. 〈조당집〉이나 〈경덕전등록〉만 하더라도,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그 배열에는 상당한 특색이 있다. 즉, 혜능스님 이하의 배열에 있어서 〈조당집〉은 청원행사의 계열을 먼저 하고, 〈경덕전등록〉은 남악회양의 계열을 먼저 기술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법통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것은 편집자의 법통의식과 결부되는 것으로, 선종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다. 이런 현상은 후대의 〈오등회원〉이나 〈고존숙어록〉 등에 가서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필자는 선서의 출현을 경전의 강의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 강의라는 담론의 형태를 통해서 불교의 핵심인 번뇌를 어떻게 퇴치할까에 대해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들이 체험한 사례들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례들을 활용하여 각자 자신의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삼을 수 있다. 이 점이 바로 선서를 읽어야 할 이유이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釋氏香方 五分香·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연말연시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慧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華嚴經」 普賢行願品에 향의 열가지 효능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 정신적인 에너지를 충전시켜 준다.
2. 몸을 깨끗하게 해 준다
3. 몸의 따뜻하고 시원함을 조절해 준다.
4.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
5. 얼굴빛을 돋보이게 해 준다.
6. 정신을 상쾌하게 해 준다.
7. 눈과 귀를 신선하게 해 준다.
8. 건강에 도움을 준다.
9. 사랑스러움을 북돋워 준다.
10. 품위를 높여준다.

『華嚴經』 선재행선품 제4권 30에 선재동자는 五分香을 찾아나서는데 能藏이란 향이 있으니 중생이 그 향기를 맡으면, 번뇌가 침노하지 못하고 이레 동안 기쁜 마음이 가득하고 몸과 뜻이 쾌락하며 편안한 생각이 나며, 모든 병이 소멸되고 여러 가지 번뇌와 근심걱정이 없어져서 마음이 깨끗하여진다. 그리고 계향·정향·혜향·해탈향을 얻어 해탈해지며 향을 얻어 삼막 삼보리를 얻을 것이라고 하였다.
오분향은 거룩한 향으로서 항상 중생의 업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하고 복덕이 구족하는 인연을 지어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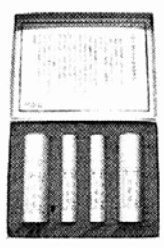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게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 당뇨·중풍·폐·간·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루어 부처님께 공양올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름모를 각가지 향을 접하였는데,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맵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확 달라질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인정해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곶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자: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內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수의 · 염습봉사도 훌륭한 포교 방편"

새 천년을 뛰는 불자 〈8-끝〉

장례의식 연구가 **남 민 이**



국내 첫 박사논문 제출
5년째 염습 자원봉사
"스님도 왕생염불해야"

최근 〈이 세상 가며 가며 가장 값진 옷 한 벌〉(솔바람 刊) 등 수의와 염습에 관한 책을 펴낸 남민이씨(44, 서울보건대학 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수의와 염습에 대해 박사학위 논문도 저술하는등 본격적인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스님들에게는 경전 공부가 중요하겠지만 시신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염습(斂襲) 교육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스님들도 천주교처럼 임종한 신도의 염습과 극락왕생 염불을 해야 합니다. 속초 보현정사 홍구스님은 신도들의 염습부터 49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봐줘 이지역 주민들은 모두 보현정사 신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포교인 것입니다."

남씨는 불교가 천주교에 신도를 빼앗기는 이유의 대부분은 스님이 임종시 지키지 못하고 임종 후에도 스님의 극락왕생 염불 듣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수의는 남자용, 여자용, 공용으로 나뉜다. 상례절차는 대개 초종(初終), 염습, 성복, 치장, 제의로 되어 있다. 초종은 운명하여 습하기 전까지의 절차, 염습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 입관시키는 과정, 성복은 상복을 입는 것, 치장은 장지에서 땅을 파서 묻고 봉분을 올리고 잔디를 입히는 과정이며 이를 끝낸후 반혼제, 소상, 대상 등을 치루는 것이 제의이다. 남씨는 이 가운데에서도 초종과 염습에 관해 연구하는데 입적하신 스님의 염습방법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

방송대에서 가정학을 전공하고 동국대에서 의류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남씨가 염습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다. 이후 관련문헌과 교육기관 등을 찾아봤으나 그런 곳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와중에 불교방송에서 원왕생교육을 접했고 불교연호회와 연이 닿았다. 이것이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다고 남씨는 말한다.

불교연화회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지 5년째, 염습봉사는 평생 할 일이 되었다. 중부대와 한경대에서 의류학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 남씨는 작년 보건대에서 장례지도과가 생긴 후 장례역사, 종교와 장례의례, 한국민속학 등 세 강좌를 맡았다. 생활한복에 대해 쓰던 박사논문을 염습봉사로 인해 수의와 염습에 대한 논문으로 바꾼 것이 이처럼 다른 길을 열어준 것이다.

미국 장례협회에도 등록되어 있는 남씨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장례지도사 분석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12월에 출간된 〈장의사 직무분석〉 편찬 작업에 동참하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장례지도사를 키우는 전문대학이 따로 있습니다. 장례지도사가 유망직종 1위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전문직종으로 인정받는 것이지요. 우리 나라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고 강조했다.

남민이씨는 "서울시민 중 화장인구가 50%가 넘었다고 할 정도로 화장이 늘고 있는 수백만원 대의 수의를 입히는 것은 낭비가 아닐까요? 저는 화장시 수의 개선법과 지역마다 다른 장례의식을 종합한 일률적인 방법 제시를 위해 연구할 생각입니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조계종 재무부장 **심경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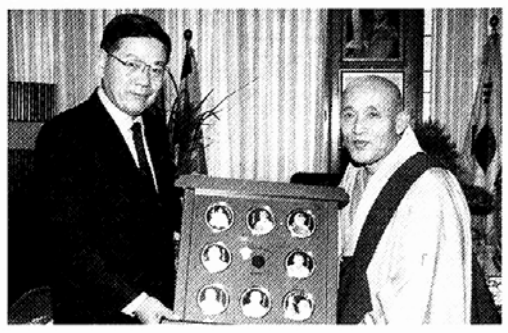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15일 재무부장에 심경스님을 임명했다. 54년 충북 보은 출생인 심임 재무부장 심경스님은 정무스님을 은사로 용주사에서 출가, 69년 전강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73년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니를 수지했다. 96년부터 용주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아왔다.

조계종 포교부장 **상운스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4일 포교부장에 상운(범어사 교무국장)스님, 포교국장에 주경(수덕사 교무국장)스님을 임명했다.

상운스님은 73년 능가스님을 은사로 범어사에서 출가했으며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했다.



본사-조폐공 정대스님에 고승메달 증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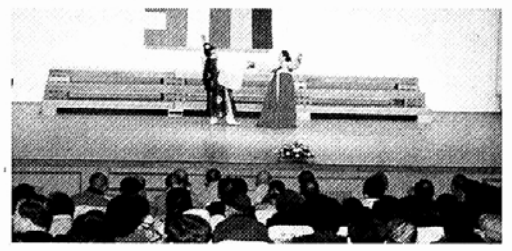
20세기 한국을 빛낸 고승 16분의 기념메달을 제작, 보급하고 있는 한국조폐공사 이석복 감사(사진 왼쪽)와 현대불교신문 김광삼 사장은 15일 조계종총무원을 방문,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2차분 8분의 기념메달 1세트를 증정했다. 1차로 나온 8분의 기념세트는 지난 해 5월 전달한 바 있다.

정대스님은 "불자들이 고승기념메달을 많이 소장해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항상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방송 성낙승사장 정년퇴임식

불교방송(직무대행 도후스님)은 14일 3층 대법당에서 '제4대 성낙승사장 정년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불교방송을 마지막 직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며 "여법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새천년 종교방송으로서 거듭나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불교예술제 · 사상 강연회

전북불교회관(주지 도영 · 금산사주지)은 12일 전북예술회관에서 전주시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전북불교예술제 및 근일스님(부석사 주지, 봉황선원 선원장) 초청 사상강연회를 개최했다. 예술제는 바라밀합창단과 가수 도신스님, 테너 천성남의 음성공양, 전통무용, 사물놀이, 댄싱 등으로 진행됐다.



◇불광사는 16일 광덕스님 열반1주기를 맞아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 봉정식을 가졌다.

광덕스님 1주기 추모법회

단행본 '광덕스님의 생애와…' 봉정

불광사(주지 보하지암)는 16일 덕명(범어사 전계대화상) 성오(범어사 주지) 지관(가산문화원장) 중원(제주관음사 주지)스님등 사부대중 2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덕스님 1주기 추모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서 법주 지정스님은 "현대불교 생활불교 가정불교를 정착시키기 마하반야바라밀 전법의 횃불을 높이드셨던 큰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횃불이 더욱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정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관스님은 법문을 통해 광덕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이 녹아있는 육념(염불, 염법, 염성, 염계, 염시, 염천)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 더욱 수행하는 불광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주지 보하지암스님은 광덕스님 영전에 단행본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을 봉정했다.

〈광덕스님의 생애와 불광운동〉은 모두 3편으로 구성됐으며, 1편에는 광덕스님의 반야바라밀 사상과 전법고행 45년사와 반야바라밀 사상체계와 실천원리가 정리되어 있다. 2편에는 25년간 결쳐온 불광운동의 확산과 전개과정이 상세하게 기술돼 도심포교 등에 유익한 포교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으며, 3편에는 불광회 불광법회 관계자료와 연보 및 연혁을 부록으로 정리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일주문

'어린이 한자' 출판기념회



혜총 (사)불국토사회연구소장은 26일 오후 5시 부산시청 동백홀에서 〈부모은중경〉을 토대로 펴낸 〈어린이 한자〉(부다가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실천승가회 29일 총회



청화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스님은 29일 오후3시 파주 보광사에서 실천승가회 2000년도 총회를 개최한다.

충북도 · 불협의회서 법문



혜광 속리산 법주사 주지는 11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 불협의회 신년법회에서 법문했다.

대불어 26일 정기총회

덕진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은 26일 부산 시청 동백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254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한다.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종걸 화엄사 주지는 20일 오전 10시 화엄사 각황전에서 조실 도천스님을 비롯한 모든 문도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엄문도 합동추모재 및 새해 통알(通謁)의식'을 봉행했다.

최웅호법사 49재 봉행

금명 전남 나주 태평사 주지는 3월 3일 오전 10시 30분 故 도광 최웅호 법사의 49재를 봉행한다.
(0613)332-8270

행원문화상 추천받아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월 31일 제23차 이사회를 열고 오는 9월 29일 시상식을 갖는 제9회 행원문화상 수상자의 추천을 6월 30일까지 받기로 했다. 제9회 행원문화상은 역경 · 문학 · 예술 · 대중예술상 등으로 나뉘어 각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불자들을 선정 시상한다.

'반야심경' 사상강좌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은 3월 2일~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제132회 불교사상강좌를 연다. 이번 강좌는 불교의 핵심사상인 〈반야심경〉을 공부한다. (02)3411-6167

하버드대 교환교수 마쳐 새시집 '남과 북' 출간



고은 시인(본지 논설고문)은 2월 초 미국 하바드대학교 교환교수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국을 떠나 있는 1년여동안 하바드 대학에서의 주 3회 강의와 유럽여행 그리고 무려 2백편에 가까운 시를 썼다.

고은 시인은 귀국과 함께 새 시집 〈남과 북〉(창작과비평사)을 출간하는 한편, 지난 10일 1980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 15년의 실형이 확정됐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中 강서성 불교유적 답사

최석환 불교춘추사 발행인은 한종만(원광대) 조용헌(원광대) 교수 등과 함께 21일부터 일주일간 중국 강서성으로 선차 및 불교 유적답사를 갖는다.

2000년도
연수 · 연구과정 신입생 모집

본 **불전국역연구원**은 국역사 양성과 불전(佛典)의 정리 및 연구 번역과 출간에 주력하여 불교중흥의 토대를 이룰 목적으로 '93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역경에 뜻을 두고 있거나 불교를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하고자하는 비구 · 비구니 및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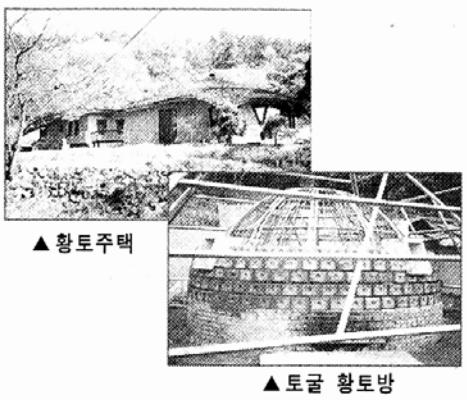
▶▶ 2000학년도 연구과정 및 연수과정 봄 학기 개설강좌 ◀◀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개설강좌 교재 및 담당교수	화엄학특강 (화엄경현담) 혜남스님	괄리어 기초 백도수 교수	외전연구 (논어) 권영대 교수	산스크리어문법 기초 김령 교수
		능엄경연구 혜정스님		육조단경 종범스님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2000년. 1. 25.(화) ~ 2. 25.(금)
나. 강의시작 : 2000년 3월 6일(월)
다. 강의시간 : 오후7시~9시
라. 접 수 처 : 불전국역연구원 교학부
마. 문 의 : TEL. 02)929 - 9991
FAX. 02)928-4302

중앙승가대학교
부설 불전국역연구원

대 륙
황토방 · 황토주택



▲황토주택 ▲토굴 황토방

◐ 양질의 순수 황토만을 사용하여 시공
◐ 전통 방식의 구들시공
◐ 풍부한 건축 경험으로 완벽한 시공

대륙건축 황토방 사업부
대표 이 성 우
경기도 용인시 남2동 424-3
TEL : 0335-336-6563
FAX: 0335-338-8923
H.P : 011-9680-5055

인간과 미래를 생각하는 열린교육의 장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00학년도 봄학기 불교교육과정 원생모집 안내

학점은행제 시행교육기관!
교통편리!
우수한 강사진!
학교편의시설 활용!

모집과정

과정명	세부과정명	과목(반명)	교강사명	교육기간	주/야
교양교육과정	불교란 무엇인가?	Ⅰ	권기종	1학기	주 간
		Ⅱ	권기종	1학기	주 간
	좌선법의 이해와 실제	Ⅰ	인환 스님	1학기	주 간
		Ⅱ	인환 스님	1학기	주 간
	신가곡(4학기 과정)	기초반	적운 스님	1학기	주 간
		중급반	적운 스님	1학기	주 간
		고급 · 사범반	적운 스님	1학기	주 간
	서 각(篆刻)		한상운	2학기	주 간
전문교육과정	불교전문교육(4학기과정)	반야사상	조용길	1학기	주 간
		불교문화의 이해	최종석	1학기	주 간
		기신론사상	장휘옥	1학기	주 간
		유식사상	김사업	1학기	주 간
		천태사상	지창규	1학기	주 간
	경전연구	소품반야경	권기종	2학기	주 간
	불교영어	대승기신론	김중명	2학기	야 간
	한문해석법		실재등	2학기	주 간
통신교육과정	동국대TV불교아카데미 (4학기 과정)	신화의 이해	최현각	1학기	BTN을 이용한 방송강의
		한국의 불교미술	장충식	1학기	
		근본불교사상	이중표	1학기	
		반야사상의 기원	정병조	1학기	
		강좌 삼국유사	김상현	1학기	
		여래장사상	이점래	1학기	
박물관교육과정	불교박물관대학		문명대	2학기	주간

지원자격 일반성인으로 자격제한없음(단, 불교영어는 고졸이상으로 한함)

원서교부 및 접수
2000년 2월 1일(월)~ 2월 25일(금)
사회교육원 교학과(90주년 학술관 1층)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와 사진(여권용) 2매
나) 주민등록등본(동국대TV불교아카데미과정 등 일부과정에 한함)

문 의 처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학과

학점은행제는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정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면 이를 학점은행제에 의거하여 학점으로 인정해 주고, 이러한 학점들이 누적되면 대학졸업학력 또는 전문대학졸업학력을 인정받게 되며,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은 교육부 학점은행제 시범운영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98학년도 가을 학기부터 16개 교양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TEL:02) 2260-3728~9 / FAX:02) 2260-3730 홈페이지 : http://home.dongguk.ac.kr/~soedu

불교산악인련 조계종 개혁안 제시

총무원장 5년 단임제 제안
재가자 참여 종회 양원제로
대사면·북 포교 강화도 촉구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양원종회 실시등 여섯가지 개혁방안을 건의했다.

종단 종파를 초월해 불교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97년 6월 설립돼 현재 44개 지회 3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총재 손현수)가 불교계와 조계종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다. 15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연합회는 종회를 상하 양원으로 나눠 상원은 승가로, 하원은 재가로 구성하자는 안과 승가 청정화 방안 등 여섯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에 개진한 사항은 첫째 원로회의에서 종정을 추대하고 종정이 총무원장을 임명하는 형식으로 총무원장 임기는 5년단임제를 한다. 둘째 앞으로 출가하는 스님들은 종정스님을 은사로 해 하나의 문중을 만든다. 셋째 승풍진작과 승가 정화를 위해 권력 탐욕 도박 축첩승을 철저히 타파해 청정한 승가를 구현한다. 넷째 종회구성을 상하 양원으로 한다. 다섯째 각 사찰별로 기획관리 등은 전문가를 선발해 맞기고 최종결제는 주지스님이 하는 것으로 사찰 운영의 전문화를 꾀한다. 여섯째 각 사암신도회장은 사암신도회에서, 교구본사 신도회는 각 사암신도회장이, 중앙신도회는 교구본사 신도회장이 선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각 신도회장은 당해 사찰 주지스님이 임명하고 중앙신도회장은 총무원장 스님이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등 여섯가지이다.

연합회의 이런 건의에 대해 정대스님은 "한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데도 온갖 이해세력들이 다 있어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종단도 하루 이틀에 다 고칠 수는 없지만 차츰 차츰 고쳐 나갈 것"이라며 "종정중심제니 원장중심제니 생각한대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상하원제는 종법을 고쳐야 하므로 노력은 하겠다"고 답했다.

또 사찰 재정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들이 절의 모든 재정문제를 다 책임지고 끌어 나갈 수 없고 스님이 근간이 돼야 절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대스님은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처럼 불교계에서도 신도들이 나서서 총선연대 같은 조직을 만들어 승가 자정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대사면과 대북포교에 대한 종단 차원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대스님은 "20년 전부터 대북선교부를 둬서 가지 못하더라도 명예지사 임명하듯 주지를 미리 임명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만큼 관심이 많다"며 "북한의 명승지로 지적된 곳에 통일이 된 후 기독교에서 먼저 교회를 지어버리면 불교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고 대북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총무원에 대북선교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통일학과 교수를 초빙해 강의를 듣는 등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에도 前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예방해 종단 발전안을 건의하는등 조계종단의 행보에 끊임없는 관심을 표명해 왔었다.

한편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1월31일 총재 자택에서 신년하례식을 가졌다. 3월3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면담결과 보고와 종단 개혁을 위한 활동방안 등을 논의하고 관련 성명서도 발표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매달 중앙회 이사단 및 임원진과 단위 산악회 간의 합동산행 및 사찰 성지순례를 통한 신심다지기에 나선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김 주 곤
〈경산대 국문과교수〉

참교육하는 참스승 되고 싶어

우리 나라는 경제성장을 통한 고도의 산업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물질만능 풍조에서 나타나는 각종 부조리, 인간소외현상, 다양한 범죄, 전통윤리의 파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때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간교육과 도덕적 가치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의 일터는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배움의 큰집이다. 홍익인간을 배출하는 대학교다. 그래서 '참마음(眞心·覺心·佛心)'을 알기 위하여 수도하면서 학생들에게 '참교육'하는 참 스승이 되고 연구와 사회봉사로 훌륭한 학자가 되는 것을 원(願)으로 세웠다. 헌 마음은 탐내고 성내며 어리석은 마음(貪·瞋·痴)으로 이 삼독심(三毒心)은 인간의 본능에서 생기는 중생심이다. 참선으로 청정한 진아(眞我)와 반야의 지혜를 갖추어 법시(法施)를 실천 수행하는 불자(佛子)가 되고 싶다.

나는 참 마음을 알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육체의 고향은 찾기가 쉽건만, 마음의 고향은 찾기가 어려웠다.



젊은 시절에 어떤 좌석에서 재미있는 불교 설화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다. 이 때 옆에 앉아 계시던 도인(道人)같은 한 분이, "너는 영문도 모르고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고?" 하셨다. 이에 나는 "왜 제가 그 영문을 몰라요, 알지요"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참 부끄러운 이야기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내가 어찌 마음이 출입하는 영문(靈門)을 알 수 있었겠는가.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의 근본 바탕은 마음의 고향이며 마음의 고향이란 변치 않는 마음이다. 그 마음의 핵은 심성이다. 심성의 본체는 원각(圓覺) 또는 본각(本覺)이라고 하는데 형태가 둥글기 때문에 일원상(一圓相)이라고 했다. 원각인 일원상을 보면 심월(心月)을 보았다고 하고 견성(見性)했다고 한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청정하고 원만하며 미묘한 것이다. 마음이 깨끗하면 몸이 깨끗하고, 몸이 깨끗하면 이웃이 깨끗하며, 이웃이 깨끗하면 결국 나라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오탁악세를 버리고 우주의 근본 진리를 깨달아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무명의 촛불이 되고 싶다.

나는 심성 계발을 위하여 선(禪)을 실천해 왔다. 생활선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조절하고, 몸을 조심하고, 호흡과 식사를 조절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심(調心)에서 마음은 크고, 넓고, 깊고, 깨끗하게 먹어야 한다. 무심(無心)이 안 되면 자비심으로 살고 싶다. 조심(調心) 외에 조신(調身), 조식(調食), 조식(調息), 조화(調和)의 다섯가지 생활선의 신조를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

나는 바른 참선법을 알기 위 기 위하여 지형·학명·경허선사의 〈참선곡〉을 연구하여 몽골국립대학·루벵대학·이스탄불대학 등에서 발표하여 불교의 참선을 전파하고자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선을 해 불성을 찾는 길에 동참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원이다.

지난 1월 석굴암 안에서 밤이 다하도록 좌선을 했는데 삼천대천 별들은 고요히 잠들고, 유상무상 만물들은 침묵을 지킬 때 수도정진 삼매되어 집착심이 사라지니 참선모습 밝히는 촛불은 마음까지 밝히고 미소짓는 부처님 양미간의 영문자리엔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 석굴암 앞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솟은 붉은 태양을 볼 수 없었다. 업장의 구름은 벗기지 않고 동쪽을 바라보며 해가 돋기만 기다렸으나 무명의 구름이 마음을 덮어 볼 수 없었으니 나는 참회하려 다시 수광전으로 갔다.

오늘도 일터에서 행·주·와·어·묵·동·정 등을 통하여 명심견성하고 만법귀일(萬法歸一)하며 초생요사(超生了死)하기 위하여 마음의 편지를 쓰고 있다.

'나모' 다양한 편집도구 활용

홈페이지 만들기 ③

나모 프로그램을 다 설치했으면 바탕화면에 나모 아이콘을 만들자. 탐색기를 눌러 프로그램 파일 폴더에서 나모폴더를 찾아 들어간다.

웹에디터를 열어보면 나모 실행 아이콘이 보인다. 아이콘 위에 화살표를 놓고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 창이 뜬다. 그중에 바로가기만들기 또는 단축아이콘 만들기를 누르면 나모 아이콘이 하나 더 생긴다.

새로 생긴 아이콘 위에 화살표를 놓고 마우스의 왼쪽을 누른채 바탕화면으로 이동하면 된다.

나모 웹에디터를 실행한다. 이번엔 나모 웹에디터의 화면 및 메뉴 구성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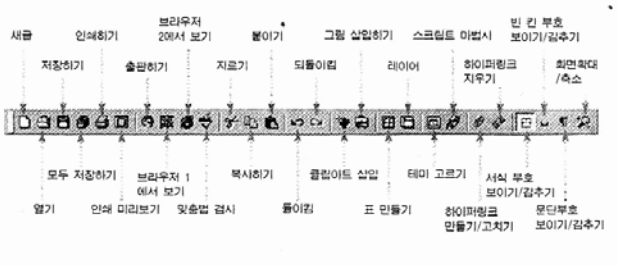
나모 웹에디터는 제목표시줄, 메뉴표시줄, 도구막대, 리본막대, 열린문서, 문서 작업창, 상황선 등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도구 막대는 새글, 열기, 저장하기, 인쇄, 부라우저로 보기, 그림 및 클립아트 삽입, 하이퍼링크 만들기, 서식, 프레임 나누기 등 많이 쓰는 편집기능을 아이콘 형식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리본 막대는 본문 내용의 모양을 바꾸거나 서식을 변경하고 문서를 정렬하는 등의 기능을 아이콘으로 모았다. 리본 막대는 현재 커서가 위치한 지점에 대한 문단 유형, 글자크기와 글꼴 등을 표시해 준다.

다음 회에는 본격적인 홈페이지 만들기에 들어가 새문서를 꾸며본다.

강지연 기자



우리 모임에선

강남구청 불심회 창립

강남구청 불심회가 1월29일 봉은사에서 8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법회를 가졌다.

98년 10월부터 발족을 준비해온 불자회는 99년 4월 제1차 발기인 모임을 가지고 3월, 5월, 7월에는 성지순례도 다녀왔다. 이번 창립법회에서 회장 김경석, 사무국장 박홍기, 사무차장 양승원씨 등 12명의 임원진을 선출하고 회칙을 승인했다.

군불교총신도회 결성

국군불교총신도회(M.B.A.K)가 25일 오후4시 국방부 내 국방회관에서 결성식을 갖고 출범한다. 이날 결성식에는 국군장병들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대법회도 같이 봉행한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30분에는 호국조사탱화 점안식이 호국원광사에서 봉행된다.

교정회보 '불심' 3호 나와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 충청지부가 발행하는 회보 〈불심(佛心)〉 제3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사진으로 보는 충청지부의 모습, 포교연구-우리가 불교를 알아야 하는 이유(김홍섭) 등이 실렸다.

불기협 올 사업계획 수립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정성운)는 14일 제27차 결산총회를 열고 신년 예산 및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불기협은 이날 회의에서 4천8십여만원의 예산을 승인하고 '불교기자강좌'를 비롯 기자연수, 불교계 종사자 체육대회, 불교언론인의 밤 및 제4회 기자상 시상식 개최 등의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도필선 기자

클릭! 새 홈 페이지

■불교문학포교원(http://popyo.i.am)-2월 개설. 해관스님이 주지로 있는 포교원 및 현대불교문인협회 소개, 현대불교문학상, 계간지 불교문예 안내.

■법안정사(http://www.buban.com)-1월13일 개설돼 1달간 시범은영을 마치고 2월14일 정식 오픈. 법안정사 소개, 법회안내, 법안정사 내 모임소개. 주요행사 안내, 불교서적 베스트셀러 소개 등 자료실 운영.

■아라한(http://cafe.daum.net/arahan)-2월14일 개설. 청운고등학교 불교동아리 '아라한'

■영산법화사(법화종, 법화경)(http://cafe.daum.net/buddhism)-2월15일 개설. 법화경을 공부하는 모임.

■대한불교삼보종(http://www.sambojong.co.kr/frameset_00.htm)-1월11일 개설. 삼보종은 1998년 석효성선사, 석법현선사가 뜻을 합쳐 1차 50개 사찰을 결집하여 창종한 종파. 현재 110개 사찰이 등록되어 있다.

■대한불교미륵종 목포종무원(http://miruck.jonggyo.co.kr)-1월 개설. 목포종무원의 위치, 연락처와 관련 자료들을 올리고 있다.

알림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학인 모집

본 학교는 불교가 이 땅에 전래된 이래 오늘날까지 연면히 이어온 어산(범패) 작법과 불전의식 전반을 연구, 계승하고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의거하여 설립,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불교의식 전문교육기관입니다. 이에 어산, 작법과 불교의식 전반을 연구, 전수할 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어산과 : 00명 · 습의과 : 00명

교육내용
· 어산과 : 1학년-기본발성연습,복청계,도량게,거불,헌좌계,바라 및 승무기초
2학년-각종,상단,중단,하단,시식,바라,승무,영산제 시행, 49제
· 습의과 : 일용의식 - 도량석, 종송, 축원, 예경
상용의식 - 신중작법, 각단불공, 각종시식
제반의식 - 대령, 관욕, 시다림, 점안, 방생 등
· 특강 : 불교의식사, 의식과 불교사상(경전), 불교와 문화예술, 비교종교의식, 장엄 한글의식, 명절의례, 평생의례 등

교육기간
· 어산과(범패,작법) : 2년(4학기)
· 습의과(불전의식) : 6개월
본학교의 소정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인에게는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인정하는 졸업장을 수여함.

교육시간표

'2000학년도 시간표

요일/과정	어산(魚山) 과정(범패, 작법)	요일/과정	습의(梵唄) 과정(불전의식)
월	18:00-19:30(학교강의실)	수	시간조정중
목	18:00-19:30(학교강의실)	금	시간조정중

응시자격
○종헌, 종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비구(니), 사미(니)로서
○각 과정(어산 · 습의) 재가불자도 수강이 가능함.

전형방법
서류전형과 면접

제출서류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승적증명서 1통
3) 반명함판 사진 2매
4) 주민등록등본 1통 (재가자일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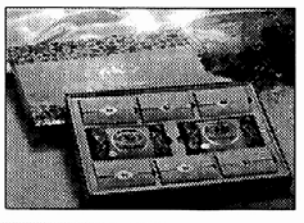
접수일자 2000.2.21(월) - 3.3(금)
면접일자 2000.3.4 (토) 오후3시
개강일자 어산과 : 2000.3.6 (월)
습의과 : 2000.3.8 (수)

원서교부 및 접수처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6번지 중앙승가대학교 기획실 (3층)
☎ 02) 921-3425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1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 ·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승단 개혁 바라는 까닭

출가 승단은 재가 신도들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현실 사회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은 불교가 현실에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종교로 있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오히려 출가 승단이 전근대적인 모순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으며, 모범이 되기보다는 개혁이 필요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우리 불교의 실정이 아닌가 싶다.

그러하기에 승단 개혁이야말로 불교의 중흥을 위해 가장 시급하고도 핵심적인 일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으나, 한편 승단 개혁은 가능한 한 그 자체 안에서의 움직임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조계종 출가 승단은 너무나도 절박하게 다가와 있는 자체적인 정화와 개혁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숱한 내부적인 갈등으로 말미암은 위상의 실추와 공동체 내부의 기강 붕괴, 지지부진한 개혁에 기다리기 지친 재가 불자들의 승단과 관련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심상찮은 움직임. 이런 것들은 모두 조계종 출가 승단이 이제는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는 벼랑에 서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에 실시된 조계종 본말사 주지연수 과정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의 결과는 승단 자체 내에서의 개혁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많은 스님들이 승단을 청정 수행 공동체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청정성과 자질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이는 재가단체나 언론 등에서 제기한 개혁에의 요구와 같은 인식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설문에 응한 대상들이야말로 바로 승단을, 그리고 불교를 바로 세워 나아갈 중심에 있는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의식이 현실화되어 종단 개혁의 힘찬 발걸음으로 드러나기를 기대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당위적인 인식을 현실화시키는데는 사제계급으로서의 권위에 편안히 안주하고자 하는 출가 승단의 타성적인 보수성이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란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자체 정화가 있을 때에만 지켜진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지 않으면 몸 전체를 잃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고 설문 조사에서 드러난 개혁에의 지향성을 현실화시키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일으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

경주 남산의 유산 가치

경주 남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유네스코 조사관이 등록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경주 남산 등 '경주 역사유적 지구'를 둘러보고 긍정적 평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호주 케인즈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고 한다.

이번에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에서 답사한 경주 역사유적 지구는 남산과 황룡사, 월성, 대릉원 산성 등 5개 지구다. 이 가운데 특히 남산지구는 신라 민중들의 숨결과 손길이 그 어느 곳보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다.

경주 남산은 단순히 불교라는 한 종교의 문화재가 남아 있는 구역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조상들의 슬기가 스며있는 우리 민족의 자산이며, 이제는 더 나아가 곧 세계 인류의 소중한 재산이 될 터이다. 조사관이 문화재 정비가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역사유적의 보존관리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적지 않다. 어설프게 손을 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변질시키는가 하면 아예 방치해버리는 경우가 아직도 허다하다.

차제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차치하고라도 경주 남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경주 남산은 노천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역사 유적인 만큼 원형을 보존할 최선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되 특히 세계문화유산 지정 이후 빚어질지 모르는 광신적 이교도들에 의한 원형의 훼손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남산을 보존하고 조사 연구하기 위한 상설 연구기관을 두되 반드시 스님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관청이나 관변단체에서 불교전문가의 참여없이 진행된 연구나 발표한 불교관련 자료를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때가 적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주변환경 정비와 안내판 설치, 홍보 등에도 보다 세심하고 주도면밀한 대책을 펴 문화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주시와 문화재청은 이상의 지적을 유념해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길 거듭 당부한다.

열린마당

폐사지 관리

조계종 문화부에서 전국 2천여 곳의 폐사지를 문헌 조사한 〈불교사원지〉를 발간하는 등 폐사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화재 전문가들은 폐사지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폐사지 사역 등 문화재보호구역의 조정을 간소화 했고, 문화재청이 최근 실시한 '국민의 문화재 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0% 이상이 '보호구역 확대'를 원하고 있어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에서는 폐사지 관리를 도맡을 주체를 놓고 '종단' '본사급 사찰' 등의 의견을 나오고 있다. 폐사지 관리의 중요성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실태조사 선결과제"

김상영〈중앙승가대 사학과 교수〉



전국에 산재하는 폐사지는 국유, 사유, 그리고 일부 불교종단 소유 폐사지 등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까지 합치면 폐사지의 정비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성격을 띤다. 당장 가치가 높은 사지의 토지 매입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폐사지의 정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의 폐사지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조계종단에서 일부 조사자료가 발간되긴 했지만 이것은 현장이 무시된 문헌적 조사에 불과한 성과물이다. 이 같은 조사가 완결된 이후에야 그 실효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불교계가 나서서 이들 폐사지에 대한 종합적 조사를 정부에 촉구할 시점이다. 폐사지에 우리 문화의 중요한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를 더 이상 방치시키지 말라는 내용을 촉구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미래사회와 문화의 깊은 상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우리 정부도 문화부문 예산을 증액시키는 등의 적극적 문화 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같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불교계의 움직임은 어떠한가? 아쉽게도 그다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 전통문화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불교문화의 침체는 곧 한국문화의 침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불교문화를 가꾸어 나가는 일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보호구역으로 지정"

정재훈〈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위원〉



전국의 모든 폐사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보존해야 한다. 폐사지는 고대 불교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는 이 역사의 고리를 보존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 건설 장비로 훼손·멸실된 폐사지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폐사지 보존을 위해서는 폐사지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야 한다.

최근 조계종에서 조사한 북한산성 내 폐사지 20여 곳 가운데 수 곳은 '개인 사유지'로 밝혀졌다. 이 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예천 개심사지, 서산 보원사지, 경주 남산리사지 등과 같이 정작 소유권 때문에 교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할 폐사지들이 수없이 나올 것이다.

불교계는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우선 본사급 사찰의 노력이 절실하다. 폐사지에 대한 보호구역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친밀한 본사급 사찰에서 나서야 한다.

우선 교구내 폐사지를 조사하고, 그 중요도를 선별해 연차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그리고 폐사지에 방치되어 있는 건물 터나 탑부재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사지의 성격과 역사를 규명하고 '사지 지정'과 같은 후속 절차도 밟아야 한다. 대부분의 폐사지들은 야산에 묻혀있고 혹은 민가의 농토로 경작되고 있어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종단차원 토지매입"

한성욱〈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연구관〉



화순의 공림사지나 장흥의 금장사지는 조선 태종 대에 자복사(資福寺)로 지정될 만큼 격을 갖춘 사찰이다. 그런데 이들 사지에 대해 지표조사나 발굴 등과 같은 학술적인 접근 이외에는 어떠한 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폐사지가 들어선 땅을 민가에서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폐사지의 토지소유권이 불교계에 있다면 폐사지는 물론 이곳에서 발견·발굴된 문화재를 보호하고 또 정밀조사를 토대로 복원해 새로운 신앙처로 삼을 수도 있다.

본사급 사찰에 세워진 성보박물관에서는 이들 폐사지에 관심을 쏟고 있지만, 관심 이외엔 별다른 자구책을 마련할 수 없다. 재정이 부족해 민가에 귀속된 폐사지를 매입하는 것은 고사하고 조사·시굴할 인력을 구할 수도 없다. 또 발굴된 유물을 보관할 적당한 장소도 없다. 종단은 민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폐사지를 매입하고 조사·발굴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폐사지 토지 매입을 놓고 '종단' 혹은 '본사급 사찰'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종헌종법에 따라 사찰의 모든 재산은 종단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조계종 산하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이 이 일에 적임자이다. 이 조사단은 전국 지역에서 중요 폐사지를 선별해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고 매입해야 하다. 중요 폐사지 선정은 자칫 지역 이기심을 자극할 수도 있지만, 발굴조사단은 종단의 기구인 만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물론 폐사지 인근 사찰들은 폐사지의 훼손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목탁소리

相 내는 봉사

한 명 우 〈취재 1부 기자〉

지난 14일 아침 일찍 한 스님으로부터 기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설날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떡국을 보시했는데 그 내용이 신문에 실리지 않았다는 반 항의성 전화였다. 더욱이 받아 적으로라고 요구까지 하고는 자상히도(?) 인물 동정란에 실리는 형식에 맞게 그 내용을 그대로 불러 주는 것이었다. 이 스님은 법명만 대면 교계의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큰 복지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이다.

이튿날에는 한 보살로부터 격앙된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내용인즉,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연말에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하는데 거기에 왜 자신들과 같은 자원봉사자들은 소외돼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하는 시상이니 당연히 종단 차원의 일인데 수상 대상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까지 했다. 기자가 그 순이 조계종 복지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내부 행사라고 설명해 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신문사에는 이같은 항의성 요구가 빈번하다. 가끔은 일리 있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은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거나, 어떤 사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서 비롯되는 오해가 많다.

기자가 받은 두 통의 전화도 그런 것이었다. 사소한 문제고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더욱이 '하심(下心)'을 중요시 여기는 부처님 법을 따르겠다는 불자들에겐 어울리지 않는다.

봉사는 일종의 보시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내지 않는 보시야말로 언설(言說)로 다할 수 없는 진정한 자비행이 될 수 있다. 스스로 발심해서 스스로 행하는 자기수행의 방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시를 일컬어 '일체중생을 위하는 가장 수승한 선심(善心)'이라고 한다.

〈증일아함경〉에 "보시하되 그 과보를 바라지 말고, 보시하여 열반을 얻을 것이지 천상에 나기를 바라지 말라"는 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독자 詩

무소의 뿔

김혜명

빈 터에 부는 바람
미련이 날고
가슴 밑에 고인 도피의 끝
자락
다시 눈을 들어 방황한다

오늘은 미래가 되고
묵은 빗장이 열리고
나는 네가 되었다

안주를 놓고
번민을 놓고
버림도 취함도
놓음도 놓는다

나만 있다. 오롯이…

끔찍은 세상
무소의 뿔처럼
그저 나여야만 하지
그래야 세상이 되고 평정
이 되지

지혜의 연꽃
가슴에 피우고
흙이 되고 바람이 된다
자유하기 위해
나는 무소의 뿔이 된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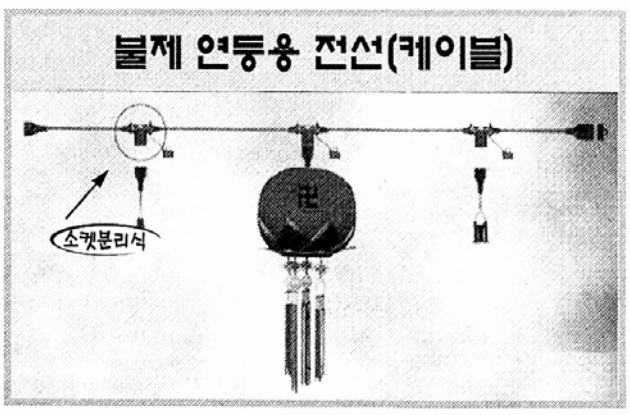


불자 기업에서 제작하는 불제전선(케이블)
봉축행사 사찰연등 법당기도등용 불제 T형 전선(케이블)

사용용도
사찰연등용 · 옥외행사용

규 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주문
· 모델 : DW-101, DW-100F (고리용)

안전성 작업성 내구성 확보
· KS전선사용
· 감전,화재사고를 예방
· 설치 · 수거하실 때 배선과 소켓을 분리하여 작업하시면 편리
· 주로 파손되는 곳이 소켓이므로 소켓만 교환하여 사용사히면 환수 재사용이 가능



전 등 배 선
· 일일이 피복을 벗겨 테이프로 감고 설치 사용하시는데 얼마나 번거로우셨습니까?
· 이런 사소한 배선에서도 단선, 누전, 합선, 단락, 과열 등에 의해 감전사고나 화재사고의 위험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 전기는 소리도, 냉새도, 보이지도 않고, 예고도 없습니다.
· 단지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점검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입 본사 영업부
문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080-5826-236
A/S : (032)583-4023
FAX : (032)571-9470

㈜ 대원기업
사찰용, 연등용 전구 3W~5W도 납품합니다.
(고추전구, 인지전구)
■ 인터넷: http//:www.bulje.co.kr

사찰 전기화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시다. 4 · 8 봉축 이전에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조계종 성보발굴조사단 문화재청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

불교유적발굴 '청신호'

폐사지들의 지표조사와 발굴이 보다 전문화·체계화되고, 전국 사찰에 소장되어 있는 성보문화재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될 전망이다.

불교유적만을 조사·발굴하기 위해 97년 설립된 조계종의 불교문화재 발굴조사단(단장 일철, 이하 발굴조사단)이 15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시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가 필요한 폐사지나 불교 유적 발굴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의 지표조사기관 선정은 지난해 7월 건설공사시 지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선정된 기관은 건설공사 시공자의 요청에 따라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선정된 지표조사기관은 모두 110여 개소. 여기에는 중앙승가대의 불교사학연구소, 동국대의 서울·경주박물관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문적인 조사와 발굴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게 문화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교유적의 조사와 발굴에는 고고학적 소양뿐만 아니라 가람배치와 불교미술 등을 포괄하는 학문적 소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굴조사단은 고건축, 역사고고학, 불교미술사 석·박사 전공자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사지를 발굴·복원하는 ▲유적조사, 각종 문화재를 조사하는 ▲불교미술, 금속·목재·서화 등을 보존 처리하는 ▲보존과학, 문화재자료를 전산화하고 도록을 발간하는 ▲자료축적 등의 분야를 담당한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일철스님은 "발굴조사단은 전국 2천여개의 폐사지를 연차 사업으로 조사·발굴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성보문화재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걸친 폐사지는 2천141개. 이 가운데 97.8%는 미발굴 상태로 방치돼 있으며 각종 도시 개발과 토목 공사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굴조사단은 ▲정밀 지표 조사 ▲시굴 및 발굴 ▲사지 규모 및 역사 규명 ▲중요 사지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강화도 소재 39개 폐사지에 대한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한다.

또 '성보문화재 데이터베이스' 사업은 ▲성보 실태 조사 ▲성보 분류 및 전산 입력 ▲1910년 이전의 성보 정밀 조사 및 지정 신청 ▲도록 및 보고서 발간 등이 진행된다. 이 사업은 조계종 산하 1천840개 사찰의 1만 2천212점의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10여 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월정사 본·말사는 '성보 정밀 조사' 까지 완료돼 1910년 이전 성보 가운데 139점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수덕사·직지사의 본·말사는 성보박물관에, 동화사·고운사의 본·말사는 성보연구원에, 불국사 본·말사는 사찰문화연구원에 각각 '성보 실태 조사'를 의뢰해 놓고 있다.

성보문화재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전국의 모든 성보가 전산화되면 매매를 목적으로 한 도난은 줄고, 도난당한 불교문화재의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02)739-1830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보물 제200호 남산 칠불암 마애석불. 보살상이 본존불을 향하고 있는 것이나 가슴이 길고 다리가 짧은 점 등을 보아 7~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록 전망밝다

유네스코 조사단 '긍정평가'

통일신라시대의 불국토의 이상이 구현된 경주 남산(사적 311호)을 중심으로 한 '경주역사유적지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하 협의회) 조사관 니시무라 유키오(동경대교수·도시계획과)는 13일 경주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산 등 경주지역 5개 유적지구에 대한 현장 답사 결과 문화재 정비가 잘돼 있었으며 유적 보호 및 정비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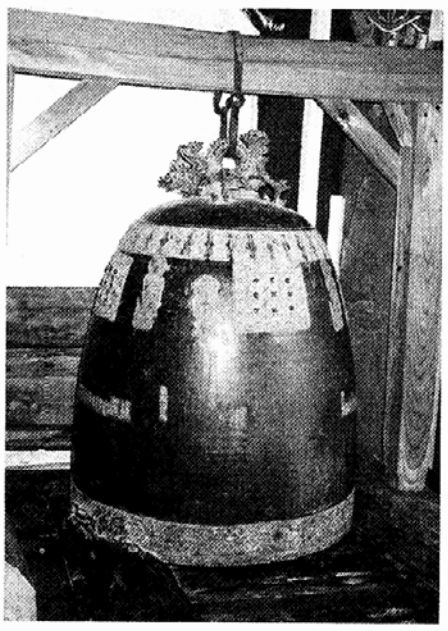
유키오 조사관은 10일부터 4일간 남산, 황룡사지, 첨성대 등 경주의 세계문화유산신청 지역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 결과는 3월말까지 협의회 집행이사회에 '평가보고서' 형식으로 제출되는데, 이 보고서는 사실상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의장단회의 기초자료로 사용된다. 최종 등재 여부는 12월 오스트레일리아 케언즈에서 열리는 제24차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강경환 문화재기획실장은 "이제까지 우리가 등록을 신청했던 5건의 문화유산이 모두 적격판정을 받았다"며 "현지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유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지난해 6월 남산·월성·대릉원·황룡사·산성지구 등 5개 유적지구에 대한 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특히 남산지구에는 칠불암 마애석불 등 보물 13점과 사적 11점 등 국가 지정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어, 그동안 국내·외 학계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록 기준에 손색이 없다고 평가해 왔다.

우리 나라는 1995년에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97년에는 창덕궁과 수원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오종욱 기자



◇경기도 안성군 청룡사 동종.

사인비구 동종 7구 보물지정

문화재청은 15일 '사인비구 조성 동종' 7구를 보물로 지정했다. 사인 스님의 강화동종은 이미 63년에 보물 11호로 지정된 바 있어 스님이 남긴 8구의 종이 모두 보물로 지정되는 진기록을 남기게 됐다. 한 사람의 작품이 전부 보물로 지정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8구의 보물급 종을 빚어낸 사인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동국대 문명대 교수는 "사인스님은 조선 숙종 때의 인물로 경상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전라지역의 김애립과 쌍벽을 이룬 승장이었다"고 밝혔다.

스님의 생몰연대는 확인할 자료가 없다. 남아있는 것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총 8구와 거기 새겨진 명문이 전부다. 또한 8구의 종은 조성시기에 있어 20대후반에서 70대에 걸쳐 50년이라는 시간편차를 갖고 있어 그의 작품세계변화 과정을 확연히 보여준다.

이에 대해 오랫동안 사인을 연구해온 안귀숙 박사는 스님의 작품세계를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모방과 창의력이 함께 구사되는 성장기로 보경사 종이 여기에 해당되며 2단계는 20대에서 50대까지로 강한 사실주의 중심의 고유한 조형세계를 개척해가던 때로 김룡사 종, 수타사 종 등 5구가 여기에 속하며 3단계는 중국의 양식을 자신의 조형세계와 결합시킨 시기로 청계사 종과 보물 11호 강화 동종이 그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동종들은 ▲경북 포항시 보경사 서운암 동종(1667년 제작) ▲경북 문경시 김룡사 동종(1670년 제작·직지사성보박물관 소장) ▲강원도 홍천군 수타사 동종(1670년 제작) ▲경기도 안성군 청룡사 동종(1674년 제작) ▲서울 화계사 동종(1683년 제작) ▲경남 양산시 통도사 동종(1686년 제작) ▲경기도 의왕시 청계사 동종(1701년 제작)등 총 7구이다.

사인스님의 마지막 작품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천 강화군 강화 동종(1711년 제작)은 보물지정번호 제11호에서 제11-(8)호로 바뀌었다.

오종욱 기자

성보박물관 실무자 교육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일철)는 24~26일 직지사에서 2000년도 제1차 성보박물관 실무자교육을 실시한다. 성보박물관장 및 학예연구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교육에는 김홍식(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씨가 '유물관리' '유물포장' '보존처리' 등을 강의한다. 또 '성보박물관장 간담회'가 마련돼 △정기모임 △박물관 규정등이 논의되고,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2000년 사업계획 △협조 및 교류 등의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성보박물관 종사자들의 유물관리·전시·조사 등 학예업무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0547)436-6009

구미 도리사서 울리는 에밀레종소리

배명진교수 '전자신종' 기증

구미 전자신종을 제작했던 숭실대학교 배명진 교수(정보통신과)가 에밀레 종소리를 재현한 전자종을 제작, 신라불교 최초 가람인 도리사(주지 법등)에 기증했다.

구미전자신종 제작과 관련 구미와 인연을 맺었던 배 교수는 신라 불교 발상지가 구미(도개면 모례원)인데다 도리사가 신라 최초의 유서 깊은 사찰이란 사실을 알고 불교 문화의 산실인 도리사에 에밀레 종소리를 재현한 전자신종(높이 40cm, 직경 28cm)을 기증키로 한 것.

배교수는 "이번에 제작한 전자신종이 1천300여년간의 침묵을 깨고 21세기 불교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리로 울려 퍼질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법등스님은 "전자신종을 극락전에 설치, 법회시 타종할 계획"이라며 "전자신종의 설치로 유서깊은 도리사 홍보는 물론 도리사의 새로운 명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자신종은 작은 모형종에서 나오는 레이저 빔이 전자신종의 몸체를 비추면, 그 순간 신종 내부에 있는 스피커에서 장중한 소리가 울린다. 이 소리는 1.㎞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다.

오종욱 기자

볼만한 TV프로

'차향을 찾아서'

센츄리TV 24일 방영

차시배지 쌍계사등 조명

우리 차(茶)의 그윽하고 단아한 향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케이블TV 다큐교양 채널인 센츄리TV(ch29)는 24일 밤9시부터 60분간 한국차의 시배지와 제조법 등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한국의 멋과 향기-차향을 찾아서'를 방영한다.

이 프로에서는 가마솥에 열을 가해 차잎을 넣고 덖어 내는 덖음차의 제조법 등을 시연을 통해 현장감 있게 소개한다. 또 우리나라 차의 본향인 지리산 화개면 쌍계사 근처의 차나무 시배지와 1939년 이후 조성된 전남 보성 녹차 재배지 등도 영상으로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특히 초의선사를 비롯해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희 등 많은 스님과 학자, 예술가 등과 인연이 깊은 해남 일지암을 찾아, 차 문화와 역사를 살펴보는 장면은 이 프로의 백미을 수 없는 볼거리다.

조현철PD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시내 찻집에 가면 서양차를 파는 곳이 많아 한국차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많았다"며 "차를 사랑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우리차의 맛과 멋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김주일 기자



◇ '한국의 멋과 향기…'는 한국차의 역사와 제조법등을 다큐멘터리로 조명했다.

현대의학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들을 왜 효과도 없는 치료 술을 써서 죽음으로 내모는가?

제3의학 의단요법疑團療法은 간경화, 전이된 암 환자 분들을 공개 임상 치료에 초대합니다. 이 공개 임상 치료에 방송사, 언론사, 사회단체, 종합병원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공공단체가 참여하여 치료 사실을 공명정대하게 확인하여 알림으로써 현대의학이 포기한 불치병으로 죽어 가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과 새 삶을 줍시다.

1. 현대의학의 허구성

(1) 현대의학을 한다는 의사, 약사들은 질병의 증상 자체만을 병으로 보고 그 증상을 제거하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대증요법) 그리하여 질병부위를 잘라내고(수술), 항생제, 항암제 등의 약물을 쓴아 붓고는 최고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수술은 신체의 완전성을 근원적으로 파괴하는 행위이므로 완치될 수 없는 부작용이 따르고, 독한 약물은 인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연적 면역력(저항력)을 철저히 파괴하여 오히려 환자의 몸을 전체적으로 빨리 죽게 만듭니다.
(3) 전이된 암, 간경화 등의 중병을 수술에 의하여 완치된 환자가 몇 명(또는 몇%)이나 되며, 항암제, 항생제를 가지고 치유된 환자는 또 몇 명 또는 몇%)나 됩니까?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생명을 연장시켰다거나 반대로 항암제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환자가 빨리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4) 올바른 치료방법의 판단기준(척도)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또는 거의 대부분의)환자들이 누구나 완치되는 것만이 진정한 척도 일뿐입니다. 그렇치못하고 환자가 사망하는 치료방법은, 그것이 제 아무리 최고 최선의 현대의학에 의한 치료방법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치료자의 자기만족 내지 변명일 뿐 진정한 의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5) 현대의학을 하는 의사 약사들이 암, 간경화 등의 난치병에 대하여 수술과 독한 약물요법만으로 접근하여 의학적으로 최선의 치료를 하였다고하면서 환자를 죽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무지함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요, 세상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6) 그들은 암, 간경화 등을 난치병 내지 불치병이라고 하나, 그들의 치료방법이 잘못되어 그런것일뿐, 달리 접근하면 그러한 질병들은 만성질환에 불과하지 결코 난치병, 불치병이 아닙니다.

2. 완치를 책임지는 확실한 치료법 -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

(1) 신의학 의단요법 치료원리 新醫學 疑團療法 治療原理

만성질환이 발병하는 신체적 근본원인은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이므로 그 불균형을 개선하여 주면 질병 자체가 소멸됩니다. 호르몬분비의 불균형이 생기는 원인은 생물적 목적의식 目的意識과 주관적 의식 主觀的意識 사이의 갈등 때문입니다. 유사한 이론으로 양의사분들이 성인병의 발병원인의 하나로 스트레스를 드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2)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의 치료 대상 및 책임 보장 보상금

현대 의학상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자력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1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만성질환의 환자로서, 6개월 이상 1년간 정기적으로 월 1회 의단요법疑團療法을 치료받은 환자 10명중 9명 이상 완치를 책임 보장합니다. 만약 치료 후 병원 검사 결과 현저한 호전이나 완치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오면 치료비를 돌려 드림은 물론, 덧붙여 치료 지연 보상금 일천만원(1000만원)을 부상합니다.

(3) 신의학 의단요법 新醫學 疑團療法 의 치료 일정과 치료 효과

의단요법疑團療法의 치료 일정은 월 1회 6박7일 또는 3박 4일중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치료 효과는 누구나 7일 이내에 나타나며 탁월하고 경이로울 뿐 부작용은 조금도(1%) 없으며, 치료의 승패는 3회(2개월)치료로 환자의 치료 결과를 과정 해볼 수 있습니다. 효과의 예로써 간 경화 환자를 예시하면 합병증이 온 비대상성 환자는 정기적으로 투약을 해야 할 것이나 본 의단요법疑團療法은 첫 치료일 부터 투약을 끊게 하나 환자의 현상은 고통이 사라지고 합병증인 식욕부진, 복수, 황달 등등의 증상은 3회(2개월)치료로서 증후를 발견할 수 없으며 전문의사의 검진 결과 증상의 호전으로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이제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라는 소견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로서 외형적 현상으로는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완치로 오인을 함이 치료의 가장 큰 장애며 완치하는데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4) 완치된 사람을 소개

종합병원에서 치료 불가 시한부환자라는 확진을 받고 죽음의 문턱에서 본인을 만나 의단요법 치료를 받고 완치된 사람중 10여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00 (女) (290101-2000829) (치매, 파킨스병)
2. 강00 (女) (330426-2268011) (전이된 자궁암말기 환자)
3. 조00 (女) (540308-2822514) (유방암 1cm의 혹)
4. 홍00 (女) (540707-2622129) (말기 간경화 간이식수술 접수))
5. 김00 (男) (800228-1109811) (만성신장병)
6. 황00 (女) (700921-2548011) (신경다발성경화증)
7. 신00 (女) (800308-2823015) (정신장애)
8. 강00 (男) (420310-1820921) (말기간경화, 당뇨 환자)
9. 정00 (男) (460902-1552523) (간경화, 간암 환자)
10. 서00 (男) (610830-1629725) (암 환자)
11. 장00 (女) (601005-2829118) (전이된 유방암 4cm 간에 1~2cm크기의 다수의 혹)

3.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차례입니다.

만성질환 치료에 최대의 적은 치료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지식의 노예가 된 전문 의사 약사라는 사실을 지면을 통하여 환자 분들에게 밝히고자 함이 있으며 치료란 모름지기 완치를 전제로한 치료방법만이 진정한 의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경화, 암 등 난치성 만성질환들은 의단요법疑團療法으로 볼 때는 난치병이 아닙니다. 환자 여러분들은 효과도 없는 기존의학에 자신의 생명의 시간을 착취당함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길 권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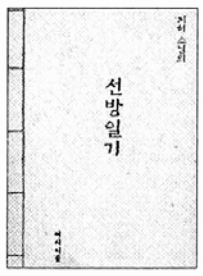
http:// www.no3medical.co.kr/ ☎ 032-3478-119~8 ☎ 011-559-8118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3동 400-3 동우 B/D 405호

新醫學 疑團療法 의단원 대표 理 農

"아하! 선방생활 이렇구나"

지허스님의 선방일기

선방의 생태와 풍속
안거 3개월 논픽션 서술





'선방일기.'

선방은 선승의 수행 장소로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나 마찬가지이다. 선방의 속내를 비공개로 함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선방의 일과가 솔직 담백하게 실려 있는 신간 〈선방일기〉(여시아문)는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것도 현재가 아니라 30여 년전 생활을 선객의 시각으로 적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 책은 납자 지허스님이 70년대 초 오대산 상원사 선방에 방부드리러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허스님이 상원사 선방에서 방부를 드리고 처음으로 한 일은 겨울채비이다. 동안거를 해야하는 선방에서 겨울을 지내자면 김장과 메주, 그리고 땔감 울력은 필수. 당시만해도 그것은 불문율로 되어 있는 선객들의 관습이었다. 겨울채비에 이어 삭발과 목욕을 하는 것으로 결제준비를 마치고 안거에 들어간다.

이 책은 결제 불공을 마치고 용맹정진하는 선객들의 모습에서부터 소임, 선방의 생태와 풍속, 포살, 해제 등은 물론 3개월 동안의 선방생활까지 자세히 적고 있다. 특히 눈길이 가는 대목은 선객들의 검소한 생활과 철저한 수행이다. 두량(頭涼)·족난(足煖)·복팔분(腹八分)은 간소한 생활의 상징이다.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게 배는 만복에서 이분이 모자라는 팔분이라는 뜻이다.

대중들이 모여 생활하다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기 마련. 선방에서도 이런 종류의 일이 종종 벌어지는 모양이다. 지허스님이 털어 놓은 선방의 뒷이야기도 이 책의 또 다른 맛이다.

인간이란 육체가 우위냐, 정신이 우위냐는 선객들의 뒷방 논쟁에서부터 조실스님과 주지스님의 시자(율깨기, 늦깨기)들의 서열다툼, 원주스님 몰래 숯불에 감자를 구워먹는 이야기, 벌식으로 만두를 만드는 이야기 등은 빙그레 미소지으며 읽다가 자신도 모르게 코끝이 찡 하는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이런 생활속에서도 화두를 놓지 않는 선객들의 투철한 자세는 후학들이 되새겨 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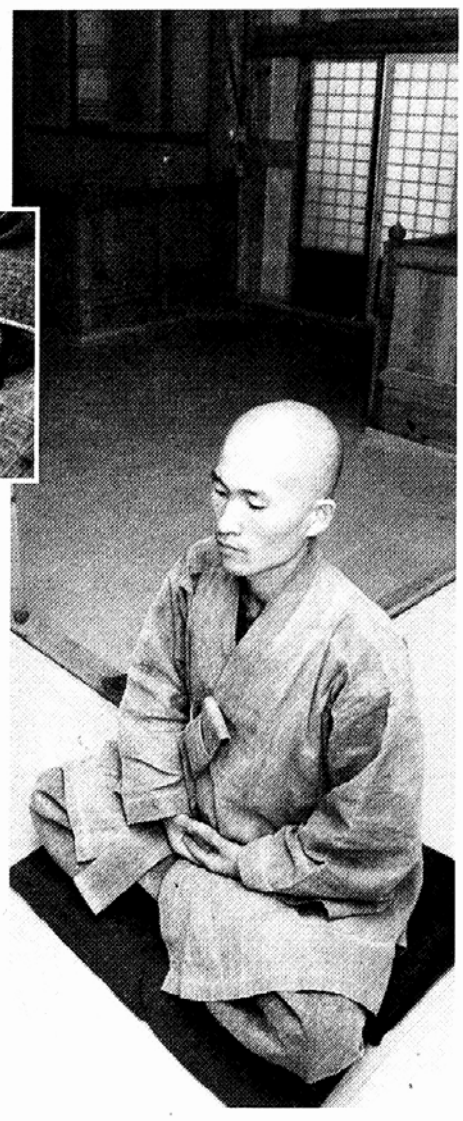
지허스님은 "화두는 거북이 걸음인데 세월은 토끼뜀질이다"며 "어찌 잠시라도 화두를 놓을 수가 있을까"며 반문하기를 그치지 않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한다. 고독할 때 화두를 더욱 들어야 한다고 것도 스님의 수행 철학. 잠재되어 있는 세속적인 욕망이, 고독을 느낄 때일수록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님은, 선객은 고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지허스님이 1973년 봄 〈신동아〉의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을 책의 형태로 묶은 것인데, 일반인으로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선방 생활 풍토는 물론 70년대 시대상까지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값진 게 아니다.

19일 동안거를 마친 한 젊은 스님은 "지금의 선방생활과 비교도 안될 빈약한 의식주 속에서도 철저히 수행에 정진하고 법거량을 나누었던 스님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며 "선대 선승들의 수행은 사표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평했다.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가 곳곳에 스며있는 이 글은, 새로이 발심하여 출가 수행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나 재가불자들에게도 훌륭한 수행의 거울이 될 것 같다. 값 5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시로 읽는 서산대사' 펴낸 김형중 교법사

"서산은 높고 깊은 산이었다"



"서산대사의 생애는 드라마틱하다. 그의 삶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대사 스스로 〈삼몽록(三夢錄)〉에서 밝혔듯이 한 바탕 큰 꿈이었다."

〈시로 읽는 서산대사〉(밀알)를 손에 쥔 김형중 교법사(명성여고)가 말하는 서산대사의 생애이다. 김 법사가 서산대사를 처음 만난 것은 '서산대사의 시문학론'을 대학원 학위 논문으로 준비하면서부터이다. 서산대사의 선시를 이해하기 위해 그는 〈청허당집〉의 고판본인 초간본, 태안사판, 용복사판과 〈사명집〉 등에 3년이나 매달렸다.

김 법사가 두 번째로 서산대사를 만난 것은 불교진흥원에서 〈청소년 불교성전〉을 편찬할 때이고, 세 번째는 96년 밀알에서 한국의 고승전(원효에서 만해까지)를 시리즈 편찬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였을 때이다.

이 당시 그는 전래등화 〈서산대사의 사명당〉에서 부터 소설, 영화, 비디오 테이프, 각종 강의 테이프 등 모든 자료를 수집해 읽고 또 읽었다. 심지어는 명절때 고향도 못 갈 정도로 서산대사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다.

김 법사는 이번에 출간한 〈시로 읽는 서산대사〉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한다. "생애와 사상, 〈선가귀감〉, 〈청허당집〉 등이 따로 연구되었던 것이 하나로 융합돼 서산대사의 면목을 일관할 수 있다. 또 시절 〈청허당집〉을 내용별로 분류해 시를 통해 사상과 생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고, 한글세대를 위해 한글을 원칙으로 했다."

20여년 동안 호국 대성사, 사상가, 시인으로서의 서산대사를 연구하고 있는 김 법사는 "서산은 실로 깊고 높은 산이었다. 마지막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지금도 등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운문사 승가대 '난자집' 4권 출간

강원교재에 들어 있는 난자(難字)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난자집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운문사 승가대학(학장 명성)이 치문, 사집, 사교 등 강원교재에 나타나는 어려운 한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난자집 4권을 출간했다. 〈치문난자집〉 〈사집난자집〉 〈사교난자집〉 〈화엄경난자집〉이 바로 그것이다. 한자의 여러가지 뜻 가운데 어느 것이 경구에 적당한지를 알려주는 이 난자집은 특수사전이라 할 정도로 자세하게 구성돼 있다. 그동안 난자집에 대한 필요성은 여러번 제기돼 왔으나 구체화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와 그림으로 만나는 석굴암

고영섭씨 엮은 '새천년에…'

문인 31명의 시 수록
이호신씨 그림도 곁들여


◇ '석굴암 원경' 이호신 作

'대신라(大新羅) 산아이가 님이 되어 계시도다', '신라의 큰 공덕이 임때문이니라', '천년을 차가운 살결아래 더욱 아련한 핏줄 흐르는 숨결을 보라'. 최남선·박종화·유치환 시인은 석굴암 대불을 이렇게 노래했다.

시인들은 석굴암을, 종교와 예술이 만나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로 본 모양이다. 수많은 시인들이 석굴암 앞에서 다투어 노래한 것도 그것의 한 방증이다. 그러면 시인들은 석굴암을 어떻게 노래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수 있는 시화집 〈새천년에 부르는 석굴암 관세음〉(연기사)이 나왔다. 이 책에는 한국 신문화의 선두주자였던 최남선과 이광수의 시조로부터 이병기, 박종화, 유치환, 서정주, 신석정 등 문단의 작고 또는 원로 시인을 비롯 조동화, 조오현, 고영섭 등 소장시인을 포함한 31명이 '석굴암'를 주제로 쓴 시 36편이 수록돼 있다. 이와 함께 화가 이호신씨가 시적 감흥을 표현한 그림 31점을 곁들여 독자들로 하여금 감동의 공명을 더욱 확장시키게 한다. 또 부록으로 일연스님의 〈삼국유사〉 효선편의 대성효이세부모와 정시한의 〈산중일기〉에 실린 석굴암 관련 기록도 싣고 있다.

이 책을 엮은 고영섭씨는 "이 시집은 우리 시의 정화인 신라 향가의 집성 〈삼대목〉처럼 한국 현대시의 〈삼대목〉이다"며 "우리조상들의 장대한 시간감각과 공간감각을 '석굴암 관세음'에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불교환경교육원 환경관련서 4종 출간



불교와 환경사상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불자들은 어떻게 생태적인 삶을 살아야 할까.

자타가 인정하는 환경교육기관으로 자리잡은 불교환경교육원(원장 법륜스님)은 최근 이런 의문에 답해 줄 환경관련서 4종을 동시에 출간했다. 불교환경교육원이 개설한 생명운동 아카데미와 생태학교에 출강한 환경전문가들의 강의 내용을 정리한 〈생태적 각성을 위한 수행과 깨달음·영성〉 〈환경윤리와 생명가치〉 〈생태주의와 에코페미니즘〉 〈생태적 사고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등이 그것.

〈생태적 각성…〉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보살핌만이 모든 생명을 넉넉히 안을 수 있다는 전제아래 생태적 각성을 위한 깨달음과 영성, 즉 '자연과 인간의 일체를 위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이 책에서 법륜스님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거나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환경적 무명(無明)'이며, 깨달음 중 가장 큰 깨달음은 환경적 무지를 타파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환경윤리…〉는 인간의 환경적 실천의 근본원리는 자연적 존재의 생명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그에 따라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임을 역설한다.

〈생태주의…〉는 평화와 포용으로 새로운 세계관과 여성운동을 열어가기 위해 모든 억압당하는 것의 해방과 '살림'을 포괄하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의 흐름을 정리했다.

〈생태적…〉은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죽음으로 이끈 집단적 무의식, 관념과 상(相)을 들여다 보는 생태적 사고가 환경친화적 생활양식을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02)587-8997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 림 원
2	오두막 편지	법 정	이 레
3	금강경 강해	김 용 옥	통 나 무
4	노자와 21세기(하)	김 용 옥	통 나 무
5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6	풍경	원 성	이 레
7	유식삼십송석	박 인 성	민 족 사
8	밀교보리심론	혜 정	해 인 행
9	오계이야기	일 타	효 림
10	부처님께 재를 털면	스티븐미첼	여시아문

도서 안내:(02)737-0695

왕눈이 스님



서산대사의 법통을 이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을 계승시킨 퇀앙 언기스님의 생애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강백으로서, 선승으로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어 현재 한국의 거의 모든 스님이 언기스님의 법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생 '이뭣고' 화두를 들고 살았기에 '이뭣고' 스님으로 불리워졌으며, 양을 치면서 수행한 일,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았던 일 등은 수행과 중생교화에 전념했던 스님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정수일 글 · 그림/신국판/245쪽/값 6,000원

성철 큰스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철저한 수행과 정진으로 일생을 일관하여, 잠자던 한국불교를 깨워 일으켰던 성철 큰스님. 20세기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으로 추앙 받는 성철 스님의 생애와 사상이 재미있게 그려져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6,000원

반야심경

대승불교의 핵심은 '공(空)'사상이다. 그런 만큼 '공'을 이해하면 불교를 다 이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만화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 '공'사상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그려 나가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재미있는 불교만화



화엄경 (전10권)

부처님 설법의 정수로 꼽히는 화엄경, 그러나 화엄경은 그 분량의 방대함과 내용의 난해함 때문에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 만화는 어린 선재동자가 구도여행을 하며 53명의 덕 높은 스승들을 만나 진리의 세계에 눈을 떠가는 이야기를 통해 화엄경의 진수를 쉽고도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전 10권/값 각권 5,000원



불타석가모니 (전3권)

제1권 출가, 제2권 성도, 제3권 전법

부처님께서 히말라야 산기슭에서 태어나 위없는 큰 도를 이루시고 45년간 그 깨달음을 펴신 과정에서 가장 요긴한 점들을 모아 재미있게 엮고 있다.

임기준 글, 조성연 그림/값 각권 6,000원



백유경

부처님의 설법은 문학의 보물창고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비유와 교훈들로 가득차 있다. 특히 백유경은 그러한 이야기들만을 모은 경이다. 만화 백유경은 웃으며 보다가 자신을 돌아보며 지혜를 얻는 재미와 교훈을 담은 100가지 비유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임기준 편역, 남교희 그림/값 6,000원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한글대장경 완간 눈앞에

21세기와 역경

부처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는 역경은, 21세기의 벽두에 들어서면서 또하나의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새로운 세대와 사회환경에 발맞추는 디지털화된 기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경사업은 점점 더 불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사찰의 대형 건물 불사의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역경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범불교적인 힘을 기울여야 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이에 21세기 역경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진단하고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사를 싣는다.

1.역경원의 어제와 오늘
2역경원은 불교학의 견인차
3디지털시대와 역경
4역경사업 활성화 과제

64년 역경원 설립…경전 대중화 '앞장'

많은 사람들은 말한다. 우리 전통문화 속에 용해돼 있는 불교사상을 이해하지 않고는 한국의 사상과 문화를 논하기 어렵다고. 따라서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과 전적들을 번역하는 일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온전히 복원하는 일이자 내일의 불교학을 꽃피우기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하다.

동국역경원의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은 이같은 차원에서 시작됐다. 동국역경원은 운허스님의 주도로 64년 동국대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의 대중화 없이는 불교학의 중흥과 수행풍토 조성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에서였다.

역경원은 설립 이듬해인 65년 김달진 역의 〈잡아함경〉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88권을 번역출판했다. 사전 목록류 등 올해 안에 30여권을 번역, 완간할 예정이다. 완간되면 총번역권수가 320권에 달하게 된다. 지금까지 〈한글대장경〉번역사업에 참여한 역경가도 100여명이 넘는다. 67년 용주사에 설치된 역경연수원에서 공부한 무비스님, 통광스님, 등을 비롯 불교학 전공자와 한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다수 참가했다. 여기에 역경원 편집부에서 제작을 맡고, 판매는 별도로 조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당초 동국역경원은 작년까지 〈한글대장경〉번역사업을 마무리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번역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전 목록류의 번역 없이는 이미 번역 간행한 한글대장경을 활용할 수 없다는 교계의 여론에 따라 작년부터 사전목록류를 번역해 왔다. 〈한글대장경〉 번역 외에도 역경원은 그동안 문고본 〈현대불교신서〉와 〈불교사전〉 등을 발간했다.

설립 이후 역경원의 최대과제는 재정확보였다. 역경원은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66년~77년까지 정부로부터 7천5백만을 지원받았다. 조계종총무원도 65년~69년 3백5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동국대는 65~71년 1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70년대 말까지 역경원은 매년 7~8권의 〈한글대장경〉을 번역 출간해 왔으나, 국고지원이 끊긴 80년대에는 거의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 침체기에 빠졌던 역경사업이 다시 재개된 것은 94년 개혁종단 이후다. 역경에 대한 범종단차원의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다시 이뤄져 재정난이 일정부분 해소됐기 때문이다.

94년~97년 4개년 계획으로 국가로부터 12억2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동국대와 조계종총무원, 역경후원회, 보덕학회 등의 지원과 〈한글대장경〉 판매금 등으로 약 20억의 자금을 확보했다. 94년 이후 역경원은 매년 26~30권, 한달 평균 2.7권을 출간하며 역경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1권의 〈한글대장경〉을 제작하는데 3천만원 이상의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평균 10억원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역경사업은 여전히 재정적인 곤란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지난 98년과 99년에도 정부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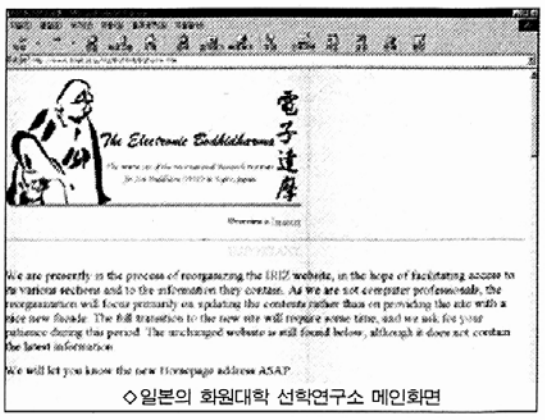
지금까지 역경사업 전체 경비 가운데 60% 이상이 정부 지원으로 충당됐다. 국가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역경사업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글대장경〉 번역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녔기에 수십억에 이르는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역경원은 〈한글대장경〉 완간과 동시에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개정작업에는 〈한글대장경〉 CD롬 제작을 비롯해 전산화 작업까지 포함된다.

역경원 최철환 부장은 "개정과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신청해 놓고 있다"면서 "전산화작업은 동국대 전자불전연구소와 협조해 공동으로 소프트웨어부분과 입력작업 등 기초적인 작업부터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역경사업의 최대난제인 재정확보가 해결되지 않은채, 여전히 국가지원에 의존해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면 또다시 지난 36년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소리에 모든 불교도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일본의 화원대학 선학연구소 메인화면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일본불교 탐방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 이곳의 불교 역시 국내 불자들에게는 낯설기만 하다. 그러나 교계 해외 유학승 가운데 70%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또 우리 나라와 같이 대장경 전산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화원대학교의 선학연구소는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동일한 작업을 하고 있어 국제 학술대회에서 자주 비교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일본불교계의 속내를 들여다 보고 싶은 불자 네티즌이라면 '화원대학선학연구소' '정토진종 동본원사' '조동종 전국청년회' 등의 사이트를 찾아보는 것도 유익한 사이버 기행이 될 것이다.

불전 전산화 '공개'

▲화원대학선학연구소(http://www.iijnet.or.jp/iriz): 인터넷에 가장 많은 불교 텍스트를 올려 놓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이트가 바로 '화원대학 전자달마' 사이트이다.

일본에는 비교적 많은 수의 학교와 연구소에서 불교 문헌의 전산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공개된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이에 비해 이 연구소에서는 활발하게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홍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이채롭다.

이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선종관계 텍스트(JIS와 BIG5) △불전 전산화 현황 △선종 관계 예술 △선종 기관 관련 정보 △전산화에 관련한 글 △선지식베이스(Zen Knowledge Base) 등이다.

'진종의 가르침' 볼만

▲정토진종 동본원사(http://tomo-net.or.jp): 토모넷(TOMO-NET)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본원사(東本願寺)는 교토에 위치한 명찰로 일본 정토진종(염불종) 대곡파(大谷派)의 본산이다. 이 사이트는 진종의 공식 사이트로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진종의 가르침' '연여스님 500주기 기념 사업' '불교의식과 출판물 소개' 등을 열람할 수 있다. 일본어에 능통한 불자네티즌이라면, 재미있게 구성된 내용을 따라 이국의 종파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방문자 가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본원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함께 열람할 수 있다. 이중에는 종조 친난스님의 묵상을 모신 건축물로 세계 최대의 목조 기념물인 어영당(御影堂)과 아미타불을 모신 전각인 아미타당(阿彌陀堂)을 비롯해 섭성원(涉成園·정원), 대곡조묘(大谷祖墓·종조의 묘소)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청년들 운영 사이트

▲조동종 전국청년회(http://jtvan.co.jp/~soto): 지난해 말 한국불교계 대표적인 선수행 도량인 백양사를 방문한 이따하시스님이 종정으로 있는 조동종은 임제종과 더불어 일본 선종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일본의 조동종은 도원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영평사(永平寺)와 형산선사를 개산조로 하는 총지사(總持寺)를 양대본산으로 한다. 이 사이트는 젊은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답게 주요 활동상황과 소식 등의 정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를 방문하면 일본 청년불자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행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조동종 이외에도 임제종이나 다른 종파의 활동 상황을 연이어 찾아 볼 수도 있는 점도 이 사이트의 특징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업설-연기설 무아-윤회 '토론'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동계워크숍

12일~13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운영위원장 해주스님) 동계워크숍의 주제는 업설과 연기설, 무아와 윤회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실상사서 열렸던 하계워크숍에서 미진했던 업설과 연기설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도에서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50여명의 불교분과 회원들은 여느 워크숍과는 다른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표교수(전남대)는 근본불교에서의 업설과 연기설의 관계에 대해 "생명(삶)은 업보의 현상이다. 무아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연기란 업보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업설과 연기설을 모순된 사상으로 이해하여 업설을 이단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무아(anātman)와 윤회의 현대적 의미, 불교사상과 윤회의 관계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학자들은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오온(五蘊)은 곧 무아다", "윤회는 연기법의 한 현상으로 연기를 떠나서는 있을 수 없다", "선불교에서 생사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이 바로 윤회다", "부처는 윤회를 업보상속으로 보았다"라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종범스님은 "이번 워크숍은 확실한 결론을 얻기보다는 불교를 논의함에 있어 업과 연기, 무아, 윤회는 개별적 문제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지반 위에서 연구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하고, "업설과 연기설, 무아와 윤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학술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한국종교학회 불교분과 회원 50여명은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동계워크숍에서 자유롭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행 뒤로 한 환경운동 전통불교와 거리있다"

신규탁 교수 동양철학회 세미나서 주장

환경보호의 대안사상으로 무소유의 불교정신이 정신적 바탕으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불교환경단체들이 전개하는 환경운동은 전통교학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10일 중앙대서 열린 한국동양철학회 '새천년의 동양철학과 환경윤리' 주제 정기학술회의에서 제기됐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신규탁교수(연세대)는 '불교의 우주관과 환경윤리'라는 논고를 통해 "업장소멸을 뒤로 한 채로 환경운동에 앞장서는 것은 전통적인 불교교학에서 보면 비본질적 내지는 주변적인 심지어는 반불교적인 행위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교수는 전통적인 불교교학에서 우주와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는가를 중국에서 편찬된 〈경률이상(經律異相, 대정 53권)〉을 토대로 설명했다.

신교수는 "고대 인도 불교인들은 중생이 짓는 업력에 의해 우주가 생주이멸한다고 믿었으며, 우주가 파괴되는 원인을 번뇌에서 찾았다"면서 "인간의 탐심이 환경을 파괴하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자원 보호, 대기오염 방지 등과 같이 물질을 매개로 하는 환경운동이나 대사회적인 환경 캠페인은 전통적인 교학체계에서 보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이같은 신교수의 주장에 한국불교환경교육원 박석동부장은 "업의 소멸없는 환경운동은 반불교적이라는 부분은 논리적 비약"이라면서 "환경운동을 물질세계와 정신세계로 구분해 다르게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 또한 불교가르침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은자 기자

26일 보조사상硏 발표회

보조사상연구원이 종밀의 〈도서〉연구를 주제로 제3차 선전연구 발표회를 26일 법련사 불일문화회관에서 연다.

이날 발표회는 한국 선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선전(禪典)들을 연구하고, 재조명해봄으로써 21세기 한국선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봉종밀의 생애와 사상'(법산스님, 동국대 교수), '규봉종밀의 선의 분류와 선종사 인식'(최병헌, 서울대 교수), '〈도서〉의 선사상과 돈점관'(신규탁, 연세대 교수), '〈도서〉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해주스님, 동국대 교수) 등이 발표된다.

또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 권기종교수(동국대), 조윤호씨(전남대 강사), 김영욱씨(가산불교문화연구원) 등이 논평자로 참가한다. (02)733-5315

신간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혼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이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6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이 한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려보냈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등,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부끄러워 할 줄 알면 대장부

혜능 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7>

오계상경-1

재가자가 지녀야 할 계율 설명
지계·참회 다같이 중요한 공덕

지금까지 계율 전반의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제 재가불자와 관련된 계율을 담은 경전을 중심으로 한 발 더 나아가보자.

부처님께서 안타 국에 계실 때 말씀하셨다.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느니라."

여러 번 언급했지만, 우리는 계를 받음으로써 불자의 삶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를 받았다면 자신이 받은 계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초발심자경문』에서도 "오계를 받아서 지범개차에 관계된 사항들을 잘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지범개차는 계를 어떻게 지켜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범계가 되는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떠한 예의 규정을 두고 있는지, 범계를 하기 쉬운 환경에서 어떻게 자신의 청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율장의 내용을 잘 배워 알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계율에 대한 이해나 신념이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승계의 정신이나 보살의 방편이라는 입장에서 개차법을 섣불리 말하게 되면,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는 지계의 근본 정신이 희석될 수도 있고, 계율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어서 투철한 지계정신이 확립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생활 환경은 범계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너무 많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계를 범한 후에야 참회의 마음이 생겨나는데 계를 지키는 일만큼이나 참회하는 일이 중요하며, 결국 지계와 참회는 별개가 아닌 것이다.

서산 대사는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데에 대장부의 기상이 있다. 참회가 있을 때 사람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묘한 길이며, 열반의 안락한 곳에 이르는 평탄한 길이니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신행 생활은 독경, 염불, 주력, 불사 등의 기도와 수행으로 기복적인 것에 그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재가자를 위한 계율을 담은 경전이 여러 가지 있지만, 먼저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이 경은 중국 유송 시대(431년)에 구나발마 법사가 번역한 것인데, 고려대장경에 들어 있다. 『오계상경』『우바새오계약론』이라고도 하는데 우바새, 즉 재가신자가 받아 지녀야 할 오계에 대하여 죄악의 경중과 '참회하여 없앨 수 있는 죄'와 '없앨 수 없는 죄'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다.

주석으로는 중국 명나라 때 지욱 대사의 『잔요』와 광화 율사의 『집주』가 있는데, 이 주석들을 참고하면서 먼저 『불설우바새오계상경』의 제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자.

'불설'의 '불'은 범어 붓다(Buddha, 佛陀)의 음사인데, 깨달으신 분, 정화 발전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만법의 성(性, 절대의 본체나 도리)과 상(相, 상대의 현상적인 모습)을 모두 다 깨달았다는 말이다. 깨달음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자각(自覺)으로 자신의 마음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깨달아 아는 것이다. 둘째는 각타(覺他)로, 모든 법을 남김없이 깨닫는 것이다. 셋째는 각만(覺滿)으로 자각과 각타의 도리가 원만하고 충만함을 말한다. 공간적으로는 시방세계에, 시간적으로는 삼세에 모두 부처님이 계시며, 그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설법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경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불설'이라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론'은 다섯 부류의 사람(佛, 佛弟子, 仙人, 諸天, 化人)이 모두 설할 수 있지만, '율'은 오직 부처님만이 설할 수 있고, '경'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모두 설할 수 있지만, '율'은 오직 비구 승단이 있는 곳에서만 설하시기 때문에 '불설'이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처님은 이 경의 설법주(說法主)이시다.

우리는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공덕이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불교 교리의 역사는 불타관 변천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숫타니파타』 등 아함부의 초기 경전이나 『율장』에 나타나는 부처님,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 나타나는 부처님, 『아미타경』 등의 정토경전이나 선어록에 나타나는 부처님에 대한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부처님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신행 생활에 있어서도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해인총림 율원장〉

"변하는 몸과 마음은 '참된 나'가 아닙니다"

법회증계

불광사 호법법회

〈2000년 2월 2일〉



보하지암 스님
〈불광사 주지〉

욕망대상은 덧없고 나의 것 없으니 집착 놓아야 깨우쳐

우리들은 주변 사람들을 살필 수 없을 정도로 빠듯한 생활과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보살사상을 배우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반야실상(般若實相)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실천의 이념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또 인연이 모여 만들어졌기에 덧없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몸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몸'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肉身)은 생각지도 못한 병에 걸리고 또 늙어만 갑니다. 도무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마음도 인연의 모임이고 항상 변합니다. 마음이 '참나'라면 만사가 뜻대로 되어야 할 터인데, 언제나 마음은 원치 않는데도 나쁜 것을 생각하게 하고, 원치 않는데도 하게 합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환경, 이것은 변하는 것이고 덧없는 것이며 괴로운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잘못입니다. 깨달음이 마음에 있다면 미혹도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것은 바로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재주가 많은 목공이 물건을 만들어내듯 마음의 변화는 한이 없고 그 작용 또한 한계가 없습니다. 때묻은 마음에서 때묻은 세계가 나타나고, 맑은 마음에서 맑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림은 화가에 의해서 그려지고 바깥 경계는 마음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의 세계는 번뇌를 여의어 청정하지만 범부들의 세계는 번뇌에 물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이와 같이 온갖 경계를 만들어 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마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처와 중생의 마음은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반야바라밀의 정법(正法)을 올곧게 보는 자입니다.

이 세간에는 누구나 할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을 늙지 않게 하려는 것, 둘째는 병들지 않으려 하는 것, 셋째는 죽지 않으려 하는 것, 넷째는 멸하지 않으려 하는 것, 다섯째는 다함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세간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여 부질없이 괴로워하지만, 반야행자들은 그것들이 피하기 어려운 것임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어리석게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 세간에는 네 가지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중생은 무명에서 태어나고, 둘은 욕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덧없고, 셋은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넷은 나도 나의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은 때와 곳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은 고금이 같아서, 진(眞)을 부수지 아니 하고 속(俗)을 밝히며, 색(色)을 인연하여 공(空)을 드러낸다. 그 윽함을 찾으매 오직 망상 뿐이요, 뜻을 잃으매 다 어리석음이로다. 유(有)에 집착함은 곧 다툼이요, 허망한 마음도 스스로 등해지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도 지혜가 없는 마음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몸과 마음을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알아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집착을 놓았을 때, 반야를 알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반야의 세계란 어떠한 말로도 해명될 수 없는 그야말로 진(眞)을 부수지 아니하고도 속(俗)을 밝힐 수 있는 높은 봉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도리를 체득하여 반야행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터넷에 디지털경전 2천권 띄워

세계의 불교학 〈7〉 영국 ②

빨리경전학회 원전 대부분 번역
돈황 프로젝트 불교대중화 선도



◇대영도서관에서 '스타인 컬렉션' 경전을 열람하고 있는 불교학자들.

영국 불교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빨리경전협회'에서 빨리어 삼장 모두를 번역했을 만큼 영국의 불교학의 학문적 배경은 두텁다. 19세기에 형성되기 시작한 영국의 불교학계는 100년 동안 동·중앙아시아에서 들어온 대부분의 경전을 번역·연구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을 쌓아나간 것이다. 빨리경전협회는 지금 주석서 번역에 주력하고 있는데, 약 10% 가량이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빨리어 장경을 원전에 가깝게 번역할 수 있는 학자는 15명 안팎이라고 한다. 빨리어를 읽을 줄 아는 것과 번역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불교학계의 업적은 놀라움 그 자체다.

그런데 영국의 불교학계는 20세기에 접어들어면 100년 간의 학문 성과와 그것의 토대가 되었던 원전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 열의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영국의 대영도서관(British Library)의 '돈황 프로젝트(The International Dunhuang Project)'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옥스포드·런던·캠브리지 대학 등의 불교학 관련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대영도서관의 수잔 위트필드(Sunzan whitfield)가 이 프로젝트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다.

'돈황 프로젝트'는 '스타인(Stein) 컬렉션'을 번역하고 판본을 연구하며 또 디지털 경전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 컬렉션은 독일인 아우렐 스타인(Aurel Stein, 1862~1943) 박사가 인도, 중국, 이란, 이라크, 요르단 등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발견해 유럽으로 들여온 경전들이다. 돈황본 경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컬렉션이 바로 돈황 프로젝트의 기본 텍스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스타인 컬렉션 경전들을 보존하고 관련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영국의 주요 불교 학자들은 판본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스타인 컬렉션을 표준화해 소장학자들의 학문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또 복사본 컬렉션을 만들어 영국인 불자들에게 대중적 지지를 끌어내고 있다. 이외에도 이 사업에는 서지학자와 화학·미생물과 같은 이공계열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어 원전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탐험 보고서(Innermost Asia. Detailed Report of Explirations in Central Asia)〉, 〈Descriptive Catalogue of the Chinese Manuscripts from Tunhuang in British Museum(대영박물관에 소장된 돈황본 경전)〉, 〈천불동의 불교예술(Cave of the Thousand Budhas:Chinese Art from the Silk Route)〉 〈6세기의 돈황(Six Centuries at Tunhuang)〉 등을 비롯해 수많은 연구서들이 발간됐다.

이외에도 1998년부터는 인터넷상에 '돈황 프로젝트' 사이트를 개설해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대영도서관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20,000여 권의 스타인 컬렉션 경전 가운데 언어·주제·발간년도 등으로 선별한 2,000여 권의 디지털 경전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경전은 경전 전산화와 관련해 유일한 국제 학술단체인 '전자불전협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잔 위트필드는 "이 프로젝트는 19세기 초에 수집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자료(스타인 컬렉션)들을, 연구의 주제로서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사상적 관심으로 선회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것이 완결되면 누구나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고 또 불교 경전을 읽을 수 있게 되어 대중 속의 불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불교학의 특징은 불교학 주제를 세분화하고 또 전문화 함으로써 중복연구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것인데, 바로 '돈황 프로젝트'는 이같은 장점을 활용해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는 문헌 작업 이외에도 연관 학문 분야와의 끊임없는 교류로 경전 연구의 깊이를 더하면서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몸을 다스리는(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괴로도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라야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계를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 [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호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 등 「치신(治身)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불 로 화 정 본 포

불로화정(不老化精)



산증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스님이 40여년전 은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깨)와 감식초 외 10여종의 첨가물 **[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호전되어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격	정가 70만원(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분에게 50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원

의료법인 태영의료재단
효성양방·한방병원 무료치료안내



▲ 효성양방·한방병원 부분전경

천하의 명산 울산 가지산(경남도립공원) 자연공원 안에 의료법인 태영재단은 현재 380억원을 투자하여 9만평의 대지위에 노인복지 시설인 효성노인병원, 양방·한방병원 300병실과 104실의 실버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의료법인의 자금과 불사(佛事) 시주금으로 마련한 4백억을 투자하여 건축허가분 실버타운 300여실을 증축하고 한국목탑(木塔) 형식의 3층 법당(150평규모), 세계 최대규모인 108미터 열반와불(臥佛)상과 10만위(位)의 영골(靈骨)을 모시는 영묘사리탑(靈廟舍利塔), 열반 와불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병신경성 질환, 당뇨병, 중풍(와사풍 포함), 관절염, 위장병,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분들이 완치될 때까지(약 1개월안에 치료 가능) 무료로 치료해 드리고자 하오니, 전국의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의 료 법 인 효 성 양 방 한 방 병 원
이사장 김 시 연
(이사장 직통) 대구 ☎(053)655-2227 (011)808-8880 병원비서실 ☎(052)254-2600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덕현리 산 8-4

실버타운 전세안내

구분	비고
2인 1실	전세
1인 1실	전세

선착순 104실 / 매월 식대 400,000원(개인부담)

※단 입원실 사용 1개월씩, 식대 각자 부담

시방세계

FM 101.9MHz
BBS 불교방송 후원회
문의전화 : (02)705-5560~1
후원회ARS 전화 : (02)700-0108 외환은행 : 189-13-03929-3
은행지로 번호 : 8003478번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2223
예금주 : 불교방송



◇매서운 겨울 날씨에도 팔만대장경 관전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찬탄하는 스님과 불자들.



◇해인사 보경당에 모인 3백여명의 불자들은 장궤합장한 채 팔관재계를 또박또박 외웠다. 사진=이윤호 기자

해인사 매월 음력 10일

자비수참 읽기와 팔관재계 지키기

가야산의 참회-발원 가행정진

"여러 부처님께 예배하옵고 다시 참회하옵니다. 참회라는 것은 본래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앞날의 좋은 인을 닦으며, 나쁜 짓을 없애고, 착한 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누군들 허물이 없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도 생각을 잊으면 도로 번뇌가 생기는 것이요, 아라한이라도 습기가 핏히면 몸과 말로 짓는 짓을 다시 짓게 되는데, 하물며 범부야 어떻게 허물이 없겠습니까. 다만 지혜 있는 이는 먼저 깨닫고 능히 뉘우치고 고치거니와, 어리석은 사람은 덮어만 두어서 더욱 퍼지게 하므로 오랜 밤중에 습관만 기르고 깨달을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뉘우치고 드러내어 참회한다면 어찌 죄업만 소멸될 뿐이겠습니까, 다시 한량없는 공덕이 점점 자라나서 부처님의 미묘한 열반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적막한 겨울 산사에 울려퍼지는 참회와 발원!

성철스님과 같은 대선사들이 선맥을 이어온 법보종찰 가야산 해인사. 한겨울인 지금도 참선수행을 위해 모여든 불자들이 정진 중인 이곳에서 계율사상 확립을 통한 새로운 신행바람을 이 끌어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14일 낮 12시 가야산 해인사 보경당.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재계 지키기 정진법회'가 열리는 현장이다. 매월 음력 10일 부산, 대구, 마산 등 각지에서 모여든 3백여명의 불자들은 한마음 한목소리로 지난 삶을 깊이 참회하고, 참불자로 거듭날 것을 새롭게 발원한다. 이 법회는 관광사찰로서의 이미지를 벗고, 팔만대장경을 법보로 모시고 있는 법보종찰로서, 투철한 지계에 입각한 신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법회는 낮 12시 해인율원장 혜능스님의 주도로 〈천수경〉 봉독과 함께 시작된다. 〈천수경〉을 외며 먼지 들뜬 마음을 정돈한 후, 참석자 모두가 관음정근을 하면서 부처님 전에 향송이 꽃을 공양하는 것으로 참회기도를 위한 자세를 바로잡는다. 그리고는 바로 〈자비수참〉 참회문을 읽는다.

"지난 세상 지은 죄와 이 세상에 지은 허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을, 오늘 지성으로 시방세계 온 허공에 가득하신 부처님과 모든 보살과 벽지불과 아라한과 사과향에게 귀의하오니, 범왕 제석과 천룡 팔부의 여러 성중들은 굽어 살피옵소서."

〈자비 수참〉참회문은 중국 당나라 의종 때 오달국사가 지은 것인데, 인면창(人面瘡) 치료를 위해 산으로 들어간 오달국사가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참회 기도문이다.

〈자비 수참〉의 참회기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회기도처럼 무조건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식의 참회기도가 아니다. 무엇을 어떻게 참회해야 하는지를 불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소리내 읽다보면 자연스레 마음속에서 참회하는 마음이 일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된다.

첫 법회부터 동참했다는 김길상화보살(대구불교대학)은 "한줄 한줄 참회문을 읽다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내 잘못을 깨닫게 되고, 구체적인 참회방법까지 얻게 된다"면서 "그런 점에서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재계 지키기 정진법회는 여느 법회보다 더 신심을 돋운다"고 말한다.

정진법회에서 읽는 〈자비수참〉참회문은 운허스님이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인율원에서 교재로 쓰기위해 다시 읽기 쉽게 만들었다. 상중하로 되어 비교적 분량이 많아 3개월씩 들아가며 상중하편을 읽는다. 음력 정월 법회인 이날은 1시간 30여분간 꼼짝않고 〈자비수참〉참회문 상권을 한목소리로 읽었다.

〈자비수참〉참회문 읽기가 끝나면, 혜능스님의 선창에 따라 장궤합장을 한 불자들이 팔관재계(八關齋戒)를 함께 외며 발원하는 것으로 법회는 절정에 이른다.

"첫째, 죽이지 않는 것을 목숨으로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죽이지 않겠습니다.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풍족함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음행하지 않는 것으로 가름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진실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섯째, 술마시지 않는 것으로 지혜를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여섯째,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향수나 꽃으로 몸을 꾸미지 않겠습니다.

일곱째, 춤추고 노래하지 않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춤추고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여덟째, 높은 자리에 앉지 않는 것으로 높음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겠습니다.

아홉째,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으로 배부름을 삼으신 부처님처럼, 저희 불자도 하루 낮 하룻밤 동안 때 아닌 때 음식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팔관재계는 삼귀의, 오계, 보살계 등과 함께 재가불자가 지녀야 할 계율이다. 팔관재계의 아홉가지 내용 가운데 앞에서부터 여덟가지를 계(戒)라 하고, 아홉번째의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것'을 '재(齋)'라 한다. 팔관재계란 계법과 재법을 하나로 만들어 부른 이름이다. '관(關)'이란 여덟가지 악을 가로 막아서 모든 허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이며, 재란 삼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눈, 귀, 코, 혀, 몸, 뜻의 여섯가지 지각한 현상세계를 잘 다스려 모습, 소리, 냄새, 맛, 느낌, 고정관념의 여섯가지 경계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모든 악을 끊고 선을 갖추어 닦으므로 재라고 하기도 한다.

하루 24시간 만이라도 계를 받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루 동안만 받아 지닌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생활화한다는 의미다. 방탕한 생활, 사치스러운 생활, 게으른 생활을 떠나 검소한 생활을 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남에게 베풀어 자기를 비우고, 결국은 참된 수행으로 연결되는 이치다.

보경당에서의 법회를 모두 마친 불자들은 팔만대장경 관전 앞에서 다시 모인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에 머리숙여 예배드리고, 그 주위를 스님의 목탁소리에 맞춰 돌며 다시한번 참회와 발원을 굳게 다지는 것으로 회향을 하는 것이다.

'부처님! 오늘 배운 큰 가르침 따라, 다가오는 새날은 지난 날과 다른 참된 불제자로 살아갈 것을 발원합니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팔만대장경 관전 주위를 돌며 '참 제자로 살아갈 것'을 발원했다.



◇관음정근을 하며 불전에 꽃공양을 올리는 불자들.



◇불자들은 온 마음을 비쳐 자신의 죄업을 참회했다.



◇괴산 삼방리의 마애여래좌상은 독특한 수인과 단아한 체구로 고려시대 이 지방에서 유행한 불상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마애불을 찾아서

괴산 삼방리 마애여래좌상

오른손 무릎위-왼손 가슴앞 '독특한 수인'

굴곡없는 사각형적 신체표현 아쉬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에 있는 이 마애불은 고려때 이 지방에서 유행한 불상양식을 따르고 있다. 낮은 연화대좌 위에 앉은 이 불상은 통견의 법의를 걸치고 있는데 오른손은 무릎위에 얹고 왼손은 가슴앞에서 독특한 수인을 보이고 있다. 굴곡이 없는 사각형적인 신체와 몇 가닥의 간략한 옷주름선, 도식적인 꽃잎의 형태에서 기술의 한계가 엿보이지만 안정감있는 단아한 체구, 소발의 머리에 큼직한 육계, 삼도가 뚜렷한 목, 당당한 어깨와 무릎 등에서 앞시대의 특징이 엿보이는 수준작이다. 도롯형 문화재 제124호.

글·사진 = 불자포교사진연합회 (011-337-7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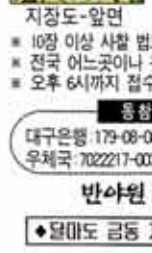
신비의 달마도 금동카드


달마도-앞면


달마도-뒷면


달마도-앞면


관음도-앞면


지장도-앞면

수백을 작단하는 통관에 금동으로 제작된 달마그림을 앞면에 새겨 개금 불자님께 지금 99% 금색옷을 입혀드려서 개금된 것입니다.

※관음도와 지장보살님 카드모양도 제작되었습니다.

불자님 세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의 : 그림모양은 같으나 색상은 관계로 원판과 틀립니다부드러운 솜으로 닦지 않으시면 흠집과 같이 흠이 생깁니다 흠이 생기면 다시 개금 작업할 수 있습니다

■개금 점안비 : 15,000원

■ 10장 이상 사찰 법보시용은 할인해 드립니다
■ 전국 어느곳이나 우편배달 가능합니다.
■ 오후 6시까지 접수해 주세요.

용도:새천년 새해 소원성취부 안전운행·불안정한 분·건강유지 기획 금동스님 제작·공급처 반야원

동참금온라인
대구은행 : 179-08-084837 예금주 : 연화선원
우체국 : 7022217-0031235

반야원 (053)943-4170

◆달마도 금동 개금 점안 목걸이◆


달마도 메달


관음도 메달


지장도 메달

※ 목걸이 줄은 별도 구입하셔야 됩니다.

해인율원장 혜능스님

"지계는 모든 수행의 첫걸음"



인터뷰

"오늘날 불교의 가장 큰 과제가 계율정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불자로서의 기본인 계율을 지키는 것은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모든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해인율원장 혜능스님의 말이다. 스님은 각종 언론매체와 불서를 통해 지식으로서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는 불자들은 늘어났지만, 살아있는 수행을 통해 그 가르침을 자기화하는 데에는 아직 우리 불자들의 노력이 미흡하다는 생각에 법회를 열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출가자의 수행 뿐 아니라 재가자를 위한 수행과 신행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방장 법전스님과 주지 보광스님께서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재계지키기 정진법회'를 적극 지원해 주셨다"면서 "〈자비수참〉참회문 읽기와 팔관재계 지키기 정진법회를 통해 불교수행의 주춧돌인 계율정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신행의 전형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달마 혈맥론(血脈論) ③

昔有善星比丘 誦得十二經部
석유선성비구 송득십이경부
猶自不免輪廻 緣爲不見性
유자불면윤회 연위불견성
善星旣如此 今時人
선성기여차 금시인
講得三五本經論以
강득삼오본경론이
爲佛法者愚人也 若不識得自心
위불법자우인야 약불식득자심
誦得閒文書 都無用處 若要覓佛
송득한문서 도무용처 약요멱불
直須見性 性卽是佛 佛卽是自在人
직수견성 성즉시불 불즉시자재인
無事無作人 若不見性 終日茫茫
무사무작인 약불견성 종일망망
向外馳求 覓佛元來不得
향외치구 멱불원래부득

옛날에 선성(善星)이란 사람은 12부경을 다 외웠으나 여전히 윤회를 면치 못했으니, 이는 견성하지 못해서이다. 선성도 그러한데 요즘 사람들은 겨우 서너 권의 경전을 읽고 불법을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어리석다.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문구나 외운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만일 부처를 찾으려 한다면 모름지기 견성해야 한다.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 열리게 하라

성품이 곧 부처이다. 부처는 곧 자유인이며, 무위(無爲)의 사람이다. 만약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분주히 밖을 향해 구하면서 부처를 찾아도 얻지 못한다.

雖無一物可得 若未會亦須參善知識
수무일물가득 약미회역수참선지식
切須苦求 令心會解 生死事大
절수고구 영심회해 생사사대
不得空過 自誑無益 縱有珍寶如山
부득공과 자광무익 종유진보여산
眷屬如恒河沙 開眼卽見
권속여항하사 개안즉견
合眼還見塵 故知有爲之法
합안환견마 고지유위지법
如夢幻等 若不急尋師
여몽환등 약불급심사
空過一生然卽
공과일생연즉
佛性自有 若不因師 終不明了
불성자유 약불인사 종불명료
不因師悟者 萬中希有
불인시오자 만중희유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나,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히 물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이 없다. 진기한 보물이 산 같고 권속이 항하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눈을 떠야 보이지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위법(有爲法)은 꿈이나 허깨비 같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둘러 스승을 찾지 않으면 헛되이 일생을 보내리라. 그러므로 불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으나 스승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끝내 밝게 깨달을 수 없다. 스승 없이 깨닫는 사람은 만에 하나도 드물다.

若自己 以緣會合 得聖人意
약자기 이연회합 득성인의
卽不用參善知識
즉불용참선지식
此卽是生而知之勝學也
차즉시생이지지승학야
若未悟解 須勤苦參學 因敎
약미오해 수권고참학 인교
方得悟 若自明了 不學亦得
방득오 약자명료 불학역득
不同迷人 不能分別早白
부동미인 불능분별조백
妄言宣佛勅 誘佛妄法
망언선불칙 방불망법

만약 스스로 인연따라 깨달아서 성인의 뜻을 얻은 사람은 선지식을 찾을 필요가 없으니, 이는 태어나면서 뛰어난 학문을 갖춘 것이고,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배워야 한다.

가르침을 받아야 깨닫는다. 만약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며, 미혹된 사람과는 같지 않다. 그리고 검고 흰 것을 분간치 못하면서 불법을 편다고 망언을 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런 부류는 빗줄기같이 설법을 하더라도 다 악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스승은 마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며, 미혹된 사람은 그의 지휘에 따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헤매게 된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如斯等類 說法如雨
여사등류 설법여우
盡是魔說 卽非佛說 師是魔王
진시마설 즉비불설 사시마왕
弟子是魔民 迷人任他指揮
제자시마민 미인임타지휘
不覺墮生死海
불각타생사해

큰 스님과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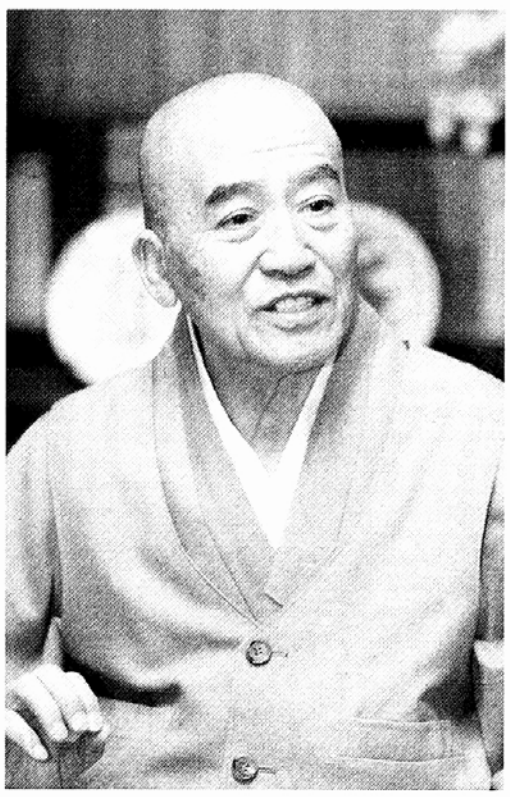
범행스님

팔달선원 조실

16대 국회의원 선거, 이를 앞두고 벌어지는 각 정당의 치열한 공천 경쟁을 신문과 방송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이 즈음이다. 정치판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덩달아 우리의 삶도 휩쓸리고 있다. 시민단체의 낙천 · 낙선 운동은 우리 사회의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변화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불교에서는 변화를 무상(無常)이란 말로 표현하듯이 변화는 세상사의 이치다. 변화의 시기일수록 구심점을 필요로 한다. 또 종교의 역할도 더욱 커진다. 현재를 어떻게 보며, 어떻게 내일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 나침반이 있어야 한다. 수원 팔달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범행스님을 만나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혜를 들었다.

"相生하는 세상 만들어야"



· 1921년 경기 화성 生
·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스님을 은사로 출가
· 52년 선학원 팔달선원 원장
· 63년 선학원 원장
· 70~75년 대한불교 신문(불교신문 전신) 사장
· 73~91년 선학원 이사장
· 95~96년 수원시 불교연합회 회장
· 조계사, 동화사, 물국사, 수덕사, 봉은사 주지 역임
· 현재 수원 팔달선원 주석

—시민운동단체의 낙천 낙선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 사회사에 큰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가하면, 일부 급진세력의 여론을 빙자한 불법행위라는 비난도 있는데, 요즘 세상 일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은 조직사회입니다. 돈을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요. 세상의 변화도 돈이 좌우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고약한 얘기로 들릴 겠지만, 돈과의 싸움이겠지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인들이 지금의 운동을 불러들인 것인데, 어느 정치인 하나 경허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변명만 할 게 아니고 당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매질을 감수하고 잘 하겠다. 한 번의 기회를 달라고 왜 말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멋있게 될텐데요.

경전을 보면, 그 사람의 출생성분이나 말로써 귀천(貴賤)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그 사람의 귀천을 결정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의 삶을 잘 살펴봐야지요.

—변화의 시기일수록 전통과 진보의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까요. 균형감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연히 너무 빨라도 안되고, 늦어도 안되겠지요. 그러나 변해야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 눈치를 볼 줄 알아야지요. 국민들도 정치인을 우리들의 대표로서 존경하고 뒷받침할 줄 알아야 하고요. 그런데 그 접점이 자기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어긋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국민의 대표이며, 심부름하는 일꾼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살리는 상생(相生)이 됩니다. 변화의 지향점도 상생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야 합니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가르침이고 선조들의 가르침입니다. 과보가 있잖아요. 살려주면 살림으로 받고, 죽이면 죽음으로 받는 것이 이치입니다. 이 간단한 이치를 왜 자꾸 잊어버립니까?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종교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스님께서 보시기에, 불교인들이 남의 모범이 되도록 살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지적해 주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종교인의 역할이 커짐은 당연합니다. 세상사의 이해관계에 매어 있지 않으니 바른 말을 할 수 있다고 세상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종교인들, 특히 수행자나 성직자들도 세상과 똑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 세상은 복잡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일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리저리 살펴봐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상에 대해 말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만,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고, 신도들에게 그 종교의 참뜻을 제대로 가르치기만 해도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에게 무슨 신통한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예요.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살면 되는 것이예요.

우리 불교만 봐도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체는 연기법인데, 불교인이 불교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심이 없고 감투와 돈에만 관심을 가져요. 싸움이 그치지 않고, 싸움났다 하면 체탈도첩시켜요. 중노릇 하겠다는 사람들을 왜 쫓아냅니까? 악랄한 세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더 한다면, 불교의 청정수행 가풍을 지켜온 정화의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수행과 기도, 신행이 불자들의 기본 생활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스님께서는 기도 가피의 경험을 밝히시기도 했는데, 올바른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출가 전 결핵으로 병고를 겪다가 태고사를 찾았어요. 그때 포산스님이 한권의 책을 주시면서 "이 책 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모다라니주를 일심정념으로 꿈 속에서도 송주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진하면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고, 그대의 병도 다 낫는다"고 해서 그 다라니경을 송주하게 되었습니다.

앉으나 서나 일심으로 주력하기 십일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내 주치의가 당시 의전병원의 일본인 의사였는데, "이 선생의 병이 다 나았어요" 하며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퍼뜩 정신을 차리니 꿈이었어요. 그런데 몸이 날아갈 듯이 가볍고 상쾌해지면서 식욕이 생겼습니다.

그때 나는 참으로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한 가피에 마음 속으로 감루하며 헤아릴 수 없는 대은혜를 느꼈고, 불전에 무수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가입산하게 되었고, 불은에 보답하기 위해 정진하며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고뇌에 시달리는 중생의 구제방법에는 참선 간경 염불 주력 등 많이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주력으로 가피를 입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럴 필요는 없겠지요. 다니는 절의 스님께 물어 자기에 맞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도는 어려운 일을 맞았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원(願)을 세우고 자기를 가다듬는 기도를 한다면 어려운 일을 미리 막기도 하겠지요.

—돈이 우리를 망가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 열풍도 이의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주식 투자로 몇 억을 벌었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요.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일러 주십시오.

▲지금은 교육이 잘못 됐어요. 내가 대통령을 한다면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국제화시대라고 하니 초등학생들에게 영어 가르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배운 것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투철한 국가관과 예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목적없는 교육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단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네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7월 29일 MBC TV 「고향은 지금」 오전 8시 30분 방영!

"꾸준한 금단화 복용은 어떤 병이라도 치유해 낼 수 있는 인체의 자생력을 길러 주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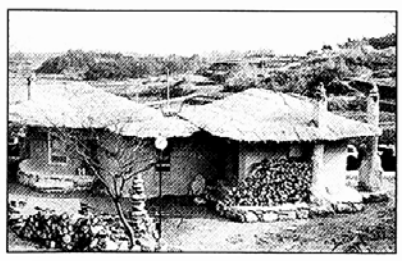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청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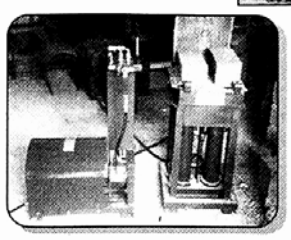
◐ 상담문의 ☎ (02)3437-8282 ◑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모델 A: ₩3,800,000
B: ₩4,300,000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전통민간요법 방식 제조/ 발명특허 제117954호

가시달린 뽕나무의 놀라운 효능!!!

꾸지뽕(산뽕) 엑기스 개발



꾸지뽕 나무



꾸지뽕 엑기스

1. 야생(산)에서 서식하는 꾸지뽕나무를 채취하여 제품 생산
2. 전통비법에 의한 열탕추출법(10시간이상다림)
3. 수안보 특산물 지정
4.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와 산학협동 체결(생산기술, 연구실험, 위생관리 제휴)
5. 충청북도 신지식인 선정(배영환 사장)

▶ 꾸지뽕 엑기스는 이런 분들이 많이 찾으십니다.

각종암, 간질환, 당뇨, 고혈압, 변비, 성인병, 술 많이 드시는 분

꾸지뽕나무란?

꾸지뽕나무는 일반 뽕나무와 달리 줄기에 가시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꾸지뽕(상백피)는 생김새가 보기 좋은 편이 못되고 흔하지도 않은 까닭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지만, 약재로는 꾸지뽕 나무처럼 여러 질병에 두루 뛰어난 효과가 있는것은 찾기 어렵다.꾸지뽕나무는 여러면에서 뽕나무보다 비슷한 효과가 있는데 뽕나무보다 그 효능이 훨씬 더 강하다.

- 충주대학교 식품공학과 농학박사 민윤식
- 보 도 MBC TV "고향은 지금", KBS TV "7시 뉴스", 중앙일보

구입문의… /수안보 본사 및 총판 (0441)845-0117
/청주점 (0431)213-2551 / 대전점 (042)255-8027

※ 전국 대리점 및 유능한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

산학협동 충주대학교 TEL. (0441)841-5247
(주)뽕그린식품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33번지

이 되어버립니다.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말이 있지요? 옛날 연나라의 '소년이 조나라의 한단이라는 곳에 가서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려다, 조나라 걸음걸이를 배우기 전에 자기 나라 걸음걸이까지 잊어버리고, 끝내는 네 발로 기어 자기 나라로 돌아왔다는 고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연나라의 소년으로 내몰지 않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뛰어난 삶을 살았는지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우리 민족이 세계 제일이었어요. 영국이 민주정치의 본산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노론, 소론, 남인, 북인 등 이념적으로 나뉘어 서로 경쟁했어요. 우리는 영국보다 먼저 정당정치를 했던 것이지요.

예의는 상대방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나,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더욱 좋아할까 하고 늘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고서 돈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가난하게 사는 삶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부자는 인색한 것으로 부자가 되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진 것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도리란 무엇인지요?

▲자족(自足)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 자주 가지는 않지만, 초상집엘 가보면 우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집 가보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도 못했는데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다고 눈물바다예요. 그런데 부잣집에 가서 보면 관(棺)을 저만치 두고 재산 때문에 싸워요. 돌아가신 부모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식이 드물어요. 돈이 많다고 우리가 행복하거나,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1954년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열린 전국비구승대회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맨 앞줄 가운데 검은 안경을 쓴 스님이 만암스님이며, 왼쪽부터 자운, 한사람 건너 청담, 또 한사람 건너 동산, 오른쪽 세번째부터 향곡, 금오, 호봉스님이다. 범행스님도 이 대회에 참석했다. 범행스님은 청정수행 가풍을 일깨웠던 정화운동이 흐려져감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찍이 스님께서는 불교만큼 큰 가르침을 담은 그릇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의 문학 철학 과학 등 학문이 불교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요?

▲연기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인 인(因)과 간접적인 원인인 연(緣), 즉 인연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이지요.

"만족할 줄 알아야 행복 느껴요"
나누고 베풀면 세상 절로 평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한번 따져봅시다. 먹고 입을 것이 마냥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으로 모두 풍족하게 살 수 없는 세상인데, 모두 많이 가지려 하면 다툼이 일겠지요. 다퉈서라도 많이 갖겠다면,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남들 먹고 입을 것을 차지하는 것이 됩니다. 나눠야지요.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나눠서 써야지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탓해서는 안되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더욱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재주도 함께 가졌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누지 않고 베풀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흉악하게 되어 갑니다. 그런데, 나누는 데는 쓰지 않고 재물을 지키는 일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행을 낳는 일입니다.

불교에 누진통(漏盡通)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주가 생기고 없어지는 것까지 알 수 있는 능력인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과거와 미래의 일을 어떻게 아느냐, 이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렇다고 연기법이나 불교를 무슨 신통력을 가르치는 것으로 생각한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능력을 통해 번뇌를 제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밀린다왕문경〉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상에는 진실한 것이 있다. 진실을 알고 진실어를 말해서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고, 불을 끄게 할 수도 있고, 독을 없애고, 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을 할 수도 있다." 밀린다왕의 이 말에 나가세나 비구는 "진실의 힘에 의해 천안(天眼)을 얻게 된다"고 대꾸합니다. 지상 밖의 다른 세계는 육안(肉眼)으로는 볼 수 없고 천안에 의해서만 알 수 있는데, 천안은 진실함으로써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연기법의 이치를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바로 알면 이로 인해 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의 밑바닥에는 삶의 진실, 소박함, 정정당당함, 이런 것들의 가치를 높게 치는 자세가 갈려 있어야 겠지요.

-스님의 말씀대로 미래, 그러니까 30년 후는 오늘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일텐데요. 지금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있습니까? 또 과거에 지은 악업을 씻고 선업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살 먹은 아이들이 지금처럼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망할 것인지, 흥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아버지 나가신다, 들어오셨다, 인사 여쭈어라, 어른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야 하는데 말입니다. 서양의 남녀평등사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여성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만 강조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어요. 서양의 여성운동에는 여성을 산업인력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와서 여성들 보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들어올 일도 아닙니다. 들어오라고 해서도 안됩니다. 혼자 벌어 가족들 부양하기 힘든 시대이니 남자들도 은근히 여자들을 직장으로 보낸다는 얘기도 있는가 봅니다. 잘 한다고 상을 줄 일은 아니지만, 잘못 됐다고 탓할 수도 없습니다.

여성운동을 여성과 남성이 똑같이 사회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쪽으로만 몰고가서는 안됩니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 그리고 사람다움을 찾는 운동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모성, 여성성, 가정의 회복, 이런 가치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부드러움, 따뜻함, 온화함, 보살핌, 감싸 안음, 너그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가운데에 인간의 인간다움과 행복의 원천이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정신, 불교의 정신을 내세울 때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합니다.

-참선 수행과 관련해 교리와 인간의 이치를 알아야 참선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두는 어떻게 드느냐 하면 일체 경전을 다 본 후에 의심을 내라, 경험에 비추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상근기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마땅히 아무 데도 집착하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이라는 〈금강경〉 한 구절에 마음자리를 바로 보겠지요. 그런데 중생은 미운 사람 보면 그 놈 때문에 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런 것이 끊어져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습을 끊기 위해 경전도 보고, 세상사의 이치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대담=정성운 차장
(swjung@buddhapia.com)

효림스님이 쓰는 이런스님

■변함없는 영주스님

옛 시에 "동서남북 어느 곳도 머물 곳이 없으니 한평생이 다만 지팡이 하나로세(南北東西無定着/生涯只在一枝笻)"라는 구절이 있다. 운수행각을 하는 선객의 처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시이다. 수십년 선객으로 수행을 해 왔지만 동서사방 어느 곳도 머물 곳이 없는 처지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살림살이가 아닐까.

지난호에 얘기했던 성남 봉국사 객실에 일년에 한 두번씩은 꼭 들르는 스님이 몇 명 있다. 지난번 봉국사에 갔을 때다. 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계화에게 영주스님의 안부를 물어보았다. "영주스님, 요즘도 가끔씩 들르나?" "예! 일년에 한 두 번씩은 오셨다 갑니다." "그래, 언젠가 한번 오시면 내가 사는 보광사에도 한번 들르라고 전해라."

옛날 문경 봉암사에 살 때다. 그때는 여름이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 큰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중스님들과 주지스님 사이에 심한 갈등이 일어났다. 누가 신발을 하나 사다 달라고 했는데 주지스님이 그만 도무지 신을 수 없는 싸구려 신발을 사온 것이 발단이 되었다. 점차 갈등이 깊어지더니 급기야 주지스님은 대중들에게 모두 떠나라고 했고, 대중들은 스님에게 주지직을 사퇴하고 물러나라고 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치하여 긴장감이 감도는 어수선한 가운데 찾아온 스님

비단옷 자가용 멀리하고
운수납자로 사는 수행자

이 영주스님이었다. 평상한 때 같으면 결제중에 찾아온 스님이니 방부를 받지 않을 것이지만 심한 갈등 중이라 어정쩡하게 큰방에 방부를 들이고 같이 살게 되었다.

대중들은 영주스님이 주지스님 편이 아닌가 하는 시선으로 보게되고 주지스님은 또 저 사람이 대중들 편은 아닌가 하고 있었다. 그런중에 대중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였다. 한쪽에 앉아있던 영주스님이 아주 큰 목소리로 한마디했다. 손으로 방바닥까지 치며 "내가 알기로 봉암사는 옛 구산선문 가운데 희양산파로 천여년동안 선종가풍을 지켜온 곳입니다. 이러한 선종 제일도량에서 공부하는 대중을 잘 외호해야 할 주지스님 한사람의 잘못으로 선방스님들이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다시 대중들을 모두 떠나라고요? 결제중에 공부하는 대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법이며 도리입니까?"

실로 추상같은 말이었다. 그의 말은 누가 들어도 반듯하고 논리정연했다. 결국 그 해 여름 주지스님은 사퇴를 했고 우리 대중들도 흩어져 헤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만난 스님이 영주스님이다. 그래서 나는 그때의 아주 용감한 영주스님의 이미지가 아주 또렷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후 우리는 여러곳에서 같이 살았고 이곳 저곳을 다니는 만행도 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자주 만나는 곳은 역시 성남 봉국사 객실이었다. 언젠가는 봉국사 객실에서 며칠을 같이 묵은 일도 있었다. 낮에는 경주시내에 나가 박물관 같은 곳에도 가보고, 밤이 되면 다시 봉국사 객실에 돌아오곤 했다.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국수 한그릇을 사서 나눠 먹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허물없이 친해졌다. 순진하기는 그나 나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래도 그는 나보다는 수단이 나았다. 그래서 매번 나는 그의 신세를 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차비가 없을 때 차비를 얻어오는 것은 영주스님이었다. 길을 지나가다가 오디오 가게 앞을 지날때면 흘러나오는 클래식에 귀를 기울여 듣기도 하는 멋을 가진 그런 일면도 있었다.

우리는 너나 없이 출가하여 스님이 되고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대단한 각오를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게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도 변하게 되고 하여 처음 먹은 마음이 물먹은 흙덩이처럼 허물어지고 만다. 우선 내 경우만 해도 운수납자로 참선수행을 시작하였을 때는 가까운 도반들과 객실에서 누더기를 꿰매면서 서로 "우리가 도를 깨닫기 전에는 중도에서 그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하자"고 했었다. 적어도 당시의 우리는 순수하기를 원했고 또 순수했었다. 우리는 일평생 누더기를 버리지 말자고 했고 외로운 수행자로 살자고 했다. 그런데 너도 변하고 나도 변했다. 옛날 도반을 만나보면 모두들 부티가 난다. 웃은 누더기 대신 때깔



그림 · 문병성

나는 비단이다. 얼굴은 살이 쪄서 개기름이 번들거린다. 고급자가용에 행동거지도 세속적이다. 입을 열고 말을 하면 오로지 종단 정치얘기 뿐이다.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고 종단정치 속에서 어떻게 줄을 잘 서서 벼슬을 하고 실세(實勢)가 될 것인가 하는 것 뿐이다.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그렇게 변질되었다.

이렇게 변하면서 그리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운수행각을 하던 젊은 시절이고 혼자 쓸쓸히 객실에서 때에 절은 이불을 덮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던 일이다. 이상하기도 하다.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애잔한 슬픔이기도 하더니 그런 것도 세월이 많이 흐르고 나니까 지금은 그리워진다.

이 차가운 겨울, 영주스님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는 일붕 서경보스님의 상좌인데 경보스님이 일붕선교종을 만들면서 은사스님도 없고 문중조차 없어진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다. 오직 참다운 운수납자로서 살아갈 뿐이다.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겨울 호

지상강연 /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❺ - 禪강좌
승찬 대사의 신심명(信心銘)

불교계진단 11 / 불교계 생협운동의 현주소

최초완역 / 일연 스님의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 마지막편(卷下)
『삼국유사』를 편찬한 일연 스님의 또 하나의 역작, 『중편조동오위』 번역의 마지막편. 이 책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으로 알려져왔으나 서여 민영규 선생이 일본 京都대학에서 발굴함으로써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귀중한 자료이다.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이창섭 선생이 국내 최초로 번역 소개하는 『중편조동오위』를 통해 일연 스님의 선(禪)사상을 새롭게 조명해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12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절의 건축문화체험 ❹ 송광사, 그 정연한 영역의 미학

특집 / 21세기를 위한 열린교육, 대안학교
총체적 위기 앞에 선 우리 교육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열린교육, 대안학교. 21세기 새로운 교육현실 개선과 열린교육을 실현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현장을 찾아보고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인 불교계의 가능성을 점검해 본다.
- 21세기 대안교육의 물결과 방향
- 대안교육의 필요성과 불교계의 가능성
- 현장탐방/ 새로운 교육의 현장, 대안학교를 찾아서

우리시대의 匠人 / 기와 장인(製瓦匠) 정문길 씨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불교계 내의 개인 홈페이지 소개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영/호남 재가불교운동편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기획.
근 · 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현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 온 몸으로 개혁불교를 실현한 현공 윤주일 거사
- 동양의학의 중흥을 꾀한 여동명 거사

브라이언 베리의 동남아불교문화기행 ❷
앙코르 와트와 보로부드르

불교와 풍속 / 불교와 성(性)
기복불교와 성(性)의 사회 풍속사

연재소설 / 『관세음보살본행경』 평역 · 관세음보살 이야기 마지막회.
『산은 산, 물은 물』, 『만행』 등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소설가 정찬주 선생이 소설적인 구성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불자들의 신행지침서 같은 소설.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9. 9. - 1999. 12)

불교계 주요일지 - 조계종 사태 일지(1999. 9. - 1999. 12)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E-mail:kbpf@chollian.net

2000학년도 제9기 법사 양성 교육을 위한 한국불교법사대학
통신 출강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법사(法師)의 정의와 역할

법사의 칭호는 대승경전에 의거하여
정의와 역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하연의 정법을 수순법지하고
섭수정법하는 대승보살로서
여법히 불교의례에 따라
법사법위를 품수받은
불교지도자임을 말합니다.

특전
- 각 과정 수료시 소정의 법사법위품수와 법사자격증을 수여함
- 사찰 및 포교원 개원시 적극 지원함
- 본 법사교단에 포교원및 사찰을 등록할 수 있음
- 법사불교신문 상임법사위원으로 위촉 및 추대함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 상임법사로 활동할 수 있음
- 사찰법회및 불교행사에 초청법사로 추천함

모집안내
1.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2. 수업안내 : ① 출강수업 ② 통신수업
3. 입학자격 :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4. 제출서류 : • 입학원서 (본대학 양식)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주민등록등본 1통
5.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불교 기본의식 포함)
대법사과정 = 2년 (불교 상용의식 포함)
6. 원서교부 및 접수 : 2000년 2월 25일까지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대학 교무처
※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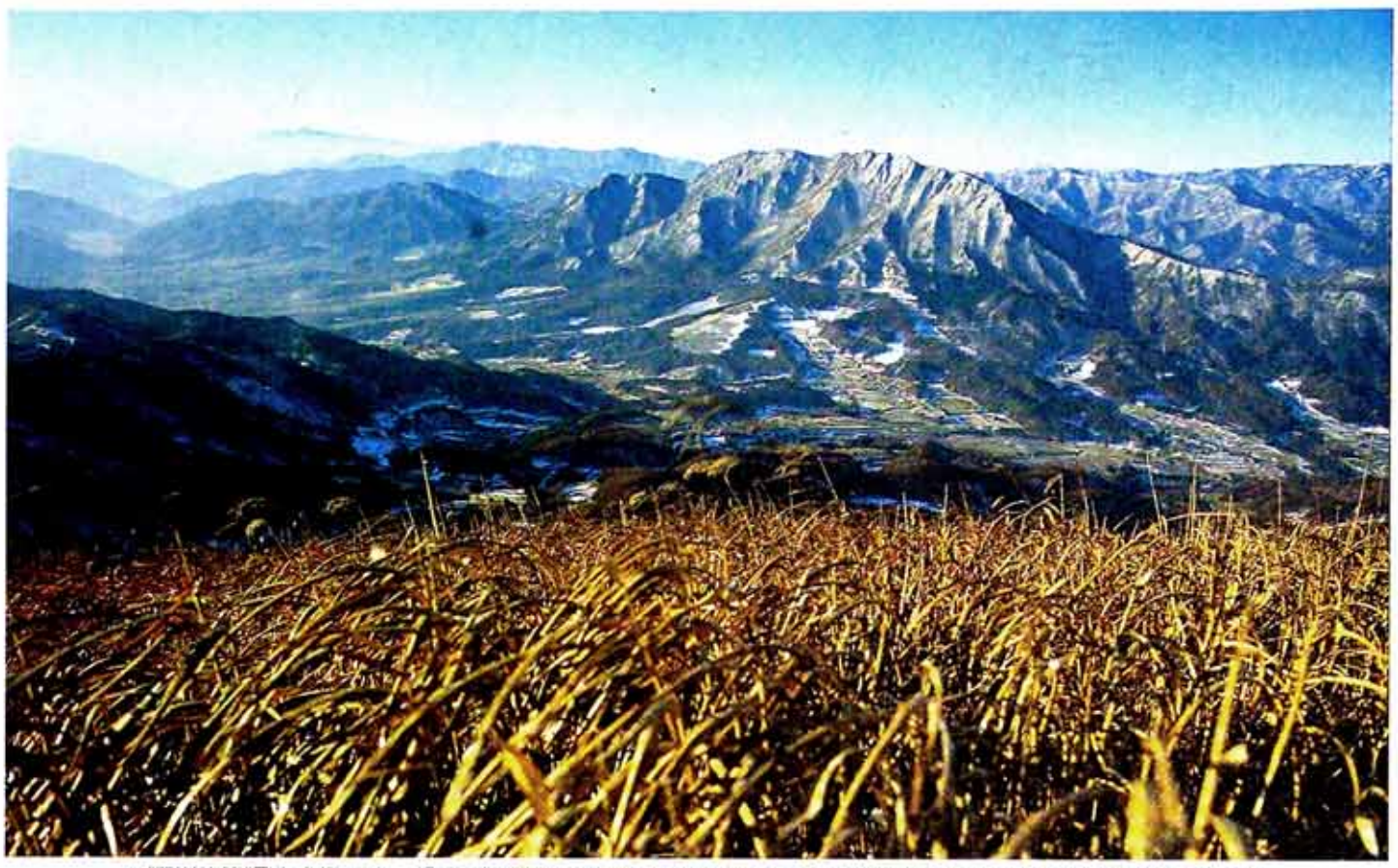
한국불교법사종연합회 부설
한국불교법사대학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3층)
☎ (02) 720-1836 · 733-1959
Fax. (02) 737-5305
인터넷홈페이지 http://pubsa.buddhism.org

물한계곡엔 얼음장…들녘엔 벌써 봄소식

백두대간 속으로 〈9〉

대덕산→삼도봉

소사고개에서 다시 신발끈을 조인다. 덕유삼봉산(1264m)을 급하게 내려선 백두대간이 이곳에서부터 서서히 몸을 틀어올려 대덕산(1290m)을 향하기 때문이다. 전라도 사람과 경상도 사람이 서로 등을 긁어주며 사는 이 고개는, 경남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와 전북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를 연결하는 곳으로, 1천 미터가 넘는 산 사이에 끼여 있지만 비탈이 야박스럽지 않은 탓에 제법 너른 들녘을 끼고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사마을과 같은 네댓 개의 작은 마을이 겨울 산새와 도란거리며 봄을 키워가고 있다.



○대덕산의 억새풀밭 너머로 보이는 덕유삼봉산. 백두대간은 덕유삼봉산을 지나 대덕산을 넘었다가 덕산재에서 잠시 쉰 후 민주지산의 삼도봉을 향한다.

겨울 민주지산 '무소유' 설법 하는듯
석기봉 삼두마애불 볼수록 친근감

이름 그대로 대덕산(大德山)은 덕망이 높은 고승의 풍모를 지니고 있다. 둥그스름하고 투실한 두 개의 봉우리가 남북으로 이어진 군더더기없는 모양새는, 하늘금 어디에고 모난 구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원만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 호락호락한 산이 아니다. 역시 주름이 첩첩이다. 저기다 싶어 올라서면 다시 내려서야 하는 일을 몇번이고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세 시간(겨울인 경우)쯤 다릿품을 팔면 등성 솟은 남쪽 봉우리 위에 올라 설 수 있다. 이 봉우리가 바로 초점산(1248.7m) 정상이다. 먼 눈으로 보면 싸잡아 대덕산의 한 봉우리 같지만 어엿한 제 이름을 가진 산이다. 또한 이 봉우리는 전라북도의 무주, 경상북도의 김천, 경상남도의 거창을 가른다 하여 삼도봉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가야 할 민주지산의 삼도봉과 이름이 같다. 특히 이 산에서부터 백두대간은 동쪽을 향해 우람한 가지 하나를 벋어 내리는데, 수도산과 가야산의 즐기가 바로 그것이다. 백두대간이 이 땅의 등뼈임이 이로써 또 한번 증명된다.

초점산에서 대덕산 정상까지는 그리 어려운 길은 아니다. 가파른 내리막으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기를 몇번 반복하면, 억새풀 무성한 사이로 조릇싸리가 내어주는 편안한 오름길 끝에 경허짐한 봉우리가 기다리고 있다. 사방 어디에고 거칠 것이 없다. 좌우로 무주군 무풍면과 김천시 대덕면의 작은 마을이 골골이 들어찬 모습이 보인다. 그 모습들이 마치 엄마품에 안긴 젖먹이의 모습과 같아서 새삼스레 산의 은덕을 일깨워준다. 또한 이 산의 왼쪽 골짝에서 발원하는 무풍천과 오른쪽 골짝에서 발원하는 감천은 저마다 금강과 낙동강을 살찌우며 수많은 생명을 거둔다.

대덕산에서 덕산재를 향하는 백두대간은 한참 동안 허리를 낮춘다. 이런 경우, 산길을 걷는 사람은 오히려 실망스럽다. 내리막의 편안함보다는 오르막의 괴로움을 먼저 예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서건 샘하기 좋아하는 인간들의 알팍한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상에서 한 마장쯤 내려선 곳에서 샘을 발견하고는, 혼자만의 비밀 장소에 들어온 아이마냥 다시 달뜬다. 하지만 아쉽게도 샘은 거의 말라 있다. 그래도 샘을 둘러싸며 오종종 늘어선 조릿대 푸른 잎이 샘을 대신하여 갈증을 달래주니, 이 또한 산에서나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다.

한 줄기 싸한 바람이 날씬한 포장도로 위를 무리지어 건너고 있다. 어느새 덕산재(640m)다. 경북 김천시 대덕면과 전북 무주군의 동쪽 끝인 무풍면을 잇는 고갯마루다. 입춘이 지났다고는 하나 높이가 높이인 만큼 바람이 예사롭지 않다. "이월 바람에 걷은 쇠뿔이 오그라진다."는 옛말이 생각난다.

덕산재를 뒤로 한 백두대간은 해발 800m 정도의 고도를 오르내리며 부항령을 향한다. 덕산재에서 두어 시간 거리에 있는 부항령은 경북 김천시 부항면과 전북 무주군 무풍면을 이어주는 백두대간의 오래된 고갯길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부항현(缶項峴)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항령의 오랜 내력을 알려주는 또 다른 흔적은 고갯마루 직전의 산성 터에서도 읽을 수 있다. 벽돌 몇장을 포개놓은 정도의 막돌로 쌓은 산성 터는, 예나 지금이나 금 그어놓고 싸우기 좋아하는 인간사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발길을 조금은 무겁게 한다. 그러나 지금의 부항령(680m)은 고개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대신 옛고개 바로 밑으로 삼도봉터널(618m)이라는 이름의 굴이 뚫려 경북 김천시 부항면과 전북 무주군 무풍면을 이어주고 있다.

겨울의 끄트머리인 2월의 산행은 산의 체(體)를 여실히 보게 한다. 민주지산(1241.7m)의 동쪽 끝 봉우리인 삼도봉을 향하는 백두대간은 더욱 그렇다. 주름이 깊어 벌이 들지 않는 쪽의 기슭에만 남아 있는 하얀 눈은 산의 근육을 선명히 하고, 잎 떨군 나무들의 허허로운 모습은 오히려 곡 찬 느낌을 준다. 모든 것을 버림으로서 모든 것을 가지는 역설의 미학, 바로 겨울 산의 아름다움이다.

이렇듯 겨울 산은, 현상에 대한 집착이나 일체의 고정 관념이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라는 무언의 설법을 베풀고 있다. 그러나 여름 산에서는 이런 느낌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너무 많은 걸 가졌기 때문일까. 그래서 삶과 죽음이 맞닿은 경계에 가 본 사람일수록 눈빛이 깊고 그윽해지는 모양이다.

드디어 삼도봉(1177m)이다. 말 그대로 경북(김천)과 전북(무주) 그리고 충북(영동)이 만나는 곳이다. 그런데 이곳에는 산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있다. 이른바 '삼도봉 대화합 기념탑'이라는 게 그것인데, 산의 경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흉물스러워 보일 정도다.

사실 도가 만나는 경계에 가 보면, 이웃이라는 말 말고는 불화니 화합이니 하는 말이 끼어들 틈이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망국병이라고까지 말하는 '지역 감정'이라는 것은 어디서 연유한 것일까. 감히 단언하건대, 정치인들의 농간이다. 지역 감정을 부추겨 자신들의 잇속만 챙겨놓고는 짐짓 아닌 체하며 산꼭대기까지 괴해치는 억지를 부리는 것이다. 돌 조각을 세워서 화합만 된다면 삼천리 방방곡곡 봉긋이 솟은 데라면 어디고 세워도 좋다. 그러나 그게 그런다고 될 일인가. 심로 해답은 간단하다. 애꿎은 산 꾸아 돌덩이 세워 화합 운운할 일을 저지르지만 않으면 된다.



○민주지산 석기봉 아래에 나투신 삼두마애불.

그래도 삼도봉에서는, 괴상한 조형물을 보며 느낀 실망감을 몇배로 보상받을 길이 있다. 백두대간 길에서 잠시 벗어나 북서쪽으로 한 시간 남짓 걸어가면 민주지산의 석기봉 남서쪽 기슭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석기봉 남서쪽 기슭에 있는 이 부처님은 아주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불두가 앳이어서 이름도 삼두마애불인데, 조각 수법이 소박하여 예술성 따위를 따질 일은 아니지만 질박한 맛이 오히려 친근감을 더해주는 마애불이다. 관단우견에 반가부좌를 한 모습 위로 불두 셋이 탑을 쌓은 것처럼 크기를 줄이며 하늘로 솟구쳐 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수많은 중생들의 비원을 다 들어주기 위한 천백억화신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투신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한다.

또한 삼두마애불 아래에는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 숨이 턱에 닿을 듯 산에 오른 사람들이 숨을 고루면서 갈증을 달래게 해 준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고 한방울씩 고이는 물을 조심스레 퍼담아야 한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물을 담다 보면, 이것이 바로 불유(佛乳)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삼도봉에서의 하산 길은 물맛이 좋기로 유명한 '물한계곡'을 택했지만 물은 보이지 않았다. 계곡이 온통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음장 아래로 계곡물은 들돌을 경쾌한 소리를 내며 쉼없이 흐르고 있었고, 물한리를 벗어난 들녘 부근에서는 벌써 버들가지가 물을 피워 올리며 봄마중 채비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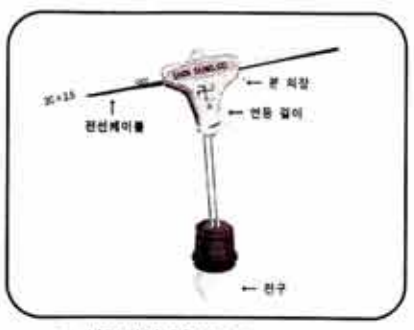
글=윤제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봉축연등 · 법당 기도등용 일체형 전기배선

(기존의 제품에 비해 전선은 굵고 크기는 작게 "T형 일체형 전선" 탄생)
{의장 제 16525호}



▲ 전기배선 시공한 법당



■ 시공전선 전개도 ■

▶ 규격
· 법당용 - 30cm, 40cm, 50cm
· 외부용 - 1M, 1.5M, 2M, 3M

▶ 사용용도
· 사찰 연등용

▶ 특징
1. 일체형으로서 접촉 불량이 없습니다
2. 연등 설치시 편리하게 연등고리를 만들었습니다
3. 불자 기업으로서 卍 표시를 하였습니다
4. 재료 절감과 정교한 제품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5. 설치 수거하실 때 기존의 제품과 비교해 한층 더 수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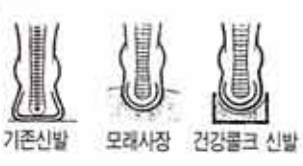
안전하게 제작에서 「시공」까지 깔끔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신성기획
서울시 도봉구 창1동 667-117호
TEL: 02)993-8903~4 / H.P: 011)367-3786
FAX: 02)993-8905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卍行"

卍行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건강콜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 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드반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한 마찰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말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종횡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 · 정맥 · 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아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석구석의 세포로 건너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요산화합물)이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卍行萬行



· 비구스님 用 · 회색, 흑색
· 비구니스님 用 · 회색, 흑색

건강신발 卍行의 특징
1. 구두안쪽의 특수 안창은 천연코르크로 만들어졌습니다.
2. 건강신발은 바닥안창이 발바닥 굴곡 그대로 설계하였습니다.
3. 운동부족으로 인한 평발예방, 관절과 디스크 보호,
4. 신장기능개선

구입문의 0342)742-0296, 742-0297
卍行대표 박동진 합장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급책임: 편집지〉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결혼해 자식낳고 사는 것도 공부

다리 꼬부리고 앉은 사람 펴고 앉아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말 같지만 누가 다리 안 아프게 대신해 줄 수는 없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뛰는 공부며 실천하는 공부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은 그렇게 쉽게 하지만 실천으로 쉽게 뛰어넘을 줄은 몰라요. 나는 여러분에게 재미있게는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재미있고 진실하게 들으면 그것이 바로 진실한 거죠.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하라고 항상 그러죠. 와선이나 입선이나 좌선이나 행선이나 둘이 아니라고요. 하다못해 변소에 똥을 누러 가도 참선이라고요. 요만한 거 하나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모든 거를 자기가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하고 가고 자기가 생각나고 자기가 몸을 움쭉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말을 하죠. 혹시나 시간이 있어서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15분이고 얼마 동안이고 시간 나는 대로 앉았을 때는 반드시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고 으직 그거에만 관하라고요.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너만이 증명해 줄 수 있어!'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장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행하고 살고 갈 때에 어떠한 거든지 닥치는 대로 주인공에다 놓고 '너만이 길을 정돈해서 잘 가게 할 수 있어.' 하고 용도에 따라 관하는 거죠. 천차만별의 용도니까 닥치는 대로 자기 용도에 따라서 적합하게 굴려놓는 것, 이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면 물이 땅 속이든 어디든 사방에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죠. 여러분도 한바다를 만들기 위한 방편이에요. 모두가 보임을 해야 하니까, 한군데로 보임을 해야 하니까.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는 흙물도 스며들어가고 똥물도 들어가고 핏물, 고름물, 구정물, 흙물 어느 물이든지 더럽고 깨끗함이 없이 그저 흘러들어갈 뿐이죠. 흘러들어가서 바다가 되면 그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내려보내죠. 그러면 평등하게 모두 자기 그릇대로 먹을 수가 있죠. 큰 건 큰 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요. 그게 생수예요. 그걸 이름해서 정수라고도 하죠. 그러듯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지금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나쁜 거든지 좋은 거든지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안 되는 거든지 되는 거든지 다 말이에요. 내가 항상 그러죠. 안 되는 것은 '되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놓고, 되는 것은 감사하게 놓고 항상 자기 주처에다가 모든 거를 놓으라고요.

모두들 욕심을 끊어라, 번뇌를 끊어라 이렇게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요. 욕심을 끊는 것도 아니고 안 끊는 것도 아니예요. 쉽게 말하면 '가는 거 잡지 말고 내 앞에 오는 거 마다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죠.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방지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나쁘고 좋은 거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오는 거 거절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마라. 이거는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는 걸 억지로 좇아가려면 그것은 욕심이고 오는 걸 자꾸 거절하는 것은 무능하게 되는 이치죠. 그러니까 오는 거 마다하지도 말고 가는 거 잡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소리죠. 이해가 갑니까?

대중: 예.

스님: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오는 거를 마다하지도 않고 억지로 가는 거를 붙잡아다가 내가 뭐를 할 양으로 그러진 않아요. 하다못해 불사하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도 나는 여러분 앞에 괴롭게 하질 않아요. 단 하나 있다면 '너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것 뿐이죠. 여러분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난 그게 아니죠. '네가 있다면 하고 없다면 그만둬라' 하는 거죠. 허허허. 그렇잖아요. 부처가 있다면 할 것이고 부처가 없다면 못할 거 아니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생활을 해라 이 소리죠. 바다에 파도가 치면 파도 치는 대로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어떠한 용도의 위기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놓고 갈 수 있다면 그건 최고예요.



그림 · 최주현

불성은 수억년 나를 진화 시켜온 장본인 사소한 일 하나도 자성불에 몽땅 맡겨야

거기에는 조금도 거짓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일체 만물이 다 불성이 있거든요. 생명의 근본이 다 있다구요. 하다못해 저 돌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꽃에도 있고 어느 것 하나에도 불성이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놓고 '너가 있다면' 또는 '너가 없다면 못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짜 너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위급할 때도.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거기 몸 안에 있는 생명들이 다 보살로 화해서 응신으로 나투어요. 그래서 정히 급하고 큰 문제라면, 예를 들어 나라의 일이라든가 또는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지구가 잘못 된다거나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면 모든 일체가 즉 저런 나무 하나도 그냥 있지 않고 모두 작용을 해줘요. 나무라면 목신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불성의 영혼이에요. 불성은 가만히 있으면서 영혼은 그냥 몰입해 준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어느 묘지가 많은 데서 거기서도 전부 한마음으로 모아서 응신이 돼줘요. 이 소리 거짓말로 들으시겠죠?

어느 분은 얼마나 못났으면 하다못해 꽃 한 송이 보고도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겠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했대요. 속으로 간절히 관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꿈에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주 예쁜 선녀가 꽃으로 장식을 했는데 그 꽃 이파리 하나하나를 떼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꽃 이파리를 떼더니 그냥 붙여주더랍니다. 그 길로 병이 나았대요. 그럼 그게 꿈일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깃불을 켤 때 말입니다. 전력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꿈일까요? 불 들어오고 나갈 때 전력이 와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은 하지만 진짜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건 보지 못하시죠. 보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라고, 꿈이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생기는 능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때로 '아, 나는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게 아니예요.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길을 튕겨주는 거예요. 실천을 해보라구요.

늠름하고 과감하고 물러서지 않는 그 진정한 마음이라면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겠어요? 자기 자성을 왜 자기가 못 믿느냐구요. 그리고 또 못믿는다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죽는다, 하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요? 죽고 사는 그거를 생각해서 내가 무섭다 두렵다 이러고 물러선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죠. 이거는 육신에 치우쳐서 한 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이죠.

예전에 한번 이런 예가 있었죠. 너무나 배가 고파서 엄금엄금 기어서 쓰러져 길을 잃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옆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나와요, 나와서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일어났어요, 그것도 꿈일까요? 이 마음이라는게 꿈같이 그렇게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꿈이라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에요, 우리 살아가는데 있어서 말이죠.

어느 때에 한번은 이런 예도 있었어요.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꼭 수만명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람 마음이 지극하든 지극하지 않든 알았다고 이렇게 내가 대답을 했으니 이젠 내가 움쭉거리지 않는다면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을 그냥 말로 하는 거보다도 진짜 이게 거짓을 한다면 그 거짓의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차를 타고 오는데 말이에요, 묘지가 그냥 아파트같이 쫙 올라가고 그렇게 많은 묘지가 있더군요, 그래서 거기 묘지에 있는 분들을 다 동원했어요. 이런 말하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그런 말은 보통 여러분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하죠. 그러나 지금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위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주인공으로 하여금 전부 동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일이 성립이 됐고, 그 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내 할 일만 하면 됐지 그 사람한테 고맙다 뭐 어쨌다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남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거나 또 무엇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내가 주고나서 꼭 그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이 공부에는 어긋나는 짓이죠,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한마음의 도리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 이 깊은 뜻을 얼마나 헤아릴지 모르지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성이 수억 겁을 통해서 형성되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진화시켜서 이렇게까지 이끌고 온 장본인이라구요,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 모르시죠, 꼭 알아야 돼요, 못났든지 잘났든지 말이에요, 한 생 살아나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모습, 주어진 삶, 주어진 어려움 이런 거를 누구에게 항의를 합니까? 자기가 몰랐을 때 모두 그렇게 잘못 행한 것이 더 많지 잘 행한 것이 더 많겠습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이 정수에 정수봉이 있는데 그 정수봉은 바로 자동적인 컴퓨터라구요,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자기가 한 것대로 들어가면 바로 앞서 한 건 없어집니다. 아주 쉽게 가르치죠, 여러분은 그냥 관하면 거기에 입력되면서 앞서의 입력은 자꾸자꾸 없어지니까 즉 소멸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든지, 하다못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죠, 왜 없어지느냐? 바로 그 당시에, 관하는 그 당시에 바로 살인을 하는 사람을 건져주니까 그냥 없어지면서 건져져요, 그러면 그게 없어지죠, 무명의 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마음공부라는 게 참 위대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바다가 되도록 내 모든 것을 다 보임해서 더러운 거든지 깨끗한 거든지 다, 바다에 물 흘러가듯 그렇게 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건 다 정화가 된다, 그 물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수증기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온다는 걸요, 그럼 그것이 다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정화가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히 알고 볼 때 그게 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오물이나 세균 덩어리 모두 그런 거죠, 그렇게 정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이 다 그 물을 먹고 살죠, 나무가 크면 큰 대로 먹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살죠, 산길을 걷다보면 요만한 이파리 하나가 나와서 나불나불 거리죠, 그것도 자기 생긴 대로 먹어요, 그래서 평등공법이라고 그러죠.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각종서 시리즈 5

밀교 보리심론



밀교 보리심론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희당대종사께서 깨달으신
당체설법(當體說法)과 연결하여
부처님의 본심을 보지 못하고
문자에만 치우친 모든 분들에게
해탈의 선약이 될 수 있는 지침서이며
현재 불교방송 중이다.
혜정대정사 講解 / 330면 / 값 10,000원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

도서출판 진각종 해인행은 불심가득한 양서를 펴냅니다

진각종서 시리즈
1 인도불교사상사 上 히로사찌야 지음 권영택 옮김/ 274면
2 인도불교사상사 下 히로사찌야 지음 권영택 옮김/ 318면
3 대일경 강요 권영택 옮김/ 230면
4 대일경 강의 권영택 옮김/ 319면

서북 황토 토종 오가피농장

"한중의 오가피는 한마차의 금옥을 갖는 것보다 낫다" - 본초강목(P 1732)

· 황토흙에서 10년이상 지란 무공해 오가피 ·
· 유기농법에 의한 생명력이 가득찬 오가피 ·

KBS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MBC 9시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에 보도 ("오가피 알아봤더니 숍가피") 에 따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 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서북황토 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험생, 고시준비생에게 탁월한 효과 보장.
※여성중앙 9월호 (P636) 다이어트 최고의 작품으로 소개. (경희대 육창수 박사)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와 오가피의 효능에 관한 자료도 보내드립니다.
♣ 제 품 오가피추출액, 묘목분양
♣ 전화문의시 전국 택배 배달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 화 : 0333)682-503, 8588, 682-4965(농장)
FAX : 0333)682-5034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myhome.netsgo.com/baeghj/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꼭 소장하여야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새로운 천년시대에 경진년 용의 꿈은 천년의 운명을 밝게 해줍니다.

⊙ 신기 · 영기를 발하는 佛자 달마(담마대사) 그림, 龍자그림 (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 인터넷 ◆ http://www.mahamall.co.kr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생명의 전화 (주)(02)2242-0331, 2242-0255
(야)(02)2216-0307, (011)471-1996

●주문 신청방법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0343)470-3116 ● TEL:(0343)470-3155

화해 나투고 돌아가니 자기는 없어

☞ 15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나는 중생이 돼서 몰라' 이렇게 주저앉았지만 말고 '나는 더하고 덜할 것도 없는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내가 먹을 것이고 닥치는 대로 할 것이고 닥치는 대로 걸을 것이고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투철한 마음으로 살다보면 나도 남도 건질 수 있죠.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좋게 관해주면 그 사람이 괜찮아질 거고요. 그런데 나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몰라서 애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두는 수가 있거든요. 내버려 둬도 그 길을 터득을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지 내버려 두는 것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너그러운 마음, 지혜로운 마음, 공심으로서 공체로서 공용을 하시라 이겁니다. 공용으로 공식을 하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사는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공생이 아닙니까? 아니 작게 보시면 여러분의 몸체 속에서도 공생하고 있죠. 그리고 공체죠. 내가 봤다고 내가 혼자 볼 수 있나요? 다 여기의 생명들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보는 거죠. 한군데만 무너져도 그냥 쓰러지게 돼있는데요.

그러니 이거는 현재의 일들이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이겁니다. 현재에 지금 그렇단 얘기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에 얽매이지 말고 그대로, 그대로 가는 길에 물러서지 않고 그대로 뚜벅뚜벅 갈 수만 있다면, 정신계에서는 바로 보이지 않는 데서 대처해 나가고, 보이는 데서는 육체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걸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보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안 보이는 게 더 문제거든요. 악성인 세균 하나가 내 몸에 들어와서 주둔한다면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에서 해결하게끔 돼있는 까닭이 바로 모두 공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둘 아니게 대처하거든요. 내쫓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마음법이라는 게 그렇게 아주 기묘하고 광대무변하단 얘기죠.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변경이 돼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성립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로는 가단히 보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어놓고서는 이거 안된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어 놓고 아프다고 그러거든요.

이 몸뚱이는 넉넉하게 그냥, 자기 가는 대르 가게 내버려 두고 그 주인공 하고만 하세요. 몸뚱이를 가지고 아무리 해봐도 병만 나고 스러지게 되지 소용없어요. 이 주인공을 하나 붙들면 몸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붙잡을 수가 있죠. 또 주인공을 믿고 나가는 데는 급하면 하다못해 노간주 나무라든가 저런 나무에도 이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향나무 한 그루만 가져도 그 이파리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파리 숫자대로 만약에 영혼이 한데 합쳐진다면, 그 이파리 하나마다 영혼이 돼서 다 합쳐준다면 무슨 일은 못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가끔 해요. 처음 여기 왔을 때 김장을 해야 할텐데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큰 그릇도 하나 없고 항아리도 없고 그랬는데 그땐 뭐 처음 여기와서 신도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한생각 내기를 '야, 김치는 해먹어야 될 텐데 그릇이 없잖아, 항아리도 없고, 알아서, 당신 알아서 해!' 이러곤 그냥 잊어버렸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배추 뽑아다 놓고 그런 지경에 있으면 아둥바둥했을 테지만 나는 김장을 못하든 하든 그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김장을 못하면 어떻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하게 되면 못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랬는데 그날 밤에 말입니다. 이소저라는 할머니가 청량리에서 사셨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별안간에 그냥 여길 오고 싶더라는 거죠. 김장 때도 됐고 그러니까 그릇도 없을 거다·하고는 큰 그릇 댓 개를 사고 항아리도 다섯 개나 가져온 거예요. 지금은 항아리를 잘 쓰지 않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썼거든요. 자기 집에 있는 항아리를 다 가져오고 그런데 다가 또 쌀 두 가마니 싣고, 그렇게 밤중에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허 참! 있긴 있구만, 허허허. (대중웃음) 있긴 있구만…."하고 말이에요.

지금 저기 울산지원에 집을 짓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네가 있다면 할 거고 없다면 못할 거니깐 그거 1년이 간들 어떻고 2년이 간들 어떻고 10년이 간들 어떠하며 100년이 간들 어떠냐 이거야. 꼭 지으라고 너한테 꼬리표 붙여놓은 게 아니잖느냐 이겁니다. 부처님이 계시다면 할 거고 안 계시다면 안 할 거 아니냐. 그게 바로 네 자성불이다, 이거야. 자성불이 있어야 모두 통하는 거지 자성불이 없으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 알아서 하라고 그랬지, 허허허.

우리가 돈을 쌓아두고 남을 도와주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우린 항상 털털이로 살아요. 털털이요! 털털이 아세요? (대중웃음) 허허허. 사람이 털털이로 살면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도둑 들어올까봐 걱정도 없을 거고요. 왜냐? 마음에 감추는 것이 없거든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더래요. 어느 스님이 그렇게 감추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시줏돈을 불사하는데 쓰진 않고 차곡차곡 모아놓고는 죽었는데 그 돈에 대한



그림 · 최주현

대가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게 한마음 법

마음으로 마음을 끌어야 몸도 따라 와요

착이 붙어서 구렁이가 되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더래요. 큰 구렁이니까 비늘이 있지 않겠소. 그런데 그 비늘 속에는 또 구더기가 사는 거예요. 그 절에 시주한 사람들이 전부 구더기가 돼가지고 웅성거리니 그놈의 몸뚱이가 도대체 살 수가 있어야지. 그 구더기들이 몸에 붙어서는 한다는 말이 줬으면 대가를 내놔라 이거야. 그러고는 그냥 구더기가 돼가지고 웅성거리니 그놈의 몸뚱이가 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절도 망하고 사람도 다 떠나고 그 구렁이 하나만 남아서는 그 참 도를 통한 스님 하나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수 년을 있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참, 오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지 자락을 쥐고선 늘어진 거죠. 바지 자락을 쥐긴 쥐었는데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거죠. 그 스님은 아시지만 딴 사람은 모르죠. 그 구렁이가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천도해달라고 사정사정 하니까 스님은 그냥 우두커니 서서, 그러냐고, 정히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알겠노라고 이렇게 서서 말을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볼 때 '저 스님 미쳤군! 아주 미쳤어, 그냥.' 허허 이러거든요. 그래도 그 스님은 그 소릴 들은 둥 마는 둥하고 그 구렁이를 이튿날 천도를 한 거죠. 그러니 그 구렁이 하는 소리가 '스님 스님! 내 껍데기가 벗겨지걸랑 그것 좀 태워주십시오. 스님이 태워주셔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선 스님은 구렁이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는 그 구렁이가 말한대로 가서 감추어 놓은 데를 파보니까 항아리로 그냥 몇 항아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그때는 엽전이었죠. 그래서 그 엽전을 꺼내서 동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거기다 법당을 잘 지어놓고는 딴 스님이 와서 살게 하고는 떠났더래요.

이 세상에는 참 얘기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냥 소소한 얘기 하나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거를 거짓이라고 하지 마세요.

예전에 산이 돌아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땐가 눈이, 그 허에 눈이 많이 와서 어디 가 잘 데가 없고 해서 소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가지 사이가 이렇게 넓적하게 갈라진 데 거기를 올라가서 앉았다 잠이 들었던 모양이예요. 눈이 좀 녹아야 어떻게 내려갈텐데 그러다 잠이 들었나봐요. 깜빡 졸다가 그냥 잠이 들은 채로 아마 굴러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때 이 앞니 두 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달라요. (오른쪽 볼을 만지시며) 그래서 예전에 생긴 모습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달라졌어요. 이 때문에 무척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전부 순간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는 누굴 원망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모습이라는 것은 잘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잘 못생기게 할 수도 있거든요. 못생기게 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잘 생겼으면 내가 이렇게 중노릇 하고 있겠습니까? (대중스님 쪽을 쳐다보시며) 여기 전부 못났으니까 중노릇 하고 있지, 하하하. (대중웃음) 약삭빠르고 똑똑하고 그러면 이 공부를 못해요, 좀 듬직하고 못났으니깐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되 세세생생을 얻는 거죠. 자유권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고 해서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도 말고 오직 그것도 역시 공부다, 내 식구가 전부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상대적인 스승이 없더라면 내 생활도 없고 공부도 못하니까 말입니다. 또 저런 나무 한 그루도 없다면 내가 그걸 보고서 공부할 수도 없고 깨우칠 수도 없잖습니까? 안그래요? 그러니 요만한 거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내 스승이란 얘기죠. 천칠백공안이 다! 그러니 항상 자기는 없어요. 없는 이유를 대볼까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보는 것도 이것 보면 저것 봐야 하고, 앞서 본 건 벌써 과거로 돌아가고 없어지고 또 봐야 돼요. 듣는 것도 현재에 들었으면 또 금방 다른 거 듣고 그러면 앞에 것이 없어져요.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없어지죠. 한 번 만나면 또 딴 사람 만나야죠. 이렇게 하니 그게 어디 만났다 안 만났다, 봤다 안 봤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습니까. 너무 많이 빠르게 돌아가고 화해서 돌아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 법에서는 나툼이라고 그럽니다. 화해서 나툰다.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것을 나툼이라고 합니다. 화해서 나툰다, 건너뛴다 이렇게요. 그러니 무엇을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랴 이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먹을 뿐이고 그냥 걸을 뿐이고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만났을 뿐이다. 그냥 모두가 공해버렸다. 그런데 아둥바둥 작을 두고 앨쓰고 울고불고 그러느냐 이거죠.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떡하면은 내 몸뚱이 통 안에서 벗어나서 어떡하면은 이 지구라는 통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구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구를 바깥에서 굴릴 수가 없어요. 내 몸뚱이 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몸뚱이를 마음대로 자기가 굴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몸통 안에서 벗어나게끔 하려면 모든 거를 거기다가 몰입하고 거기다 놓고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하고 관하고 '진짜 네가 있다면 이렇게 해봐' 하고 자문자답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은 나오게 돼있어요. 석가세존도 자기 스스로 연등불이 되어 바로 수기를 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수기받은 놈도 없고 준 놈도 없다 이런 소리예요. 자기 자불이 연등불이기 때문이죠.

그대로 먹을 뿐이고 걸을 뿐이고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입니다
모두 공했으니 착을 두지 마세요

질문1: 부산지원에서 올라온 청년법우입니다. 먼저 스님들과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 이 자리 함께 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곧 부처임을, 내 속에 자성이 있음을 끊임없이 일러주시는 큰스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의 여러 도반들과 더불어 세세생생 물러서지 않고 정진할 것을 발원합니다.

스님: 당신 주인공 볼성더러 그래. '네가 형성시켰으면 형성시킨 네가 울지 않게 해야지' 라고 말이야.

질문1: 네 알겠습니다.

스님: 울지 않고 살게 해야잖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매사 거, 요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서 걸리지 말고 다 그렇게 놓으라고. 그러면 그것이 실천이 옮겨지고 그것이 공부가 되고 바닷물이 되고 수증기로 올라가서 평등하게 전부 먹일 수도 있는 거야.

질문1: 스님, 제가 선원에 다니면서 다른 법우들이 가족들과 더불어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참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인연이 닿을 듯 닿을 듯하면서도 인연이 닿지 않는 저의 부모 형제들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 인연이 따로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스님께서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님: 우리가 이런 인연 만나는 것은 천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그런 마음이 얼른 닿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재주를 부려야죠, 집이가. 왜냐하면 어떤 일로 해서 공부하게끔 계기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기를 만들라고. 너무 잘못되게 하면 안되니깐 그저 편안하게 오게끔 자꾸 계기를 만들라 이 소리예요.

집이가 다리를 놓지 않으면 누가 놓겠어요? 그러니까 한생각만 잘하면 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생각을 잘해도 오지 않더라 이러기도 하는데 그건 마음과 마음을 맘대로 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거지 몸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으로 마음을 끌어야 몸뚱이가 오는 거지 말로서 한다면 그건 절대 몸뚱이가 오질 않죠. 오히려 자꾸 달아나가는 걸요. 허허허.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그래서 자식들이나 형제들이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럴 때도, 또 도둑질이나 하고 아주 나쁜 일을 하고 다니거나 이래도 그거를 사해주고 들어올려고 하면 그거를 관해줘야 돼, 그리고 나쁜 말 하지 말고, 본인한테는, 나쁘게 행동해주지 말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붙들고 '둘이 아닌데, 주인공 둘이 아닌데 너도 마음에서 잘 이끌어가야 할 자격이 있잖아' 하고 자꾸 이렇게 관하면 그 주인공이 이끌어주게 돼 있어요.

수차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실천이 그렇게 안되나 봐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남편은 물론이거니와 자식조차도 이끌지 못해요. 그 왜냐? 마음으로 마음을 끌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몸으로 올 때를 바라니 그게 와집니까?. 마음이 싫은데 어떻게 몸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강제로 끄는 거지 그건 자연스럽게 이끄는게 아니죠. 마음이 스스로 오고 싶어서 와야 제대로 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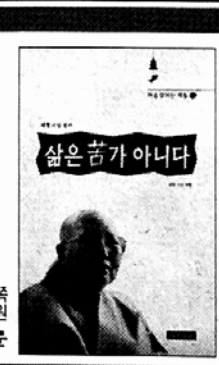
그러니 마음을 끌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관하세요.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까.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그 지원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빨리 끌어지고 또 그것도 싫다고 그런다면 마음으로 자꾸 마음을 이끌어 주도록 해요. 그러다 보면 인연이 되게 돼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부하기에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과거로부터 인연이 없었으면 이렇게 만날 수가 없어요.

어떤 스님은 인연을 찾느라고 대낮에 불을 켜가지고 파고다 공원을 그냥 헤매고 돌아다녔대요. 날이면 날마다 해만 뜨면, 해 떴는데 왜 불을 켜가지고 다니겠소? 3년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청년 하나가 물었어요. '스님은 왜 이렇게 대낮에, 항상 불을 켜가지고 다니십니까?' 하니까 '사람 찾느라고 그러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묻기를 '아, 대낮인데 꼭 불을 켜야만 사람을 찾습니까?' 하니까 '자네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네.' 그러더라는 거죠. 하하하.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닿아가지구선 '아, 인제 오래간만에 찾았구만.' 이러더니 함께 가서 공부를 해서 크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이게 이끌어지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안되면 그건 만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진주지원에서 수련회 때 여러분들 참 고마웠어요. 전국지원 청년부에서 그 길을 만들어줘서요. 딛고 가는 데마다 '아이구, 이 진창에서 돌 하나하나 놓느라고 정말 앨 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느 부모든지 귀한 자식 아님이 없는데 귀한 자식들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 다니라고 길을 만들어놨으니 자기도 이렇게 길이 틔여서 좋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잘 걸어다닐테니까 참 좋을 거예요. 감사해요, 정말!

※위 법문은 1998년 11월 1일 제8회 전국연합청년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강좌

사주 명리학 강의
★ 6개월 완성 ★
초보에서 완성까지(스님직강)
(사주, 택일, 궁합 작명등)
※스님 佛者 환영 · 출가상담 ※
(수강료:월 10만원)
월 · 화 · 수 오후 2시부터
인천 032-504-1387
H.P 011-9046-9903

남녀 비구 비구니 **철학원생 모집**
첫번째 인연은 전생에 있고
두번째 인연은 운명에 있다.
세번째 인연은 이름에 있고
네번째 인연은 궁합에 있다.
오복은 이것을 잘 분석하는
진정한 도인을 만남에 있다.
사주 작명 관상 풍수부적
귀 달 마 사 포 교 원
02)999-4804/02)999-5551
02)921-4804/02)928-5551
051)418-4804
달마 스님

찬불가 피아노 렛슨
前 신라 · 워커힐 방송피아니스트
찬불가, 가요, 가곡, 팝송을
피아노 치며 노래하는 반주법
초보 3개월 완성
⊙찬불가 합창 반주자반⊙째즈반
⊙프로연주반 - 전공자 중심 렛슨
02)824-3517 (서울)
011)742-1999
※피아노 반주자기 필요하신 사찰에 반주자를 보내드립니다

역학 수강생 모집
▶과목: 사주, 육효, 신수, 작명, 관상
▶과정: 기초반, 연구반, 자격증반, 창업반
▶시간: 오전10시~12시, 오후 3시~5시
저녁 7시~9시 (월~금, 주5일)
※ 매주 토요일 관상학 특강: 오후 3시
▶강사: 엄윤문 원장(명학비해 外 20여권 저술)
김회선 선생, 관상학의 달인 신기원 선생
▶기타: 사주감정 의뢰하실 분(3만원 입금후 전화요)
제일은행(105-20-163426) 엄윤문
▶문의: 02)752-9013~4
청운역리학원

전통불교의식 학인 모집
◆ 습의과정 ◆
도량석·쇳송·상단예불·각단예불·불공시식
대령관욕·신중작법·지장청·관음시식
다비의식·특별의식등
◆ 기본반 · 중급반 · 통신반 ◆
◆ 지방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3개월
대한불교조계종 **전통불교의식연구원**
☎ 02)481-4482

구인구직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 비구니스님 2분
· 독채요사 및 독방 제공
· 가벼운 소임에 최상의 대우
· 소임외 개인시간 보장(학원등 · 가능)
울산시내의 고요한 산사
조계사정토사 052)258-9944-46
정토불교대학 수강생 모집 200명.
개강 : 3월 2일

공 채
주부사원 모집
보령제약(주)
고졸이상
35세~55세
10시~17시 근무
02)766-0057
02)3675-0397

새로 창건한
토굴입니다.
절에 쓰시던 법당
쇳송종을 보시하실
스님께서는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012)
1070-6725

●불심깊고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양주 보살 하실 분
모십니다 (40~50대)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30~40대)
목포 011)665-7037

조용한 암자에서
스님의 일을 도우면서
함께 생활하실
신심이 도독하시
처사님 연락 바랍니다.
0671)636-3451
02)591-3090

수양원

수양, 기도하실 분
공부할 학생
기도하시기 좋은
최적의 도량
합천호부근 **청강사**
· 가액 : 월30만원
(약간명 모집)
0599)932-5706

불교용품

◆청학사 수양원◆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보 리 수♣
취급 품목: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0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탈종공고

탈 종 공 고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법하
◇천국사 주지 최해정(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담리 993-6)
◇운용사 주지 임혜암(충북 청원군 미원면 운용리)
◇해광사 주지 임해광(충북 괴산군 청안면 조천리 455)
상기사찰은 귀종단의 종지와 종풍을 따를 수 없어
이에 탈종을 공고합니다.
2000. 2. 14..

기타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화엄경 (80권) -1,400,000원
● 법화경 (7권) - 170,000원
● 사 교 (7권) - 22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0599)932-7252
011)545-7252
김 창 본 처 사

건강에의 신비!
준천 玉山家 옥
고혈압 당뇨, 간경화, 폐암, 관절염, 두통, 정력부족 기타 성인병환자들이 이 옥을 활용하고 효과를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의학적 **자연치유**! 건강상태에 따라 옥제품 사용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주)대일광업 서울 玉山家 (02)-777-0105

귀 민속 불교 백화점 // 전통 민속 국악사
◆본점 1층(50)평 금불상, 금탱화, 승복, 서적, 유가일절
◆2층(50)평 불상, 탱화, 전시장
◆3층(50)평 북, 장구, 농악복, 국악기, 일절
지점 1층(25)평 옥불상, 목불상, 특수탱화,
수입불상 일절 불교, 무속, 민속일절
지점 3층 2001년 국내 최대 메머드 마트형
시설과 도매상권을 갖추어 OPEN
민속불교백화점은 국내초대매장으로
실상품과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본점 (0345)495-4848, 4845, 4846 FAX491-8548
지점 (0345)417-4848, 480-4848, 406-4310, 4311
불교/무속/민속용품, 전국도매
불교용품/불교사/만물사 개업/창업 사업을
원하시는 분 상세히 알선하여 드립니다.

침대가 과학이라면, 돌침대는 자연입니다.
몸이 나이를 느끼십니까? 이젠 돌침대를 쓰셔야 합니다.


◆척추를 반듯하게 교정해 줍니다. ◆몸속 깊숙히 원적외선이 전달됩니다. ◆구석구석 피가 돌게 합니다.
숙면, 쾌변 그리고 氣…
생명에너지 위에서 상쾌한 아침을
◆초장파 시스템으로 몸속 깊숙이 뭉친곳을 풀어줍니다.
◆유해전자파, 정전기를 완전 제거하고, 수맥을 차단하였습니다.
◆한달전기료는 15,000원 안팎(1일 10시간 사용기준)으로 부담없습니다.(2만원)◆평생 A/S로 안심하고 대를 물려 쓸 수 있습니다.
보료 89만원(S)부터, 침대 149만원(Q)부터 : 한정판매
氣 **리빙스톤(옥스톤)** 구입 · A/S : 02)424-9427
서울 송파구 삼전동 91-9 직영점 : 0333)618-7773

보이산차
40년생, 15년생 입하
칠지병치 소탁치
고산 오룡치 철관음
※ 염가판매 ※
전화주시면 견본보내드립
02)911-6798
017)406-6682
茶道里

염불 수행의 비법
· 불교 세계관의 결정체
· 정토신앙의 오묘한 도리
· 창조적인 염불수행
· 연락하시면 염불 수행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361)254-5397

한방건강원
(시설완비)
같이 동업하실 분 구함
(약재에 밝으신 분 환영)
02)2299-6090
02)2296-6062

역학개인지도
⊙책 없이도 손만 펴서 중생의 운명을 인도하는 인생비법을 전수합니다.
⊙간단하면서도 뜻깊은 이 학문은 득도한 스님들이 잘 쓰는 역학입니다.
⊙조상의 길 · 흉과 연 관계를 알아내는 이 비법은 부처님 氣가 임하신 분은 빨리 터득합니다.
태극명리연구원 02)2232-0029
011)695-2320

사찰안내

사 찰 안 내
◆위치 : 서울(전철역)서 10분거리
◆부지 : 5,000평
◆건물 : 대웅전, 관음전, 산신각, 종무소, 요사채, 미륵불, 종각
◆가액 : 13억 8천만원
◆특징 : 천연약수 및 편리한 교통환경을 구비하였고 납골당 및 영탑공원의 요지로 태종대왕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원하였던 유서깊은 도량임.
해동불사 (02)389-7880/(019)390-6110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금산 금산읍
◆대지 75평, 법당 10평,
요사채17평, 욕실, 화장실
◆가격: 전화상담 요망
◆특징: 천연암반수, 산세수려
0412)751-0771

토굴(전원주택) 부지
◆위치 : 경북 영천시 근교
◆평수 : 422평
◆특징 : 산속 맑은 계곡 옆 평지
도로완벽 전기 전화 有.
◆가액 : 3천만원(답사후 결정)
0562)337-5156
※ 오후 연락

사찰 안내
◆위치: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1리 75번지
◆전체평수: 1,950평,
◆대지: 200평
◆법당: 40평 전통한옥(임법당15평)
◆특징: 우리나라 신장군 도량에 고래산이 좌우로 둘러 있음.교통이 편리하고, 신축 법당 기초 암벽 있음.
◆가격: 상담후 결정
011)655-3883

사찰 안내
◇위 치 : 안천
◇법 당 : 20평
◇지장전 : 40평
◇요 사 : 33평
◇부 지 : 43평
◇가 액 : 4억 2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분 무료로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전주 남노송동 병무청5거리
◆대지: 78평, 포교당 최고요지(전통한옥)
◆건물: 대웅전23평, 석자산신불, 후불목금탱화, 철성목금탱화,신중목금탱화
홍송 삼단법당(A급)시설일체 큰방 2개, 별채방3개 즉시법회가능
◆가격: 2억 2만원(전세가능)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 법사님 · 보살님께서는
인연이 되시면 몸만 오시면 됩니다.
062)285-6464/286-8484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북고령
(대구에서 30분거리)
◆평수 5천 8백평
◆건물 :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2동(각 30평씩), 공양실
12평, 남골당, 부도 적지
경관 수려
◆가액 : 답사후 절충
0543)954-0391
011)501-2219

사찰 (급)안내
◆위치: 경기 이천 소재(장호원)
99년 행정수도권 서울 근린지역
◆대지 437평, 법당 27평(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거실1 방3),요사 43평
◆가액 : 4억6천이나 급매로
절충하여 정함 ◆교환가
◆특징 : 1.취락시가지 확정
2개 대학과 약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2.신고속도 건설중 서울50분대
3. 녹지푸른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7)430-9051

사찰(급) 안내
◆위치 : 대구시
◆대지 : 46.5평
◆건물 : 법당 20평, 요사채 25평,
지하 9평,시설 완비
◆가액 : 1억 5천
◆스님외 사절, 장난 전화 사절
015)747-1512
011)517-2954 정법도량

사찰(급) 안내
◆위치 : 밀양면 무안면
◆평수 : 300평(실제 사용한 평수)
◆대지 210평 법당15평(시설완비),
요사채 21평, 방4개(기타시설완비)
◆가액 : 7천
◆스님외 사절, 장난 전화 사절
015)747-1512
011)517-2954 정법도량

절터 안내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동마을
◆부지 1,080평
◆가액 : 상담후 절충
◆특징 : 감나무 10년생 50그루
천연 암반수
0667)772-2050(이병기)
011)390-2050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 이상)
◆ 법당 28평(사무실 포함)
◆ 요사채 55평, 삼성각, 창고,
주차장, 시설일체 A급
◆ 특징 : 계곡과 경관이 좋으며
교통 편리, 별장으로도 적합
◆ 가액 : 2억 3천(절충가능)
0547)436-5036

토굴(급) 안내
◆위치: 충남 청양군
◆총면적: 1,070평, 종교부지로
암자로 등록
◆대지: 124평, 나머지는 준농림지로
무공해 발파노농사 가능
◆실건평: 21평(온돌방2 보일러방1,
부엌, 아궁이 및 창고)
◆특징: 순수 100% 황토방, 남향,
인적이 드문 청정지역
◆가격: 7,800만원(실비)
011)9545-1903/012)1551-1901
용맹정진하실 스님이나, 요양을 요하실 분에게 양도함

토굴 안내
◆위치: 강릉
◆부지: 1800평, 건물 2동
◆가격: 7천만원
011)9782-9544

사찰 안내
◆위치 : 대전 근교
◆평수 : 300여평(년도지 30만원)
◆건물 : 인법당 15평
요사채 22평(조립식)
◆가액 : 2천 9백만원
011)453-9369
042)584-7589

포교당 안내
◆위치: 대전시 선화동
현대 B/D 4층
◆평수: 37평
◆가격: 1천만원
◆시설일체 포함
042)226-2468

사 찰 (급)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 서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 31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 60평, 방 8개, 주방 2개, 지하 요사채 20평, 명부전 9평 단청필
주지실 사무실 기타건물평
◆ 건물 완공은 4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가액 : 8억 5천
◆총 공사비가10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달서구
대단위 Apt 인접지역내
◆ 대지 : 150평
◆ 건물 : 3층 법당 40평
2층 요사 50평, 1층 요사 50평
지하창고 10평, 합계 - 150평
◆ 가액 : 4억 8천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찰
양도 · 양수하실 분 구합니다.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진구 4층
건물 중 4층 (옥상사용)
◆ 실평수 : 55평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50만원
◆ 시설비는 총 투자 4천 5백만원으로
했으나, 2천만원에 양도하고자 함
한국불사 018)273-9390
02)561-7791

포교당 안내
◆위치: 울산시 아파트
밀집 지역
◆건물: 2층 42평
◆가격: 전세2천 (월 30)
◆권리금 · 시설물:1,700만원
011)402-0222

토굴(급) 안내
◆위치 : 경남 함양군 영각사 입구
◆대지 : 450평, 실평수 600평
◆건평 : 약80평, 황토방(大)1,
일반1, 창고1, 주차시설, 조경완비.
◆가액 : 8천만원(실비)
※ 수행승, 요양승 적합.
0591)7474890
011)9601-4228

임법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수원
◆ 건물만 20평
◆ 이주관계로 급
◆ 가액 : 절충
019)408-5264

사찰 안내
◆위치 : 광주광역시내
◆면적 : 330평
◆법당, 요사채, 유치원
◆가액 : 8억(가격 조정됨)
062)224-6696/011)601-6663

불자 세상보기

지역주의 또 들썩…"망국병 뿌리뽑자"

또 지역주의인가. 선거때만 되면 열병처럼 번지는 망국병 '지역주의'가 4·13총선이 다가오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지역주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국민화합운동연대가 공개한 '지역감정 조장발언'을 보면 이같은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 총선은 YS가문과 DJ가문 등 양대 가문간의 싸움이다" "우리가 남이냐. 대구·경북과 부산·경남이 다시 뭉쳐 나라를 살려내자" "충청도의 한을 풀어보자" "강원도는 남좋은 일만 해준다" 등의 발언은 차라리 신사적(?)이다.

"역대 대선에서 OO선생을 찍지 않은 XXX들" "여당이 OO지역 아들·딸들을 조장에서 몰아내고 있다"는 등의 저속한 표현이나 유언비어성 발언 등이 벌써부터 난무하고 있다. 서로가 이런 난리를 피우면서도 상대당(黨)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느니, 지역감정을 조장하느니 하면서 책임은 없다는 식이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이런 짓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할 짓이라 생각하겠는가.

〈백유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던 악귀(惡鬼)가 나온다는 낡은 집에 어느날 대담함을 자처하는 사람이 나타나 하룻밤을 자고 가겠다고 큰소리치고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대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이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먼저 들어가 있던 사람은 귀신이 들어오는 줄만 알고 문을 막았고, 나중에 들어가려던 사람도 귀신의 장난으로 착각해 두 사람은 밤새 싸운 끝에 날이 밝아서야 서로 바라보고 상대가 귀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모든 중생들이 시비를 잘못 헤아리고 분쟁을 억지로 일으킴이 이 두 사람과 다를 것이 없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지역감정도 마찬가지다. 귀신의 실체가 없었듯이 국민 대다수는 실질적으로 '지역감정'이 존재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다만 서로를 귀신으로 여기고 싸운 두 사람과 같은 정치인들에 의해 조장된 '지역주의'만이 존재할 뿐이다.

다행히 국민화합운동연대가 벌이고 있는 '지역감정 조장 추방 캠페인'에 15일 현재 192명의 현역의원이 서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서명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들을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실체를 찾는 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첫걸음이라고 말한다. 자신들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장본인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바로 참된 '자신(我)'을 찾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의 지역주의 부추기기에 단호히 노(NO)라고 답할 수 있는 국민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번 총선이 또다시 과거와 같은 지역대결로 얼룩진다면 국가의 장래는 참으로 암담할 수밖에 없다. 아예 이번 기회에 지역주의를 뿌리뽑아야 한다. 무엇이 '우리'인지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시론

생명이 더 급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정말 소중한 것은 뒤로 제쳐놓고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에 지나친 가치를 두고 있다. 우리의 모든 욕망과 소망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치열한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런 까닭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인 것이다. 그런데 이토록 소중한 생명이 끊임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 온갖 질병과 사고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방귀희
〈숫대문학 발행인·방송작가〉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이식이라는 최상의 생명연장법을 개발해 내게 되었다.

하지만 오랜 관습 때문에 장기는 죽어도 가져가야 할 개인적인 소유물이라고 여겨 장기이식은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허용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지만 장기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 "장기이식 놓고 정부-민간단체 아옹다옹 꼴불견"

그래서 주로 가족들이 자기 장기를 떼어주는 핏줄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혈연 중심의 장기기증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구할 방법이 없자 서로 장기를 나누는 장기기증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장기기증운동은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뇌사의 인정을 주장해 왔었다. 뇌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생명 존중 차원에서였지만 장기이식의 수급이 맞지 않아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포기해야 했고 장기밀매의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어서 오히려 생명을 매매하는 반인륜적인 사태로 번질 우려가 있었다.

이러한 때에 정부에서 뇌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이제 우리 나라도 생명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을 의미하는 역사적인 일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법의 효력이 반감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뇌사판정, 장기적출, 이식에 이르는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을 다투는 장기이식이 늑장을 부리며 생명의 불씨를 꺼트리고 있다.

그동안 몇몇 민간단체들이 나름대로 생명 살리기에 최선을 다했고 장기이식에 대한 경험도 꽤 축적된 상태인데 이제와서 정부가 알아서 할테니까 너희들은 빠지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법 집행만 잘 하면 된다는 안일한 관료주의적 편견주의의 작태이다.

우리는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급히 달리는 앰블런스를 보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준다. 왜냐하면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생명을 담보로 놓고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 생명줄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환자를 서류에 도장찍는 일 때문에 기다리게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살인행위이다.

민간단체와 의료기관들도 철저한 정부감독아래 이식자·피이식자 선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원활한 협조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당사자 입장에서 인식해야 한다. 국민은 이 문제를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장기기증은 하나의 저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불자들은 장기기증을 하나의 불사(佛事)로 실천해야 한다. 장기기증은 불교의 무소유 사상을 펼 수 있는 가장 불교적인 보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흥청 샴페인

고급외제옷 없어서 못팔 지경
해외여행 급증…여행수지 적자

한벌 가격이 최소 150만원을 웃도는 외제 고급 여성복이 다시 한국에 밀려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백화점 두 곳에서는 없어서 못팔 지경이라고 한다. IMF 이후 한국에서 철수했다가 재진출한 외제 브랜드가 현재 최소한 20개를 웃돌고 있으며, 앞으로 2~3개월내 1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금년 1월 의류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93.3%나 급증했다는 산업자원부의 통계수치는 벌써부터 '흥청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해외여행 발길이 급증한 것도 좋은 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여행수지가 4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 외환위기 이후 위축됐던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수지가 27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달에만도 해외에 나간 우리 국민은 43만2000명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수 31만2000명에 비해 12만명이나 많았다.

〈일체루경〉에 "음식과 옷은 향락의 수단이 아니라 소중한 몸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옷은 더위와 추위를 막아 몸을 보호하고 치부를 가리며, 음식은 깨달음과 불성을 성취하기 위해 수양할 때 양생의 목적으로 먹는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사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과연 150만원짜리 옷을 입고 해외여행을 안방 드나들듯 해도 되는 처지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은 15일 김포국제공항 2청사 대합실에서 여행객들을 상대로 호화 해외여행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모유서 다이옥신 다량검출

식약청 발표 "섭취허용량 24~48배"
"수유기간 짧아 아기엔 영향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우리나라 산모들의 초유(初乳·출산 후 처음 나오는 모유)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이 하루 섭취허용량의 24~48배 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벨기에산 쇠고기의 다이옥신 파문으로 전세계가 홍역을 치른 이후 모유에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정부기관의 공식보고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모유 내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더라도 모유는 먹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거의 모든 식품이 다이옥신에 오염된 상황에서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는 것은 필연적이며, 모유를 먹이는 기간이 길어야 6개월에 불과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이번 발표에서는 유통중인 탄산음료, 식혜, 커피, 과일주스 등 캔식품과 끓는 물을 넣은 유아용 젖병에서도 다이옥신과 같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돼 있는 비스페놀A가 검출돼 환경오염을 줄여야 하는 과제를 새삼 확인시켰다.

노원구 매주 월요일 '칭찬의 날'로 정해

서울 노원구가 매주 월요일을 '칭찬의 날'로 정해 명랑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를 만들어 칭찬운동을 구민들에게까지 확대한다고.

칭찬에 인색(?)한 불자들도 이 기회에 스님은 신도에게, 신도끼리, 신도는 가정에서 '칭찬하는 날'을 정해보자. 그리고 직장마다 가정마다 〈법구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한마디쯤 걸어두는 것은 어떨까.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해킹극성…전세계 몸살

인터넷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7일 야후와 바이닷컴을 시작으로 8일에는 이베이, CNN, 아마존이, 9일에는 ZD넷과 이트레이드와 같은 해외 유명 사이트들이 몇 시간씩 접속불능이 되는 인터넷 사상 초유의 대형사고가 났다.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다. 최근 2년간 해킹사례가 예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업체나 대학뿐 아니라 연구소와 정당, 국가기관까지 해킹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킹의 파장이 큰 이유는 전세계가 인터넷시대로 진입하는 시점인데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아무도, 그 어느 나라도 해킹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해킹을 막는데는 기술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새로운 방어기술이 개발되면, 곧바로 해커들이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이제 지구촌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으며, 해킹은 공공성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감시체제 강화도 중요하지만 정보화 시대의 윤리관에 대한 교육이 더욱 시급하다.

'계율을 지키며, 공동체를 유지하려는 구성원들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불교의 공동체 이념은 무엇보다도 사이버 윤리가 절실함을 말해준다.

◆◆◆ 목재 전용 ◆◆◆
방부·방충·방염·방수제



◀ 오대산 상원사

WOOD-SEAL (방염·방부·방충·방수)

효과
1. 문화재,사찰 등나무 주택, 한옥 주택/코팅막이 형성된 이후에도 통기성이 97% 유지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에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다. (나무의 뒤틀림 방지)
3. 페인트의 내구성이 요구되는 목제품(단청)
4. 나무의 자연미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무명코팅을 하는 목제품(무광택)

용도
·나무표면 내부로 침투해 그곳에 뿌리를 둔 코팅 보호막을 형성 (U/V코팅기능)으로 산성비에 강함
·최소한 5년 보증의 부패방지 ·방염성을 가지게 한다.
·반 영구적인 방수(수용성, 침투성 2~3m/m)
·곰팡이, 이끼 발생방지(흰개미), 해충 침입방지
·통기성(Breathing) 양호·1회 시공으로 경비절감

MOLD-MOVE (곰팡이 이끼 제거제)

효과
MOLD-MOVE(곰팡이 이끼 제거제)는 환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이다. 본 제품은 버섯, 진균류, 곰팡이, 이끼, 백선, 해조류 등을 제거할 수 있다. 본 제품은 도포시 주변의 어떤 화초나 수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100% 자연 소멸되는 제품이다.

용도
·목재: 문화재, 사찰, 한옥, 등나무 주택, 목조 주택, 나무(과수, 관상수) 기타
·콘크리트: 벽돌, 대리석, 화강석, 모든 석재 등
·기타 사용범위: 공항의 활주로, 운동장, 수영장, 정수장, 테니스코트, 방파제, 항만, 부두의 창고, 잔디밭 등 이끼가 발생하는 곳에 적용함.

MOLD-MOVE로 곰팡이, 이끼 등을 제거하고 WOOD-SEAL 및 PRO-SEAL로 처리하면 수년간 재발생하지 않는다.

15주년 경·향·하·우·징·폐·어
2000.2.24~29 COEX 3F - F411

동화특수산업(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589-8 현대B/D 208
TEL:02)3474-6232(代) FAX: 02)3474-0144 http://www.dongwhaind.co.kr

우주의 생명에너지
레이키(REIKI·靈氣)법 전수

레이키법은 기공수련과는 관계없이 누구나 단시일내에 氣 능력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속성식 氣 능력자 양성의 과학입니다. 레이키법은 우주에 가득차 있는 무진장한 레이키(사랑=빛=우주생명에너지=氣)를 언제나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원할 때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기법입니다. 레이키법은 소주천을 수련하지 않고도 바로 대주천의 천지 기운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튠먼트(ATTUNEMENT)등의 비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레이키에너지는 어튠먼트를 받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흐르고 사람, 동식물, 생활용품 만물(환경도 포함)에 작용합니다. 미국, 유럽, 캐나다, 중남미, 일본, 동남아, 오스트랄리아 등지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면 21세기에는 레이키에너지는 세계 인류의 각 가정에서 하나의 필수적인 생활도구로서 자리잡혀 갈 것입니다. 의료비의 절감과 생활의 질의 향상 등의 인류의 복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이키에너지 입니다. 레이키법은 좋은 기공법과는 서로 도울이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기공 수련을 하는 사람이 레이키법을 전수받으면 능력이 향상하고 레이키 요법가도 기공수련을 하면 능력이 향상합니다.
나(박희준)는 지난 20년간 氣, 정신세계분야의 번역저술가로 활동해 오는 동안에 10권 이상의 저서와 100권 이상의 번역서를 내면서 여러가지 기공수련도 해 보았으나 氣 치료 능력자는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도 부터 여러차례 외국을 내왕하면서 폭넓게 레이키법을 전수받고 상당한 氣치료 능력자가 되었을 뿐만아니라 세계에 손색없는 레이키법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레이키법을 전수받을 것을 권합니다.

·모든 생활인, 모든 의료, 건강사업관련자
·만성병 환자 자신이나 그 가족, 정신적·영적으로 성장하려는 분

⊙ 교육기간: 제3단계까지 2~5일소요 70만원⊙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 / 725-2311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 피어선빌딩
♣인터넷 홈 페이지 - http://www.Reiki.co.kr

한국불교예술대학 제2기 수강생 모집

(사)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한국불교예술대학에서는 불교예술의 계승발전과 불교예술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무형문화재 제9호(작법무예 기능보유자) 김해강 큰스님의 범음과 법무를 전수하고자 제2기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불교전통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과정 : 기초과정
2. 모집인원 : 선착순 12명
3. 교육기간 : 각 과정 3개월 기본(1년 과정) - 개강 3월 2일
(매주 수, 목, 금 또는 토 오후 2시~4시: 사정에 따라 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4. 교육동참금 : 매월 10만원
5. 특 전 : 전 과정 이수자 중에서 성적우수자는 심사를 거쳐 전공에 따라 자격증 수여함.
6. 문 의 : 02-962-1666, 969-2410

모집부분	과 목	강 사
기초과정	범음, 범패 강의 및 의식실습, 육법공양,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중등과정	바라작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다게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고등과정	사다라니법무 강의 및 의식실습, 각종의식 강의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대학과정	삼귀의작법무 영산제 및 운심게 작법무	김진하 교수
	법회의식(석문의범) 강의	한정섭 박사
	찬불가 및 가사음악(회심곡, 백발가, 왕생가 등) 특강	한정자 교수 박태여 선생

사이버 포교 '아줌마 바람' 기대

정부 내달부터 주부인터넷 교육

메일 홈쇼핑 신행 안방서 '클릭'

교육 요리 건강정보도 공유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교육이 오는 3월2일부터 1개월 20시간을 기본단위로 내년 8월까지 매달 운영돼, 신도의 대부분이 여성인 불교계의 사이버 포교에 한몫 거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가 실시할 주부인터넷교육에 참여하면 무료 교재에 3만원의 싼 수강료로, 주부들이 집에서 e-메일을 주고 받고 전자상거래로 홈쇼핑을 하며 필요한 정보 자료를 검색할 수 있게 된다. 또 편리하고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사이버 가계부'를 쓰는 방법도 가르쳐 준다.

현재 가정경제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부들이 정보 사회에 적응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 착안, 정통부가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는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20.1%를 차지하고 쇼핑몰 가운데도 여성이 2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조사결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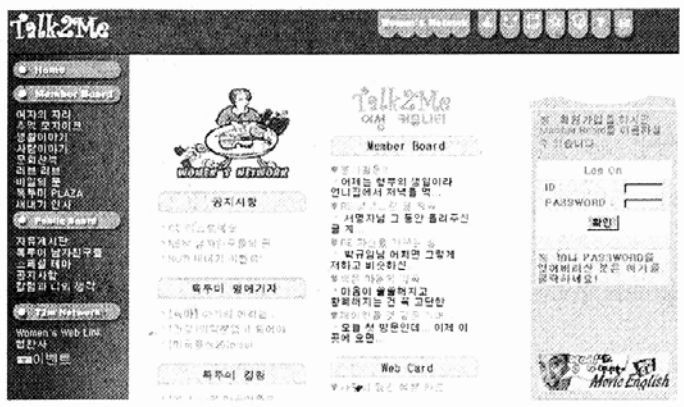
온통 인터넷 인터넷 하는 세상에서 웬지 뒤쳐져 소외된 것 같아 두렵고 불안함을 느끼게 하는 주부들에게 인터넷 활용은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자아찾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줌마'들이 집에서 인터넷 바람을 한번 일으켰다 하면 아마도 예전의 치맛바람은 비교도 되지 않을 생활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바람이 불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자녀 유학정보를 인터넷에서 얻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쇼핑도 하고, 자녀교육 건강 요리 취미 등에 관한 살림의 지혜를 공유하고, 재택 근무로 돈을 벌며, 때로는 사이버 대화도 즐기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가정 경제의 주체인 여성이 인터넷 쇼핑에 눈을 뜬 까닭은 합리적인 쇼핑체계라는 이점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에 비해 제품비교가 쉽고 쇼핑시간이 줄어들며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인 쇼핑이 가능하다는 인터넷의 특징이 여성을 전자 쇼핑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여성전용 인터넷 사이트 '톡투미'(www.talk2me.co.kr)는 평범한 전업주부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을 이용해 자기만의 시간과 일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여성개발원 준비위원 한길수씨(제일약품 감사)는 "물리적인 힘 보다는 지적능력이 중시되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여성이 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불교신자의 대다수인 여성불자들의 인터넷 진출을 통한 신행혁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여성전용 인터넷사이트 '톡투미'(www.talk2me.co.kr)화면.



한편 3월부터 실시되는 정보통신부의 주부인터넷교육은 전국 대부분에서 주부이기만 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참가희망자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보면된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김흥국장학재단은 19일 여의도 맨하탄 빌딩에서 동료 연예인들이 동참한 가운데 설립을 위한 현판식을 개최했다.

김흥국 장학재단 여의도사무실 현판

김흥국장학재단은 19일 여의도 맨하탄 빌딩에서 재단 발족을 위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법현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국장스님을 비롯해 동산반야회 김재일회장, 동료가수 남진, 김세레나씨, 현정화 前 국가대표 탁구선수 등 40여명의 사부대중들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서 김흥국씨는 "현재 자신의 CD 판매 수익금과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은 독지가들의 후원금 등을 통해 모금되고 있다"며 "빠르면 9월안에 불우 청소년들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참을 호소했다. 김주일 기자

다이어트엔 걷기가 보약

부작용 없고 몸매 날씬…하루 30~60분 적당

건강상식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성인병의 주범이다. 하지만 막상 다이어트를 통해 살을 빼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식사량을 줄이는 다이어트는 영원히 지속하기 어렵고 부작용도 심각하다. 힘든 운동으로 땀을 많이 빼는 것도 체력을 키우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체지방을 없애는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힘들지 않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걷기가 최고라고 말한다. 걷기는 신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력있는 몸매를 가꾸는 데도 좋은 효과가 있다.

지방을 소비하려면 적어도 15분이상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한다. 1일 15~20분부터 시작해 익숙해지면 5~10분씩 늘리는게 좋다. 걷는 시간은 30분 이상 60분 이하가 적당하다. 60분이상 걸으면 허리나 발의 관절이 상할 수 있다. 아침에 걷기를 할 때는 에너지원으로 당분을 먼저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당분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부정맥 등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다.

시선은 똑바로 팔은 크게 흔들며 배는 끌어 당기고 발끝은 바깥쪽을 향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걷기 자세다.

새싹불자 취재연수

'연꽃' 기자단 28~29일

새싹불자들이 언론 포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이하 대불어)는 지난해 12월부터 어린이 포교지 〈연꽃〉에서 활동할 어린이 기자를 모집해 28일부터 1박2일간 울산 정토사에서 '제1기 어린이 연꽃 지도자 기자단'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에 뽑힌 연꽃 어린이 기자 74명이 참가할 이번 행사에서는 취재와 기사작성, 카메라조작법, 기자와 잡지제작 등 기자의 기본 소양에 필요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실시된다. 또 불교기초교리에 대한 강의와 기립사, 감은사, 석굴암 등 사찰 순례도 곁들여진다. 한편 어린이 기자들은 〈연꽃〉에 일부 기사를 게재하게 된다.

김주일 기자

모범 청소년에 장학금

한국불교청년회는 3월1일 오전11시 신촌 달마선원에서 '3.1절 및 마음의 전화 개통 5주년 기념 우수 모범 청소년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성적우수자 및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초등학생 1명, 중고생 7명, 대학생 1명 등 총 9명을 선정해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게 된다.

우리산 살리기 등반대회

조계사 청년회는 3월5일 도봉산에서 '우리산 살리기 한마음 등반대회'를 갖는다.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우리산을 살리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등반 이외에 오물수거와 짚으로 나무싸기, 산신제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02)735-3724

청소년단신

명성여중 교직원 연수

종립학교 명성여중(교장 안은자)은 22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교직원 연수를 실시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첫 걸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학교 예절 △표정관리 및 인사예절 △의복 예절 △공중도덕 예절 △부모 교육 등에 관해 김이주(서일대학)교수가 강의했다.

강화 선원사 예술제

강화 선원사 학생회는 19일 강화문예회관 2층 소강당에서 '제2회 선원사 예술제'를 열었다.

학생회원들이 직접 사물놀이·댄스·연극 등을 제작·기획한 이번 행사에서는 1부 주지스님의 법문에 이어 2부에서는 △사물놀이 △댄스 △합창 △연극 '춘향전' 등이 펼쳐졌다.

청주 디지털상담실 봉불

디지털 청소년 열린 상담실은 12일 상담실내 법당에서 '부처님 봉안법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불자 및 자원봉사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는 천수경을 비롯한 경전 봉독과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중고PC · 도서 기증 받아

월곡청소년센터(관장 이남재)는 저소득 결손가정의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인터넷 교실 및 도서실 운영에 필요한 중고 PC와 도서 등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

또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생필품도 접수받고 있다. (02)918-3543

여성개발원 창립 가시화

세미나 열고 세부사업 확정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인자) 연구·교육 분과위원회가 3월3일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개발원 창립을 위한 각 분과위 움직임이 분주하다.

회향·실행분과위원회는 28일 오후7시 포교원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개발원 창립이후의 분과위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연구·교육분과위원회도 3월3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불교여성개발원 창립 이념과 사업방향'을 주제로 한 자체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연구·교육분과위원들이 전국의 스님, 일반신도, 교사, 청장년층의 불자들을 만나 수렴한 의견과 지적사항 등이 소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밖에 출판·홍보분과위원회는 불교여성개발원 소식지 발간 준비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불교여성개발원 창립준비위원회는 3월8일 오후7시 최종회의를 열어 불교여성개발원 위상 및 향후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생활정보

사발면에 티백 넣으면 별미

생활 끓이기는 쉽지만 느끼한 맛이 흠인 사발면을 맛있게 먹으려면 물을 넣을 때 티(茶)백을 함께 넣어보자. 기름기가 제거돼 깔끔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다.

인터넷 매춘 감시사이트 첫선

인터넷 인터넷상의 미성년자 매춘 행위를 감시하는 '사이버캅'이 등장했다. (주)이오테크(대표 김기홍)는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관련단체와 연계해 네티즌들이 인터넷 미성년자 매매춘을 신고, 제보할 수 있는 '나이트피아'(www. nightpia.co.kr) 홈페이지를 최근 개설했다.

내달부터 금강산생수 시판

건강 북한 금강산지역에서 생산된 생수를 내달부터 맛볼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7일 "국내 기업인 (주)태창이 3월중 금강산 샘물을 반입할 계획"이라며 "최근 태창과 북측간의 협의를 통해 샘물 반입에 걸림돌이 돼왔던 생수제조업체 표시문제가 태창의 요구대로 '금강산 샘물 총회사'로 결정되는 등 현안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국제기구시험 TEPS 도입

교육 정부는 올해 각종 국제기구에 파견할 초급전문가(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선발 1차시험을 오는 3월26일 서울대에서 TEPS로 시행키로 했다.

JPO는 우리 정부의 비용으로 각종 국제기구 사무국에 파견돼 정규 직원과 동등한 조건으로 근무하는 전문 인력을 말한다. 정부는 국제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유엔본부 사무국을 비롯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아동구호기금(UNICEF),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노동기구(ILO) 등에 14명을 파견해왔다.

지진대피 민방위 필수과목

행정 앞으로 지진대응 요령이 민방위교육의 필수과목으로 들어간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7일 지진재해 경감 대책을 본격 추진키로 하고, 지진 발생에 따른 단계별 행동지침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지진 피해 경감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신축 구조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진각 평화의 종 관광상품

문화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의 종'이 관광상품으로 개발돼 실향민 등 일반 시민들도 요금을 내면 종을 칠 수 있게 된다. 파주시는 평화의 종을 관광상품화하기로하고 3월1일부터 실향민을 비롯해 결혼기념일, 회갑, 칠순 등 각종 기념일을 자축하는 일반 시민이 돈을 내고 종을 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부·농·산·은·슬·기·재·배·약·초·만·을·생·산·하·고·있·습·니·다.

'97.11.6/'99.9.2 MBC-TV '고향은 지금'
'99.9.24 KBS-TV '하시 내고향'
'99.7.10 SBS-TV '모닝와이드 방영'

자연은 거짓이 없습니다!

무병장수를 바라는 마음 황토삼백초에 의지하십시오 …

유기재배



신묘장구대다라니 150만 독을 지송하고
찾아낸 약초 황토삼백초
7년을 정성들여 생산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대신주 위신력은 마른 나무 가지에 싹이나서 열매가 열리게하거늘 하물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일체 환고는 이 다라니로 고치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라니와 더불어 유기재배한 약초로 효과가 뛰어나도록 하였습니다.

■ 삼불초의 놀라운 성분들 ■

황 토삼백초에는 '수용성 탄닌' 플라본계 물질, 유효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를 맑게하여 혈행을 돕고 모세혈관을 보호하며,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체액순환과 해독작용을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또 장의 연동력으로 숙변 등 몸안의 노폐물을 신속히 제거하고 변비를 없애줍니다.

■ 이런분들께 좋습니다 ■

▶ 항상 머리가 개운치 않고, 의욕이 없으신분
▶ 만성 피로에 시달리시는 분
▶ 속이 편치 않으신 분
▶ 통변이 시원치 못하신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민하시는 분
▶ 식수공해가 걱정되시는 분
▶ 팔다리가 아프신 분



大悟居士
(김봉서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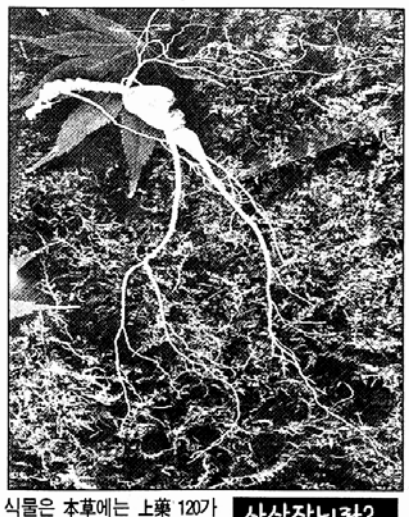
차나 숭늉처럼 드시고 자주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황토삼백초는 믿을 수 있습니다. 손님 접대나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삼부농산
SAM BU Farrm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 0598)945-0075~7 http://www.teafarm.com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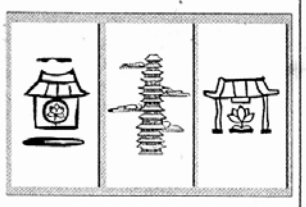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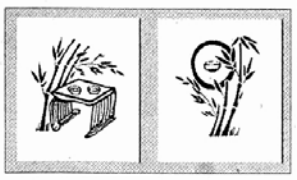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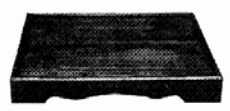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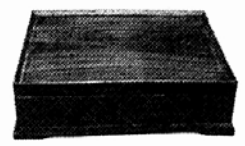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찻 상



규격 52×32×8cm/ 재질- 소나무
가격:₩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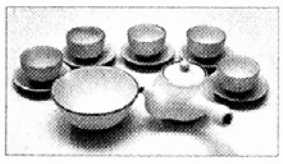
규격 50×39×15cm/ 재질- 소나무
가격:₩126,0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고산다기



가격:₩120,000

생광석 108염주



가격:₩35,000

불성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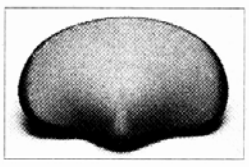
가격:오전₩90,000 / 세작 ₩50,000
중작₩30,000 / 대작₩2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0가우스 X 4개

참선명상방석



규격 39×43cm 가격:₩27,000
삼풍산업 1998-025009
의장등록 142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착주보호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 문양 : 운문사 대웅전 창살
가격:₩5,000

반야심경 향로



(기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반야심경 종차걸이



· 색상 : 검정 · 금색
가격:₩9,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걸 망



색상 검정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비디오테잎



· 1부 제대령
· 2부 관욕
· 상영시간 각 60분
■ 가격: 각 ₩25,000

윤순희 화선지

· 한지매수 20장
· 규 격 146cm X 74cm

한지는 섬유질이 많아 질긴 게 특징이며 통풍이 잘되 오랜세월이 돼도 변질이 없어 서예, 고서 공예 등으로 많이 쓰여 진다

■ 가격: 각 ₩30,000

주목단주



■ 가격: ₩16,000
■재질: 주목 ■사이즈: 24mm

건강 옥 염주



정옥 · 백옥(小) ₩30,000
정옥 · 백옥(大) ₩40,000

반야심경 지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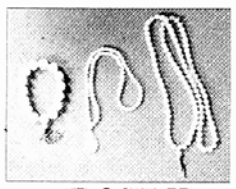
재질 대리석 석분(몰가루)
규격(大)
높이 32cm×지름 25cm
₩220,000
규격(小)
높이 25cm×지름 20cm
₩140,000

금동미륵반가사유상



■코팅 · 골동품 ₩350,000
■개금 ₩580,000

수암옥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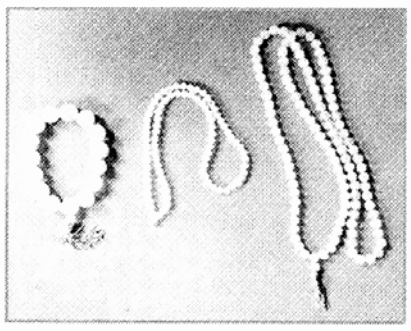


재질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마하몰 미니정보

·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염주(念珠)



수주(數珠) · 송주(誦珠) · 주주(呪珠)라고도 하며 여러가지 재질로 만든 일정한 수의 작은 구슬을 꿰어 하나의 원을 만든 것을 말 하는데 보통 불.보살에게 예배할 때 손목에 걸거나 손으로 돌리기도 하며 염불이나 절을 하는 횟수를 세는데 쓰기도 하고, 기원할 때 또는 번뇌에서 벗어나려 할 때에도 염주를 헤아린다. 불교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법구의 하나인 염주는 원래 보리수 열매를 잘 골라 108개를 꿰어 둥글게 만들었으나 이후 여러가지 고귀한 재질로 만들기도 한다. 경전에 나타나 있는 염주의 재료를 보면 다라니경에는 금 · 은 · 구리 · 수정, 목환자 · 보리자 · 연화자 등이 있고, 제불경계섭진실경(諸佛境界攝眞實經)에는 놋쇠 · 구리 · 수정 · 진주 · 연화자 · 금강자 · 보리자,향나무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08염주가 가장 많으며 그 재료로는 보리자 · 목환자 · 율무 · 금강자 · 수정 · 산호 · 향나무 등으로 만들고 있고 염주알의 수에 따라 108개로 한 것은 108번뇌를 장회하고 끊음을 표현한 것이며 절반인 54개로한 것은 보살 수행의 계위(階位)인 4선근,10신,10주,10행,10회향,10지를 의미하며 그 절반인 27개로 된 것은 소승의 27현성을 표시하는 것이라 한다. 단주,108주,1080주,3000주 이외에도 염주알의 수,크기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의 염주와 현대인의 선호도에 맞춘 다양한 모양의 염주들이 제작되고 있어 사부대중 모두에게 언제,어디서나 가까이 하는 불교인의 수행,생활 용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 생광석백팔염주 35000
- 백옥백팔염주(대) 40000
- 청옥백팔염주(대) 40000
- 백옥백팔염주(소) 30000
- 청옥백팔염주(소) 30000
- 염주열쇠고리세트(낱개 3개) 9000
- 전단향백팔염주 8mm 16000
- 천은사보리수백팔염주(소) 40000
- 주목백팔염주 10mm 14000
- 모감백팔염주 24000
- 보리수납작백팔염주(중) 30000
- 흑단백팔염주 10mm 16000
- 집대추백팔염주 10mm 7000
- 월성백팔염주 8mm 10000
- 대추백팔염주10mm 4400
- 향소원백팔염주 10mm 4000
- 향백팔염주 10mm 2400
- 야광백팔염주 8mm 2200
- 인조호박백팔염주 8mm 2000
- 인조자만옥 백팔염주 8mm 2200
- 인조취만옥백팔염주 8mm 2000
- 아이보리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밤색원색백팔염주 8mm 1600
- 벽조목백팔염주 10mm 40000
- 수암옥염주세트 98000
- 어린이백팔염주세트(낱개4개) 4000
- 연밥백팔염주 24000
- 금강주염주세트 30000
- 도실백팔염주(일반) 24000
- 도실백팔염주(특) 40000
- 마노백팔염주 8mm 40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 12mm 24000
- 수정백팔염주 8mm 50000
- 수정컷팅백팔염주 8mm 90000
- 자수정마노백팔염주 8mm 70000
- 호안석백팔염주 8mm 50000
- 생광석단주 10000
- 벽조목단주(소) 18000
- 연밥단주 5000
- 금강단주(노랑) 9000
- 금강단주(특대) 11000
- 금강무가공단주 9000
- 대추연꽃단주 30mm 20000
- 도실단주(일반) 6000
- 도실단주(특) 10000
- 모감단주 5000
- 목탁단주 7000
- 보리수단주 9000
- 사진단주 25mm 46000
- 사진백팔염주단주세트12mm 24000
- 월성단주 12mm 7000
- 주목단주 24mm 16000
- 태양주단주 6000
- 향단주 23mm 4400
- 향달마단주 30mm 5000
- 향반야심경단주(일반) 7000
- 향부적단주 30mm 5000
- 향소원단주 30mm 5000
- 흑단단주 15mm 6000
- 주목단주 20mm 14000

달마순금판 액자



상반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달마순금판 액자



전신
규격 27×32cm (액자크기) 10×15cm (순금판 크기)
· 실용신안등록 24266호
가격: ₩12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한국불교총람



4×6배판/ 1,114쪽/ 양장제본
가격:₩120,000

바위속에 숨은부처



비디오 테잎
가격: ₩13,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연좌대불상 진주



규격 25×30cm 가격:₩100,000

석가모니 탄생관련 성품



성품내용 성염(은색입), 성토, 성수, 성주 (인증서 첨부) 가격:₩148,000

박범훈 작곡집 1(CD)



가격: ₩9,500

날개 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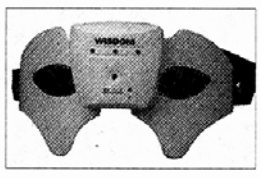
가격: ₩9,500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눈안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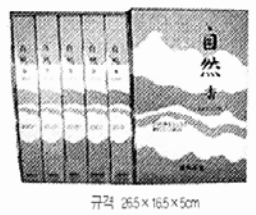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자연향101



규격 26.5×16.5×5cm
가격: ₩10,000(개당 ₩2,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끔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무궁한 부처님의 가피를 존경하는 분께, 사랑하는 사람에게 "온마음 가득한 불심", "온누리 가득한 자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불심 보리수 잎 성불 인사장

부처님께서 성도(聖道)하신 바로 그곳 인도의 불교성지(佛敎聖地)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에서 직접 모셔온 이 성불 인사장으로 마음 아리도록 소중한 분들의 새 천년을 열어주지 않으시렵니까? 부처님의 여러 모습이 그려진 보리수 잎은 그림과 같이 고급 색한지 위에 모셨고 본 보리수잎 성불인사장은 잎의 훼손을 피하기 위하여 우송용 봉투를 포함, 1매씩 포장되어 있습니다. 본 상품은 한장 한장 정성들여 만든 수공예 인사장 입니다.

NO 1 가격: 2,000

NO 2 가격: 2,000

NO 3 가격: 3,000

NO 4 가격: 3,000

NO 5 가격: 3,500

NO 6 가격: 3,500

NO 7 가격: 3,500

NO 8 가격: 3,500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果)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풋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감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즐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 또는 물품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이렇게 들었다 — 바른언행

'대통령 막내아들 호화저택 거주설' '386세대 국회의원의 전력설' 등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 지도자들간에 모략과 중상이 난무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13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흑색선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끊임없는 정쟁과 국회의 공전, 장외투쟁, 그리고 남발된 정치권 상호간의 고소고발 사태를 지켜보면서 정치에 질려버렸던 국민들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폭로전에 또다시 아연실색하고 있다.

부처님은 "사람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며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 지키는 것보다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다. 지도자는 누구보다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정직하고 바른 말로써 믿음을 주어야 한다. 경전 속 부처님 말씀을 통해 정직한 말, 바른 행동의 소중함을 살펴본다. 〈편집자〉

나와 남이 이롭게 말을 하라

▨거친 말을 멀리 함으로써 저를 해치고 남을 해쳐서 피차 함께 해 입는 일을 면하고, 좋은 말을 익힘으로써 저를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남과 내가 널리 이롭도록 해야 한다. 〈대아미타경〉

▨마땅히 거친 말을 하지 말지니, 말을 할 때는 마땅히 보(報)를 무서워해야 한다. 악이가면 회가 와서 도장(刀杖)이 몸에 들어 온다. 말을 하게 되면 선하게 하여 종소리가 울리는 것 같이 하라. 〈법구경〉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가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닦아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워서 피차가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사람이 세상에서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입 지키기를 사나운 불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사나운 불꽃은 세상의 재물을 태우되 나쁜말의 불꽃은 일곱 가지 성스러운 재물을 태우는 까닭이다. 이같이 온갖 중생의 재앙은 다 입에서 나오는 터이므로 입이야말로 몸을 해치는 도끼요, 몸을 죽이는 칼날이니라. 〈보은경〉

▨정정되지 않거나 뜻이 없거나 이익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언제나 법다운 말 그대로 쓰면 이는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잡아함 십선경〉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과 남에대해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보살의 바라이죄에 해당한다. 〈범망경〉

▨사람은 태어날 때에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찍고 만다. 〈숫타니파타〉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등경〉

▨말 많은 자를 남들이 두려워하거니와, 그중에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간질하는 말이다. 이간질하는 말을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은 과보(果報)를 받는바, 스승·친구·형제·처자·노비(奴婢) 등의 친목이 다 견고해서 남이 깨지 못할 것이다. 〈정법염처경〉

▨세상의 온갖 사람들은 살아 있는 동안 혓바닥에 저절로 도끼가 생기게 되어 있다. 즉, 입으로 여러가지 악한 말을 함으로써 도리어 그 몸을 스스로 해치고 있는 것이다. 〈기세인본경〉

▨만약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입으로 나쁜 말을 한다면, 이는 항상 날카로운 칼로 제 몸을 베고 있는 격이 된다. 악인을 찬양하고 선인을 헐뜯어서 입으로 온갖 허물을 짓는다면, 능히 낙과(樂果)를 초래하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로 여러 성자를 헐뜯으면, 알부옥 속에서 백천년을 지내야 한다. 〈근본유부비나야율〉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심하고, 거칠은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진실한 말이니, 너는 진실한 말을 익히도록 해라." 〈대집경〉

▨망령되게 남을 증거하여 죄업에 들어가게 하지 말며, 남의 나쁜 말을 전하지 말며, 말로 서로 다투어 남의 뜻을 증상하지 말며, 듣지 않는 것을 들었다고 하지 말며,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 〈아함정행경〉

▨어리석은 사람이 어진 사람을 깔보고 헐뜯더라도, 어진 사람으로선 끝내 성내거나 미워하지 않고 그 헐뜯음과 꾸짖음을 참아가면서 수순하는 말을 해야 한다. 〈대장엄존경〉

신행 캘린더

2월23일 (수)

■자민련불자회 신년하례법회=자민련불자회는 오후2시 중앙당 강당에서 경진년 신년하례 대법회를 봉행한다. 법어는 조계종 용주사 주지 정락스님이 할 예정이다. 02)703-9996

■정토수련원 '깨달음의 장'=정토수련원은 27일까지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 제158차 '깨달음의 장'과 마음이 자유롭고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제87차 '나눔의 장' 수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581)571-6031

2월24일 (목)

■조계종 성보박물관 협의체 실무자 교육=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26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에서 '성보박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유물관리 이론과 포장실습교육 등 실습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02)739-1830

■재가연대 '종교의 미래' 월례포럼=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오후6시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종교환경(지형)의 변화와 종교의 미래'를 주제로 2월 월례포럼을 개최한다. 02)725-6231

■이동준 사진전=인도의 생활 풍경과 자연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은 이동준 사진전이 부산 영광도서 영광갤러리에서 열린다. 051)816-9500

2월25일 (금)

■군불교진흥회 회장 취은식=군불교진흥회는 오전11시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제2대 회장 취임식을 갖는다. 02)749-5135

■봉은사 백일기도 입재=봉은사는 오전9시30분 미륵전에서 미륵 제9차 백일기도 회향 및 제10차 기도 입재법회를 봉행한다. 02)511-6070

■능인선원 영가 합동천도재=능인선원은 오전10시30분 영가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합동천도재를 봉행한다. 02)577-5800

2월26일 (토)

■김흥국 장학재단 설립 기념법회=김흥국 장학재단 설립 기념법회가 오후2시 불교방송국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02)786-4011

■불교레크리에이션 포교회 정기총회=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오후7시 조계사 원심회 법당에서 제16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불교교레크레이션 포교의 보급과 여성문화 강좌 개설 등을 논의한다. 02)738-7860

■한국석불연 석불친견 기행=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1박2일의 일정으로 경북 안동지역의 석불을 친견하러 떠난다. 출발은 오후3시 서초구민회관 앞에서 한다. 02)760-5171



◇묵묵히 서 있는 돌부처의 잔잔한 미소는 불자들에게 절로 머리숙여 예경하게 만든다.

■부산불교교육원 우리문화기행=부산불교교육원은 강원도 양양 낙산사에서 새벽 예불을 모시고, 홍련암에서 일출을 맞은 뒤 울진 불영사, 월송정, 영덕 충효당을 둘러보는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051)466-4080

■터사랑 경주 답사=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무박 2일로 천년의 고도 경주 답사를 떠난다.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 선생의 안내로 기림사, 장항사터, 진평왕릉, 황룡사터, 분황사, 경주박물관, 안압지를 순례한다. 02)725-1284

■다불사 산나물채취와 방생법회=다불사는 1박2일의 일정으로 강원도 영월 일대 산나물 채취 및 동강변 방생법회를 봉행한다. 0373)372-1930

2월27일 (일)

■푸른모임 상락원 자원봉사=맑고향기롭게 푸른모임은 장애아동시설인 상락원을 찾아 자원봉사활동을 벌인다. 오전11시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1번 출구에서 만나 함께 떠난다. 02)741-4696

2월28일 (월)

■용진신행회 3대 관음성지 순례=용진신행회는 1박2일의 일정으로 관음성지인 여수 향일암, 남해 보리암, 옥과 관음사 순례를 떠난다. 02)2278-9695

2월29일 (화)

■목동 청소년회관 감수성훈련=서울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실은 오전10시부터 오후1시까지 상담실에서 성인남녀 10명을 대상으로 감수성훈련을 실시한다. 02)2646-8341

법회안내

봉은사서 법문

무진장 스님은 27일 오전9시30분 강남 봉은사 초청으로 대웅전에서 법문한다. 02)511-6070

동화사 초하루 법문



성덕 동화사 주지는 3월1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초하루법회를 맞아 한달만에 시민 및 불자들을 위해 법문한다. 053)985-4404

2월 다보법회



묘봉 신원사 주지는 23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봉행되는 다보법회에서 법문한다. 02)703-0108

'화랑오계' 강의

혜명 군불교진흥회 부회장은 27일 오전10시 전곡소재 호국 보현사에서 '원광법사 화랑오계'에 대해 법문한다. 017-277-6758

'증도가' 법문



권영일 전 국불교스카우트지도자회 회장은 26일 오후3시 다보빌딩 15층에서 '증도가(證道歌)'에 대해 법문한다. 02)2292-8502

게시판

알림

▲철야 용맹정진 참선캠프=법왕정사 수행원은 매주 토요일 저녁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철야 용맹정진하는 참선캠프를 실시한다. 수행원은 3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현대식 수행법당과 요사채, 샤워실, 공양실을 갖추고 있다. 0338)771-7745

▲여성 취업교육=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24, 25일 양일간 5층 강당에서 만 30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중졸 이상 취업 희망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간병인, 산모 도우미 교육 및 탁아모, 파출 위생교육이 있다. 02)2282-1100

모집

▲불전국역 연구과정 신입생=불전국역연구원은 25일까지 2000년도 연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화엄학 특강〉 〈능엄경 연구〉 〈외전 연구〉 〈산스크리트 문법 기초〉 〈육조단경〉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02)929-9991

▲밑반찬 자원봉사자=부천원종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32)677-0108

▲무의탁 어르신 도우미=불교사회복지회 재가노인복지봉사센터는 무의탁 재가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및 차량봉사, 주택 및 전기, 전자제품 수리를 도와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3)474-9748

▲새신도 관리봉사자=봉은사 새신자 전법회는 새내기 불자가 절에 찾아오면 접수에서부터 사찰 기초 예절 지도 및 절 소개 등 봉은사 신도로서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안내를 도맡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516-5651

▲이미용봉사자=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무의탁·독거어르신들에게 미·미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2)2203-3677

▲레크리에이션 봉사자=연꽃마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으로 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1회. 02)365-3677

▲박물관 도우미=통도사박물관은 전시실 안내, 안내실 관리, 출판물 발송, 영어 일어 등 외국어 도우미를 기다린다. 0523)384-0020

▲구인사 근무 여직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교육부는 신심이 돈독하고 참신한 여직원을 구한다. 고졸이상으로 약간의 PC이용 실력을 갖추면 된다. 0444)423-7100(교환315)

▲여사무원=지하철 포교 게시판 '자비의 말씀'을 운영하고 있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설 법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풍경소리'는 함께 일할 여(女) 사무원을 구한다. 자격은 30세 미만의 고졸이상 미혼여성. 02)736-5583

강좌

▲기초교리강좌=장경사는 오는 3월2일 3개월간의 불교기초교리 강좌를 개설한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342)743-6548

▲정토불교대학 생활불교=서울, 부산, 대구, 청주, 대전 등 전국 5개 지역 정토불교대학이 동시에 신입생을 모집한다. 불교사상, 교학, 수행, 신앙지도, 환경, 통일, 교육, 상담 등 바른 불교·생활불교·쉬운불교 구현을 위한 강좌들이 다양하게 개설돼 있다. 02)587-8994

▲불교강좌=영광원전·영광읍 청년회 분교는 불교학 개관, 부처님 생애 등의 불교강좌를 연다. 접수마감은 29일. 062)375-7633

▲레크리에이션 2급 전문지도자 과정=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는 2급 전문지도자 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습은 3월10일부터 6월4일까지 매주 월·금요일 오후7~9시에 진행된다. 강좌는 종합실습을 포함해 불교레크리에이션론, 음악, 리더쉽, 찬불가요 율동, 심성계발 등 18가지에 이른다. 02)738-7860

▲사물놀이=관문사는 사물놀이 제2기 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입학식은 오는 7일 오전11시 2층 소강의실. 강좌는 초급반부터 7개반에 걸쳐 세분화돼 진행된다. 02)3460-5300

▲요가지도자 양성과정=한국요가연수원은 제1기 요가지도자 양성을 위한 강좌를 연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02)888-5087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현대화·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8년간 2천여동문 졸업·41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3월 2일 입학·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16주)	◇불교경전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유식사상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상용 의식
	2학기(12주)	◇선사상 ◇중국불교의 이해 ◇비교종교 ◇구사론(아비달마) ◇불교상용의식 실습
2학년	1학기(18주)	◇부파불교의 이해 ◇한국불교의 이해 ◇불교사회학 ◇기신론 강해 ◇우리말 불교의식
	2학기(12주)	◇법화경의 이해 ◇반야사상과 대승불교 ◇보살사상의 이해 ◇화엄사상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이봉순박사 김호귀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김은희박사, 박경준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 원 자 격	제 출 서 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불교학 통신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서류전형 합격자 거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2월 29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달마심기특별비전도 (대한민국 통일서예대전 입상 달마도 작품)

달마심기비전 도법으로 새태양의 運氣로 소원을 이루는 상서로운 달마조사를 모시면 어느곳이든 흉한 터, 묘터, 집터, 사암사찰, 사무실, 수맥차단 및, 사업장, 공부방, 초상, 상문, 이사, 개축, 개업, 사업, 학업 일체 마장소멸 등 흉가라도 길흉화복으로 모든 재앙을 차단하는 신출괴몰한 후천달마 비전도법과 태양의 氣가 담긴 달마도를 소장하시어 건강, 장수, 부귀영화하시고 소원성취하시고 삼제팔란 소멸하소서.

새천년 대운맞이 眞人道通大法會
새인류 진인도통 출현으로 사명자 주인되소서

새천년 새태양 새경신 眞宗大道通과 瑞星의 大運으로 동방박사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올 시대가 온것을 庚辰年 庚申日 子時에 만천하에 공개하노라. 五景明星 하늘의 법도와 상서로운 대운을··

새태양 새인류 운기도법으로 세계를 지도할 수 있는 서성의 빛 五景明星 대운을 한몸에 받아 지혜를 증득하여 큰서원을 얻으며 이 광운은 천년에 단한번 떠오르는 왕운을 얻어 새천년을 이끌어갈 능력과 상통천문, 하달지리 유불선, 대도통 용맹정진 법회가 3월 2일 밤 자시부터 3일 亥時까지이며, 이기도는 일년에 6회가 들었고 2개월 60일마다 새운기비법으로 하늘땅만이 감추어진 대비밀장을 본인의 선덕 미묘법으로 증득하는 법도이며, 2000천 후천달마도법이 동쪽으로 온 까닭은 약 4백여년전 서성의 오경명성 100년의 성은으로 서구라파에 문화문명과 그당시 영국과 토이기는 해적의 나라가 오늘을 만들었고, 미국의 광범위한 나라에 약 200년동안 瑞星의 천문도법 성은으로 세계 강대국을 만들었고 패허가 된 일본에 명치때까지 천부적인 서성의 대운으로 오늘을 만들었으며 이제는 우리대한민국으로 五景明星 하늘의 대운이 바로 당신을 기다리는 오는 3월 2일 庚申日 자시와 오시에 하늘의 법도로 고루 복되게 천운과 천복을 받는 기도가 庚申일인 것이며 이수행 기도는 인연이 부족한 이에게는 마장으로 입문이 어렵고 입문한 공덕으로 하늘에서 받들어주며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제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아 하늘에 소리를 듣고 말문과 수행에 천안통, 천리통, 타심통을 대은하게의 해인도법원방각의 잣대를 얻어 전생금생 내생해탈법으로 잡신과 병마에 끄달리는 마장들을 제도하는 수준높은 덕을 얻어 만사형통과 후천증상운에 들어있는 우리나라가 새천년부터는 瑞星 五景明星의 대운으로 수명이 늘어나 120세에서 160세까지수명이 연장되는 연성법인 인간수명이 늘어나며 이 기도의 입문한 공덕으로 건강하고 道를 통하여 남은 여생에 道通군자 및 사명자가 되시어 중생 구제하소서.

※ 이 기도의 인연은 일생의 단 한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입 제 : 이천년 3월 2일 밤10시-3일 亥時시까지 양일간
●회 비 : 1년 회비 60만원 - 매회 10만원 분할가능
●온라인 : 농협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전 화 : 02)821-6622/야 923-3110/ 016)239-3110
(1호선 노량진역 하차, 2호선 신림역1번출구, 버스 85,25,95,26,303 모자원고개 하차)

雄祖院. 육경신도통회
대한불교 약사선원

天龍眞人 泰日法師

5년간 경전 14만권 법공양

광주 광륵사 능인법사 18일 회향 법회

"초심자에 유익"…지장경·약사경등 보급

한 사찰이 5년동안 무려 14만권의 경전을 간행, 교도소와 군부대, 신도들에게 법보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전포교 제일도량'이라 칭해도 부족함이 없는 화제의 사찰은 18일 오전10시 '지장경 10만권 간행 회향법회'를 거행하는 광주의 작은 사찰 광륵사(주지법사 능인).

60여년전 故고익진 동국대교수의 어머니였던 여화스님이 창건한 광륵사의 주지 능인법사는 지난 95년 정월 대보름 때 '〈지장경〉 10만권 간행' 원력을 세우고, 〈지장경〉을 자체적으로 번역, 10만권을 간행한 것을 비롯 〈무량수경〉과 〈약사경〉을 각각 2만권씩 간행해 경전을 필요로 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해 왔다.

처음 경전을 간행할 때는 신도 5백여명에 불과한 사찰 재정으로는 어려워 4~500만원의 보시금이 모일 때마다 3~4천권의 경전을 간행해 왔다. 하지만 현대적으로 풀어쓴 경전이라 불자들의 반응이 좋아 요즘엔 교도소 등에서 매일 1통의 감사 편지를 받을 정도로 호응이 좋다.

주지 능인법사는 "초보자들이 불교를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독송하며,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지장경〉을 우선적으로 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능인법사가 경전 보시에 나선 것은 스승인 故 고익진 동국대 교수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평소 고익진 교수는 〈아함경〉〈반야경〉〈법화경〉을 근본 삼부경으로 삼아 경전을 독송하고 참선과 기도를 곁들이는 독특한 수행법을 강조해 왔기 때문.

지금도 광륵사는 매주 수·목요일 오전 10시에 신도들을 대상으로 교리강좌와 경전·참선공부를 진행해 올 정도로 경전 공부와 그 실천을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에 고스란히 전해져 오기에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공부의 기본이란 생각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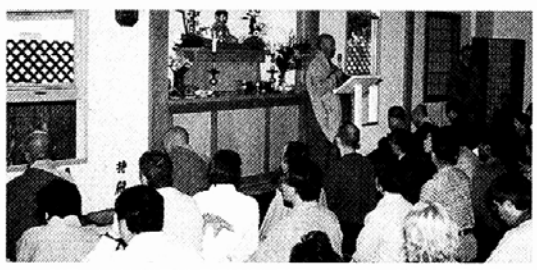
불교약사회와 함께 〈약사경〉을 보급하는 등 경전 보시에 남다른 원력을 지닌 능인법사는 각 경전이 10만권씩 간행될 때마다 회향법회를 개최해 새로운 발심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불교약사회 지도법사를 맡고 있는 능인법사는 고익진 교수의 제자들이 만든 신행단체인 일승보살회 서울 정릉법당에서도 경전을 가르치고 있다.

광륵사는 10만권 간행불사가 끝났지만, 〈지장경〉 유포 회원을 모집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법보시의 공덕을 나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동참방법은 한달에 1인 1구좌(3000원) 은행자동이체를 이용하면 된다. (062)222-780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광륵사 주지 능인법사(왼쪽에서 두번째)가 일승보살회 경전공부 모임에서 회원들과 함께 〈아함경〉을 독송하고 있다.



◇현웅스님의 법문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미국인들.

정신공황 미국인 참나로 인도

개원 10돌 맞는 육조사

하루 30~40명 참선지도

교회는 텅 비어가고 대신 '선(禪)'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버클리의 육조사(주지 현웅)가 현지인들의 참선수행 도량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로 창건 10주년을 맞는 육조사는 매일 아침 6~8시, 저녁 7~8시에 염화선실을 개방, 30~40명의 사람들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참나를 찾는 참선삼매에 들고 있다. 토요일에는 아침 9시30분부터 11시까지는 참선, 이어 11시부터 12시까지는 정기법회를 열어 주지 현웅스님이 법문을 한다.

미국내 개원한 한국사찰의 대부분이 교민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데 비해 육조사는 불교를 알고자 하거나 참선을 배우고 싶어하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다.

"세계 어느곳보다 풍족하게 살고있는 미국인들이지만 정신적인 허전함과 공허감을 치유하고자 육조사를 찾아옵니다. 티벳이나 일본 사찰을 다니며 스승을 애타게 찾다가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불교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주로 공부하는 법, 마음다스리는 법 등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하고 매우 진지하게 공부합니다."

토요일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5시간씩 자동차를 타고와 참석하는 사람도 있다고 소개하는 현웅스님은 평소 궁금해 하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실생활의 예를 들어 답을 준다.

15년전 전법의 원을 세우고 미국으로 간 현웅스님은 시애틀 보스턴 워싱턴 등 곳곳에서 참선지도와 법문을 펴 그동안 3천여명이 넘는 현지인들을 참선수행으로 인도했다.

영국에서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Qi Magazine〉에 'Zen Master'로 크게 소개되기도 한 현웅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참선으로 진리를 찾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한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apia.com)

충북 방생코스 마련

도내 12개 양어장 연계

충북도는 11일 불교 신자들이 방생(放生)을 편리하게 하도록 돕고 이울러 관광과 농산물 쇼핑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생관광코스를 마련했다.

도는 충주호를 방생지역으로 정하고 도내 12곳의 양어장과 연계해 충주호에서 방생하길 원할 경우 자라 숭어 메기 등 토종 방생어류를 현지까지 운반해 주기로 했다. 또 충주호와 단양팔경 등을 유람하며 방생하기를 원할 경우 유람선의 배삯을 30% 할인해 주기로 했다.

충북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진천군 이월면의 관상어단지와 천태종 본산인 단양군 영춘면의 구인사, 육쪽마늘로 유명한 단양읍 단양마늘상설시장 등을 관광 및 농산물 쇼핑코스로 정해 방생 관광객들이 원할 경우 안내를 해 줄 계획이다. (0431)220-2765

김재경 기자

약수암 장월만스님 입적



충북 진천 태고종 약수암 조실 장월만스님이 12일 숙환으로 입적했다. 세수 78세 법납 50세. 월만스님은 50년 17세의 나이로 법주사에서 정희스님을 은사로 출가, 월정암·성암사·약수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영결식은 16일 약수암에서 종무원장(葬)으로 엄수됐다.

이경숙 기자

불교복지보건대-동인노인병원 결연

간병인 파견 호스피스 봉사

부산 불교복지보건대학(학장 혜도)은 14일 부산동인노인병원에서 부산동인노인병원과 자매결연식을 개최하고 의료봉사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황보선 부학장을 비롯한 불교복지보건대학 실무자와 오성광 부산동인노인병원 이사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함께 한 이날 자매결연식에서 혜도 학장스님은 "이번 자매결연이 본교와 부산동인노인병원이 힘을 모아 노인 복지를 앞당기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불교복지보건대학은 부산 최초의 노인전문 병원인 부산동인노인병원과의 자매결연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노인들에게 호스피스, 간병 봉사자, 복지봉사자, 건강관리사 등의 의료봉사원을 파견하여 질 높은 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 또한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의료기술 실습의 장으로 부산동인노인병원을 활용,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가능케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병원측은 자매결연을 통해 불교복지보건대학의 우수한 강사진을 초빙, 부산동인노인병원내 자원봉사자 교육, 간호사 보수교육등을 실시해 양질의 봉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양측은 월 1회의 실무자 회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구체적 실천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051)647-655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갑사 괴목 대신제



충남 공주 갑사(주지 장곡)는 7일 계룡면 갑사등 주민 5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갑사 괴목앞에서 괴목대신제를 거행했다.〈사진〉 무술시범과 풍물공연, 윷놀이, 주민노래자랑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20년전부터 주민들의 마을 행사로 내려온 괴목대신제에 스님들이 처음으로 참가해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재경 기자

부산불교교육원 8일부터

참선 기초교실 열어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은 3월8일부터 매주 수요일 6개월과정의 제28기 참선기초교실을 연다. 회주 대성스님과 성재도 원장이 선의 이론과 역사, 참선의 자세, 바른 호흡법, 생활 속의 참선법을 지도한다.

부산불교교육원은 또 3월10일부터 매주 금요일 경전공부(중앙승가대 교구 홍선스님의 〈신심명〉 강의), 3월7일부터 매주 화요일 제29기 입문자교육도 6개월과정으로 실시한다. 경전공부는 홍선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이 〈신심명〉을 강의한다. 입문자교육은 불교예절, 사찰구조, 기초교리, 예불문, 부처님 생애, 수행방법을 지도하고 수계식도 개최한다. (051)466-4080

종단소식

조계종

화엄학림 제4회 졸업식

전북 남원 실상사(주지 도법)는 25일 오전 10시30분 화엄학림 강당에서 화엄학림 제4회 졸업식을 거행한다. 실상사는 또 19~20일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연대'의 제2기 지리산 열린학교를 열었다. (0671)636-3595

해운정사 수륙방생천도재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선원장 명언스님)은 18일(음력 1월 14일) 해운대 달맞이 온천 축제의 일환인 정월대보름 전야제 행사로 '영가고혼 수륙 방생천도 대재 법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는 조실 진제스님의 법문에 이어 불교의식공연(불교합창단, 국악연주회, 바라춤 등), 새천년 정월대보름 맞이 전야등불 밝히기, 영가 천도 및 용왕방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태고종

전북종회의장 향산스님

제 10대 전북교구 지방종회를 이끌어갈 종회의장에 유향산스님(전주 보문사)이, 부의장에 최혜산스님(완주 관음사)과 유남장스님(정읍 법인사)이 각각 선출됐다. 1월 18일 열린 집회에서는 승려 및 교임 연수교육 강화등 올 사업과 예산 4천4백만원을 확정했다.

봉원사 금강산 방생법회

서울 신촌 봉원사(주지 인공)는 대중스님과 신도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일부터 8일까지 업춘불공과 정월기도를 갖고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간 정월불공 회향기념 금강산 방생 및 순례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

복지 홍보지 이름 공모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사업을 크게 홍보하고 신심을 키울 수 있는 홍보 계간지의 발간을 앞두고 잡지 이름을 공모하고 있다. 사회복지 소식지의 느낌이 나면서 불교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으면 된다. 3월5일까지. (02)575-3467

진각종

열반절 불사 봉행

부처님 열반절(진각종에서는 양력으로 함)을 맞아 서울 탑주 심인당 등 전국의 심인당에서는 각해 총인, 성초 통리원장을 비롯 신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15일 법신부처님의 자비행을 기리고 불국토 건설을 다짐하는 열반절불사를 봉행했다.

원정각 대종사 6주기 추모

밀각심인당(주교 회정)은 원정각대종사의 열반 6주기를 맞아 25일 오후 2시 밀각심인당에서 추모불사 및 다례공양을 봉행한다. (02)2292-8730

조동종

중앙종회 임시회의

중앙종회(의장 제공)는 25일 오후 2시 총무원 약사전에서 종회의원 전원 및 중앙 간부 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종회를 열고 종단의 현안을 논의한다.

금룡사 빙엄사 자매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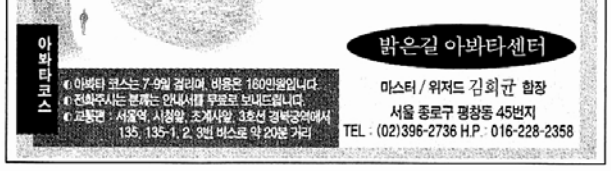
옥불 금룡사 주지 행천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1월 22일 베트남 국립사찰 빙엄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육신불이 모셔져 있는 안광사 주지 능탐스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약사여래종

총본산 문수사 건립

1월 10일자로 창종하고 강서구 화곡본동 원불사에 총무원을 개설한 대한불교 약사여래종이 경북 김천시 감문면 광덕리에 총본산 문수사를 건립한다. 약사여래종의 총무원장 직무대행에는 범환스님(원불사 주지), 교무부장 중원스님, 교화부장 법영스님, 재정부장 선월스님, 사회부장 화엄스님, 재무부장 백산스님 등이 각각 임명됐다. (02)695-6689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 016-228-2358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2000학년도 법사과정 경전 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요 일	과 목	교 수	내 용
월요일	밀교의세계	허일범교수(진각대)	밀교개론과 대일경·금강정경의 핵심사상강의
화요일	법화경	박종교수 (동산대)	대승경전의 꽃 법화경! 화엄귀일사상 강의

※ 경전개설과목 : 아함경, 반야경, 금강경, 유마경, 법화경,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비교종교, 중론, 혜심밀경, 대일경, 금강정경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 출 서 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30명) 통신반(30명)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0년 2월 7일~ 2000년 3월 4일(토) (서류전형)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9시 (본연구원 법당)

3. 개강일시 · 2000년 3월 6일(월), 7일(화) 오후 7시

4. 입 학 금 · 일십만원

5. 졸업자격 · 3년과정(매주 2경전)을 이수한 분에게 전법사를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 732-1206~8 / FAX 732-1207

법사양성 전문도량 동산불교 전문연구원

2000년도 도시생활 포교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개강일시 : 2000년 3월 4일 (토) 오후2시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한글불교의식 Ⅰ(전반기)	한글불교의식 Ⅱ (후반기)
·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 송주 …… 장엄염불	· 백일·돌·생일의식과 결혼의식 · 장례의식 (1) …… 일반의식 · 장례의식 (2) …… 임종·매장·화장의식 ·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정규반 50명	① 한국불교의식 희망자 ② 포교당 운영자	① 입학원서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2월 7일(월)~ 2000년 3월 3일(금)	매주 토요일 오후 2시~3시 (동산법당)

3. 입 학 금 · 일십만원

4. 특 전 ·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5. 원서 교부·접수 · 본 연구원 사무국 ☎ 732-1206~8/FAX 732-1207 (10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

동산불교 의식교육원

보살행 두 불자



곽호성씨

"복지시설로 써달라" 5천만원 상당 집 기증

평생 노력해 모은 재산과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서원으로 모든 돈을 승가원에 흔쾌히 보시한 두 불자가 있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현대중공업에 근무하고 있는 곽호성씨(46). 지난 14일 아내 김금숙씨(43)와 상의 끝에 지난 92년에 매입한 대전 대덕구 소재 32평짜리(대지 72평) 집을 복지시설로 써 달라며 승가원에 기증했다.

시가로 5천만원이나 하는 집을 흔쾌히 보시한데에는 곽씨의 가슴아픈 사연이 있다. 가난때문에 손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보낸 둘째 아들을 못내 잊지 못하시던 어머니 석순덕씨는 곽씨가 7살때 세상을 떠났다. 곽씨에게 남은 것은 가난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84년 달동네 단칸방을 시작으로 결혼생활을 시작한 곽씨는 아내 김씨와 함께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다. 그리고는 4년만에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응암동에 작으나마 내집을 마련하고, 92년에는 지인(知人)의 소개로 대전에 집 한 채를 마련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벗어난 가난. 하지만 어머니의 한과 그리움에서만큼은 벗어날 수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몇년째 조계사에서 백일기도도 올리고, 91년부터 소쩍새마을 회원으로 가입해 불우이웃을 도와왔지만 부족하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런 차에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접해온 곽씨는 대전에 사놓은 집이 이런 불우이웃들이 마음놓고 살 수 있는 복지지설이 됐으면 좋겠다고 결심했다. 그것이 곧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집이 어머니 이름을 딴 '순덕 나눔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모두 다 부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며 "승가원에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 써주기만 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곽씨는 이번 부처님 오신날에는 제등행렬에 참가해 중학생인 두 아이에게 아빠 엄마의 뜻을 말해줄 생각이다.



이성균씨

푼푼이 모은돈 1천만원 소쩍새 마을에 입금

부산에서 청양산업이라는 조그만 중소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성균씨(46)는 지난 설 전날 소쩍새 마을 계좌에 1천만원을 입금시켰다. 평소 소쩍새마을을 돕겠다는 발원을 그대로 실천한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소쩍새 마을을 방문한 것은 98년. 그 방문에서 소쩍새 마을에 살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도움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푼푼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러던 차, 발원한지 1년이 지날 무렵 뜻밖의 돈이 생겼다. IMF 이후 거래업체들이 어려워지면서 받지 못했던 미수금을 우여곡절 끝에 받게 된 것이다. 그 돈은 그에게 사업상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돈이었지만 이 돈을 지금까지 모은 돈과 합쳐 소쩍새 마을에 보시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발원하고 도움을 준 곳이 비단 소쩍새 마을만은 아니다. 이씨와 부인, 아들 둘에게 보시는 생활이다. 불국사, 통도사 등에 이름나지 않게 보시해 왔고 부인과 함께 죽기 전까지 5백 벌의 가사불사를 발원하고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75년 대불련 활동으로 불교와 연을 맺은 이씨는 부인도 대불련에서 만났고 결혼도 스님 주례로 했을 만큼 불연이 깊다.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졌을 뿐이니 잘 관리하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 나만을 위해 쓸 수 없고 어려운 이들과 나누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소유자'이기보다 '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그는 나누는 지혜, 보시의 기쁨을 알기에 세상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다.

한명우 · 천미희기자 (mwhan@buddhapia.com)

1000일간 릴레이 철야정진

정토회, 3월1일부터…평화통일 염원

남북통일을 발원하는 철야정진 기도의 신기원이 세워질 전망이다.

좋은벗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JTS가 속해있는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평화로운 세상과 겨레의 하나됨을 위한 1000일 24시간 정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000일간 릴레이 철야정진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토회는 3월1일 10시에 '평화통일을 위한 1000일 정진' 참여단체와 함께 선포식을 갖고 '1000일 24시간 철야 정진'에 들어간다. 또 매주 금요일 통일학교를 개최하고, 통일돼지 저금통을 나눠주며 통일 분위기 확산에 노력할 방침이다.

3월 3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총 143회 동안 진행될 통일학교 세미나는 전문강사의 강연과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강좌는 전문적 이론보다 불자 스스로 통일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로 이끌어 갈 방침이다.

통일돼지 저금통을 통해 모금한 기금은 북한동포를 돕고 농업지원과 의약품지원, 위생복지사업, 산림복구사업에 쓰여진다.

특별위원회 노옥제(청년정토회) 간사는 "1000일 동안 법당에서 기도와 목탁소리가 끊기지 않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시간 철야정진은 교대할 때 5분 동안 앞 뒤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하게 해 통일염원이 계속 이어질수 있도록 했다.

김재경 기자

가톨릭 신자 관음상 조성 길상사 봉헌

"나의 신앙적 본향은 가톨릭이지만 예술적 원천은 불교였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원로 조각가 최종태(전 서울미대 교수)씨가 관세음보살상을 조각해 서울 길상사에 봉안하기로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여름 소설가 정채봉씨의 소개로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을 만난 최씨가 종교의 벽을 넘어 스님과 친분을 쌓게되면서 스님이 회주로 있는 길상사에 관음상을 봉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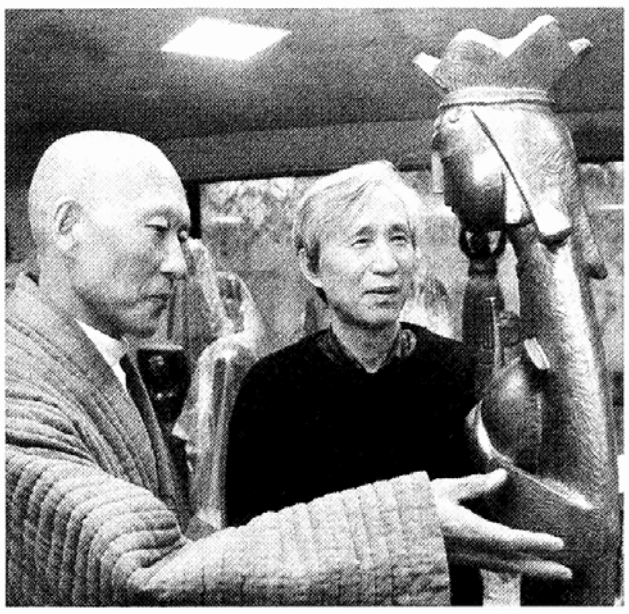
최씨는 현재 현대적 조형미를 갖춘 120㎝의 청동 관세음보살상 제작을 마쳤다. 최씨는 이 관음상을 토대로 180cm의 화강암 관세음보살상을 제작, 4월28일 관음재일에 길상사 설법전 앞에 봉안할 계획이다.

최씨로부터 최근 청동 관세음보살상 복사본 하나를 선물받아 강원도 산골 자신의 오두막(토굴)에 봉안한 법정스님은 "불교에는 불상을 조성한 사람을 불모(佛母)로 섬기고, 그 불상은 불모를 닮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최씨가 만든 관음상은 그의 이미지를 닮았다"고 말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으로 전국의 유명 성당과 성지, 수도단체 등에 한국적 순교자상과 성모상 등을 봉안했을 만큼 독실한 천주교인인 최씨가 불상제작을 하게 된 데에는 김수환 추기경과 장익 주교의 흔쾌한 찬성과 격려가 큰 힘이 됐다는 후문이다. 김 추기경은 일본에 천주교가 전파된 초기, 성모상을 구하지 못한 천주교인들이 관세음보살상에 작은 십자가 등을 표시해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예배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격려해 주었다고 한다.

천주교와 불교의 아름다운 만남. 관세음보살상은 대자대비의 상징이자 중생의 재난과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어머니'의 이미지와 함께 천주교 '성모마리아'의 박애와 사랑의 미소까지 담고 있는 듯하다.

도필선 기자



◇종교의 벽을 넘어 아름다운 인연을 맺은 법정스님과 최종태씨. 스님이 최근 최씨의 작업실을 방문, 완성된 불상을 보고 흡족해 했다. 〈사진=동아일보제공〉

봉사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동국대 '사회봉사 적립통장' 제도시행

동국대가 2000년 신학기부터 사회봉사활동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연계지급하고, 학점과 취업알선에도 반영하는 '사회봉사 적립통장' 제도를 시행한다.

일반 은행통장과 같은 크기의 사회봉사 적립통장은 봉사기관과 장소, 일시와 내용, 누적기간 등의 난을 만들어 한눈에 봉사활동 내역을 알아 볼 수 있게 했다. 동국대는 이 통장을 바탕으로 연 1천 시간(봉사횟수 3백회) 이상 봉사한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 7백 시간(봉사횟수 2백회) 이상이면 등록금 반액, 연 2백50시간(봉사횟수 80회) 이상은 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봉사활동 등급에 따라 봉사후장 '금장'과 '은장' '동장' 등을 수여, 해외연수나 취업추천시에도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된다.

동국대는 이 통장을 16, 17일 열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장에서 학생 전원에게 나눠주고,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까지 확대해 봉사활동을 생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은자 기자

재가연대 공동대표에 민병천 · 정천구씨 추가

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상임공동대표 박광서)는 12일 조계사 문화교육관에서 200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불기 2543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254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등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재가연대는 민병천 서경대 총장과 정천구 영산대 총장을 새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이로써 공동대표는 박광서 · 임동주 · 임완숙씨를 비롯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재가연대는 이날 청정교단의 구현, 재가불자 신행혁신, 사회적 회향을 3대 사업기조로 정하고 1억5천4백10만원(99년도보다 54.1% 증액)의 예산안을 확정했다.

김재경 기자

"북한사찰 60여개 스님 3백여명"

법타스님 '북한불교연구' 펴내

현재 북한에는 60여개의 사찰에 1만여명의 불교신자가 있으며 300여명의 대처승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타스님(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공동대표)은 최근 국내 첫 북한 불교 종합보고서로 평가되는 〈북한불교연구〉(민족사)를 통해 북한 불교실태와 변화상을 여실히 담아냈다.

법타스님은 지난 89년부터 99년까지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 북한불교를 현장답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 '20세기 최근세의 북한불교의 변화에 관한 연구'로 미국 미주리주 클레이튼대학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스님의 논문은 이번에 남북한의 통일정책, 남북불교 관련자료를 추가해 700쪽이 넘는 연구서 〈북한불교연구〉로 편집 · 발행된 것.

〈북한불교연구〉에 따르면 88년 이후 북한에서는 매년 불교의 3대 명절인 성도절, 열반절, 석탄절에 묘향산 보현사, 평양 용화사 등 각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주관하는 등 불교의식도 거행하고 있다. 승려교육기관으로는 불학원(佛學院)을 두고 지도교수와 같은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북한의 승려들은 대처승 제도와 마찬가지로 의복이나 의식 또한 일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남한처럼 조계종을 표방하며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다.

김재경 기자



격월간 '인드라망' 창간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공동대표 도법)는 격월간 기관지인 〈인드라망〉 창간호(3 · 4월호)를 2월말에 창간한다. 100쪽 분량으로 엮어질 〈인드라망〉은 녹색연합에서 발행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 형식으로 꾸며지며, 회원들의 동향과 글 모음, 생명 · 환경운동 전문가들의 글 등을 게재해 불교의 생명사상을 널리 알리게 된다. 동회는 3월3일 오후3시 조계종 포교사단 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한편 실상사 귀농전문학교는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김재경 기자

현세(現世)의 불자들이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家寶)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줄수 있는 이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성품(聖品)

법화삼부경(一名, 법화경) 금니 8폭 조각 병풍

『아래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이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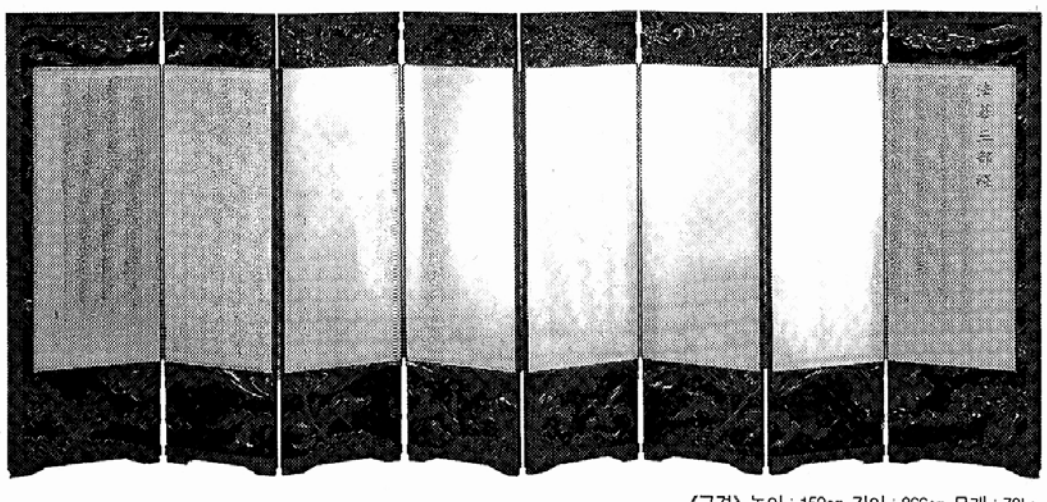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특 징

- 법화삼부경 8만4천여 자가 8폭 금속판 위에 한자 한자 양각으로 입체 조각되어 99.9% 순금으로 도금된 후 영구적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표면에 특수코팅 처리를 하여 때가 묻거나 변색되지 않습니다.
- 병풍은 한폭마다 연꽃, 구름, 법륜, 하늘, 바다 등 모든 구성요인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조각되어 있기 때문에 생동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 수 있도록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가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 본 병풍 소장자는 부부이름이 금속판에 조각, 순금으로 도금한 후 병풍 뒷면에 부착되므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선조님으로 길이 남게 됩니다.
- 본 병풍은 실용신안 및 의장등록특허를 출원하였으며 한폭 한폭 조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신청 후 받으시는데 1~ 2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 인도방법은 손상의 우려가 있어 한폭 한폭을 원하시는 장소까지 본회에서 직접 모셔다 드립니다.



〈규격〉 높이 : 152cm 길이 : 366cm 무게 : 70kg

■ 본 병풍을 모신 스님과 불자들에게 일어난 신비스러운 사례

①집안의 공기가 병풍에서 쏟아져 나오는 법기(法氣)의 영향으로 맑아지면서 집안에 생기가 가득차고 앞으로 6개월밖에 못산다는 중환자가 건강이 점점 호전되어 낳아지고 있는 기적이 일어났다.
②도산 직전에 있던 회사가 사장이 이 병풍을 모신 후부터 매출이 몇배 신장되고 우연히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생기고 하여 이제는 완전히 회생하였다.
③자손이 없어 고민하던 사람이 병풍을 모시고 그 앞에서 2개월 정도 기도후 아기를 갖게 되었다.
④집안에 도적이 들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한다. 집안에 현금과 보석이 가득한데 그것을 못찾고 간 것은 병풍의 법기(法氣)가 재산을 가려주었다고 본다.
⑤사법시험에 육년동안 실패했던 고시생이 집안에 병풍을 모신 뒤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⑥수험생을 둔 학부모 7명이 모두 병풍을 모신 뒤 원하는 대학에 특차로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⑦기독교를 믿고 있던 사위가 병풍을 모신 뒤 바로 불교로 귀의하면서 매일같이 병풍앞에서 3배씩 절을 하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불경을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⑧37세의 노처녀가 병풍을 모신 뒤 2개월 만에 총각 한의사를 만나 결혼하였다.

#상기 효험사례 외에 병풍을 모신 사람마다 크고작은 집안의 경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가족들이 모두 병이 없어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으며, 집안이 화목해지고 어떤 일을 하던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힘(力)이 도와주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하는 신비스러운 작용들을 전해 오고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카다로그 및 설명서 보내드립니다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 (0335)334-9490, (0335)334-9491
야간 : (0342)706-3060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제5회 신행수기 당선작(천태종 총무원장상)

부처님 감로법 이제 알았네 ㊦

정 호 귀 〈경북 청송군 청송교도소〉

현대불교 '길을 묻는 …'을 본후부터 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새사람으로…

이때부터 나는 불경도 외우고 불교서적을 보면서 불교신자들이 기거하는 종교방으로 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부처님 전에 참회하기 위해 100일 기도를 시작했다.

난생처음 해보는 108배는 결코 만만치 않았다. 절을 하자 예전에 군 시절 다쳤던 허리 통증이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그러나 양초가 스스로를 태워 주위를 밝히는 것처럼 내 육체의 고통이 정신을 밝히는 기름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고통이라고 참아내고 말겠노라고 이를 악물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무사히 기도를 마칠 수가 있었다.

100일 기도가 끝나자 나는 또 다시 원을 세우고 〈반야심경〉을 사경하기 시작했다. 한자 쓰고 절하고 또 한자 쓰고 절하고 할 때마다 나의 눈에서는 참회의 눈물이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이와 같은 기도를 나는 교도소에서 여러 번 했다. 그리고 시간 나는대로 어머니께서 넣어준 〈한마음요전〉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마음 공부도 했다.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큰스님과의 대화 '길을 묻는 이에게' 란을 보게된 이후부터 나의 생활 태도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무슨 말 무슨 짓을 해도 입기만 하던 동료들이, 내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그렇게 반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그때 나는 자주 쓰이고 있는 '미운 짓만 골라한다'는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 상대방이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갖다보니 그가 무슨 짓을 해도 밉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이때부터 나는 내 마음속에 참나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또한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에도 미워하지 않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탓이려니 하며 극복하고자 하였다. 내게 닥친 모든 경계를 회피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나를 단련시키려는 참나의 가르침으로 알고 의연하게 견뎌냈다.

이렇게 마음공부에 열심히 정진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나는 참나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생활하던 나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심심이 얕은 나에게 불교회장이라는 무거운 짐이 지워짐으로써 부처님의 제자로서 더욱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내 마음속에 더 가까이 부처님을 모시고 조금이라고 속죄하며 두터운 업장을 소멸시킬 수 있다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살았다. 내가 더 노력할수록 보다 알찬 불교집회가 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여러 불자들에게 나의 체험과 더불어 보여 증으로써 실천하는 불교를 만들고자 했다. 우리 불교신자가 모두 내 마음처럼 밝아지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무거운 일을 시작했다.

다른 도반들보다 더욱 정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일어나 잠자리를 정리한 다음 삼귀의를 시작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 기도 내용은 몇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다. 나의 가족과 이웃, 친척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를 돈독히 해달라는 것과 나를 알고 있는 사람과 과거에 나로부터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력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것. 그리고 아내에게 품었던 그 복수심과 증오심이 모두 없어져 나보다 더 나은 새 사람 만나 사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 나의 기도 내용이다.

기도가 끝나면 관세음정근을 염하면서 108배로 이어지고 이것이 끝나면 '노파소암'이라는 화두로 참선을 한다. 참선을 하다보면 아침 기상 나팔이 울리고 다시 함께 기거하는 도반들과 아침예불을 드리고 공장에 출역하여 일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 일이나 운동을 할때에도 관세음보살님을 수없이 염한다. 하루 일과를 끝내고 방에 들어오면 여러 도반들과 함께 다시 예불문을 시작으로 자녁예불을 시작한다. 계향 정향 혜향 …. 하다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기쁨에 겨워 나의 눈에서는 서서히 눈물이 고이면서 글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와 닿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취침 전에도 반드시 기도로써 관세음보살님과 나의 대화가 이어진다.

"관세음보살님, 저는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보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세음보살님, 제가 지금 불교회장을 맡고 있는데 임기 안에 합창반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저에게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등등.

이렇게 모든 일들을 관세음보살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비록 이곳이 자유를 박탈당한 교도소이지만 왜 그리 마음이 편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힘이 솟는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을 것이다. 꾸준히 정진하고 원을 세워 기도한다면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를 입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경험에서 오는 것이리 누구에게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군대 시절 다쳤던 허리가 재발해 무척 고생을 했는데 그동안 꾸준히 부처님께 기도한 공덕인지 지금은 말끔히 나았다.

그리고 7개월 전에는 정신교육을 받는 교육장에서 교관으로 계신 남재영 부장님께서 우리 소에서 대화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보면 참 편안해 보인다면서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불교회장이더라는 말을 교육을 받고온 교육생들을 통해 전해들을 수가 있었다. 또 두달 전에는 청송 진성사의 주지 지공스님께서 관세음보살님의 관욕의식을 갖기 위해 많은 보살님들과 함께 오셨는데 나를 소개하시는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동안 나의 눈에서 살기가 돈다는 말 대신 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원력을 세워 꾸준히 기도한 결과 부처님께서 가피를 내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포기해 버리고 죄악과 방황에 빠져있던 한 인간이 새 사람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근본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훌륭하신 가르침을 통해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을 가슴깊이 새기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공부할 것을 다짐해 본다. 남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면 한국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배워서 아직도 부처님의 감로법을 모르고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나와 같이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로법을 전할 수 있는 포교사가 되기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이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그림 · 이준석

살아있는 法語, 살아있는 佛敎史料
이천만 불자의 참대변지, 수행의 길잡이 …

현대불교신문
1999년도 합본집 발간 (50부 한정판매)

'94 ~ '99년 디지털 합본집 CD도 함께드립니다.

1999년도 한해 동안 발행된 현대불교 신문의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큰스님 법문, 한국문화의 중추가 되는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님들에게는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사찰의 스님들께는 참다운 수행의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99년도 합본집' 제5호를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94년 창간호부터 1999년도 송년호까지 모든 기사와 보도사진이 수록되어 있는 '디지털 합본집 CD-ROM'을 증정합니다.

수록내용 : 1999년도 (201호~251호)
판 형 : 신문원형 그대로
가 격 : 1권 65,000원 (발송비 5,000원 포함 · 직접 구입시 발송비 제외)
입금구좌 :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023-25-0007-617 농협 053-01-227471 우체국 010041-0255243
문 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代), (02)737-0090(直)

인터넷 마하몰

불기 2544년 부처님 오신날에는
『사찰과 그 주변을 환히 밝히고 있는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을 만나십시오』

02) 732-1522(직)
02) 737-8881
인터넷 주문: http://www.mahamall.co.kr



마하 반야심경 봉축등은…

각종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주며 행사기간 내내 사찰과 그 주변을 밝게 비추고 있을 것입니다.

- 물에 젖지 않으며 견고함을 자랑합니다.
- 사용후 접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보관이 되므로 운반, 보관이 간편합니다.
- 밝고, 다양한 색디자인과 단청문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불도량의 장엄함을 느끼게 해 줍니다.
- 선명한 색상 오색으로 이어진 야간 점등 후 모습은 한국전통등으로써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 부처님의 교설을 열심히 공부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불자들의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주문전화 : 02)732-1522(직통)/737-8881(대표)
▶ 주문팩스 : 02)737-0697
▶ 판 매 원 : 마하몰

이 연등은 재가불자들의 구매용이 아닙니다.

마하 반야심경 봉축 조립등



<설치순서>
1. 연등의 윗부분을 조립한다.
2. 연등의 아랫부분을 조립한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포함, 탁송비 별도
■ 가격 : 1,84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60182호

(이름표)



마하 반야심경 봉축 접등



<설치순서>
1. 접힌 상태의 연등을 편다.
2. 내부에 접혀 있는 지지철봉을 누른다.
3. 연등을 설치한다.

■ 초꽂이 포함, 등걸이 철사 포함, 이름표 별도, 탁송비 별도
■ 가격 : 2,500원 (이름표 포함 2,600원)
※ 실용신안 번호 : 제 0179042호

(이름표)

